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백선헤 조윤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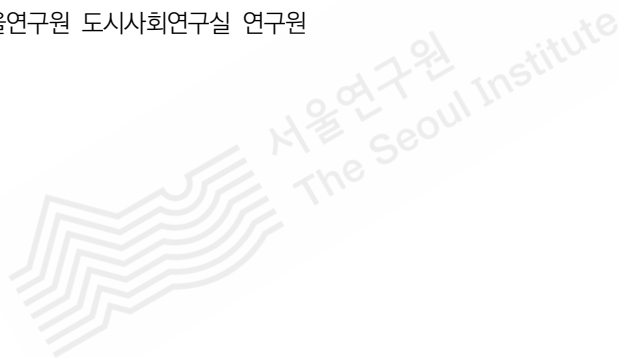


연구책임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조윤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는 문화표현의 자유·타인 수용성에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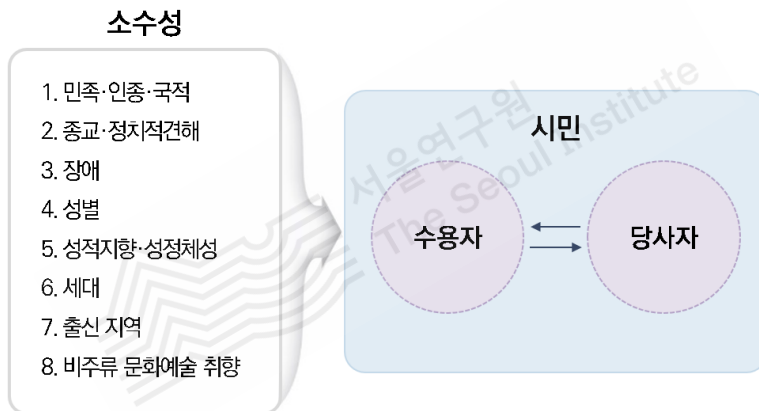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지표개발이 ‘먼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1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든 인류의 자산이자 개인의 권리이며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천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기존의 다문화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집단과 문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국제도시로 역동성을 가지는 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수많은 갈등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로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한 불인정은 충돌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인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크게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환경과 시민인식조사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특히 시민인식조사 실시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시행을 위한 지표개발과 시범조사 실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소수성 수용자·당사자로 시민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조사는 수용자로 국민(시민)을, 대상자로 소수자를 설정하여 일반국민의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는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이자 소수성을 갖는 당사자로 설정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소수성은 우리연구원에서 선행되었던 라도삼 외(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의 대상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항목, 서울시민 문화표현에 초점된 설계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차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기 평가와 경험에 대한 판단이고, 사회적 차원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판단이다.

개인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내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인지도’, 내가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용도’, 내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차별 경험도’, 나만의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여부와 그 비주류 문화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고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와 문화다양성 사업별 필요도를 확인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등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확정된 인식지표체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

구분	지표항목		세부내용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율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보고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 등 항목을 세분화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세분화하였고, 개인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인지적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사회적 거리감)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다만, 표본설정의 한계로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수자 집단별 당사자와 전문가(활동가)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지도 매우 높지만 소수문화 수용도는 낮아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84.9%가 인지)이지만, 문화다양성의 대상을 민족인종국가에 한정하여 인식하고, 그 외 성적지향성정체성, 전통문화, 장애, 소득 등의 요인은 문화다양성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높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특히 성소수자집단,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표출하고 있어 실제 수용도는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인식 차원의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의 부재가 원인으로 보인다. 소수자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이며, 소수집단이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수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서울시민의 21.2%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인이 문화적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표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성소수자, 중국동포, 베트남 이주여성 등이 무시와 차별을 피하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

정부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5.5%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57.1%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소수자 집단 심층인터뷰에서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요인으로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점, 수도로서의 지위,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을 높게 평가했지만, ‘소수자 권리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항목에는 34.7%가,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34.5%만 긍정 응답을 하였다. 이는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보다 제도적 구현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69.4%는 서울시정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은 포용적 사회 발전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소수자 접근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범조사 결과 보완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속적으로 실행할 필요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시민인식조사와 정책환경조사의 두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축 중 시민인식조사에 초점을 맞춰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다양성 시민인식 시범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8개로 구분한 문화다양성 범주와 관련하여 ‘종교·정치적 견해’는 분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감 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를 구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범주를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8개 범주 중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델파이 조사와 자문회의에서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예술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취향영역으로 확대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렸던 범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둘째, 인식조사 표본은 소수문화집단을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는 일반시민과 소수문화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지표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조사에서는 예산 등의 제약으로 표본설계과정에서 소수문화집단

을 별도로 반영하지 못했다. 일반시민과 소수문화집단을 나누어 표본을 설정할 경우 문화다양성 인식, 차별경험,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등의 항목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설문방식으로 실시되는 서울시민인식조사 외 별도의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다. 설문조사만으로는 소수문화집단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인식과 침해사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범조사에서는 예산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상황적 이유로 민족·인종·국가,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4개 대상만 조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 문화다양성 8개 범주 모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다른 한 축인 정책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과 여건지표를 개발하여 조사·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환경조사는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체계로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행정적으로 취합하는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적 정책방향 없이 관련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은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고 조사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주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과 목적	2
2_연구내용과 방법	7
0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12
1_문화다양성 관련 제도	12
2_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18
03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26
1_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26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안) 설계	38
3_델파이 조사를 통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도출	41
04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 결과	54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54
2_서울시 소수자 대상 심층인터뷰	83
3_소결	109
05 결론	114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와 시범조사 결과 요약	114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방향 제언	121
참고문헌	129

부록	131
1_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항 설계 및 신뢰도 검증	131
2_1차 델파이 설문지	136
3_2차 델파이 설문지	165
4_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184
Abstract	201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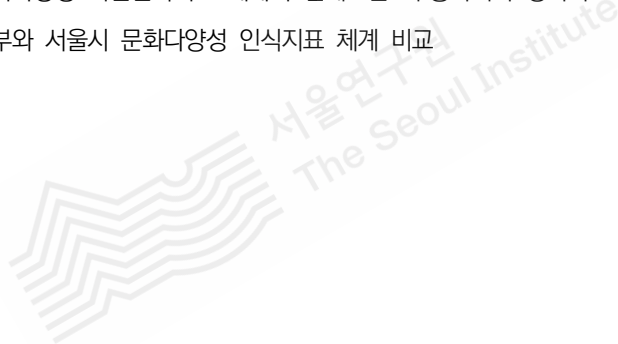
[표 2-1]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15
[표 2-2]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수와 예산	18
[표 2-3]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연도별 사업건수와 예산액	19
[표 2-4] 서울시 기관별 문화다양성 사업 건수와 예산	19
[표 2-5]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목표별 사업건수와 예산	20
[표 2-6] 무지개다리사업 사업내용	22
[표 2-7]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기관(서울시)	22
[표 2-8] 2019년 구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사례	23
[표 2-9] 2019년 종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사례	24
[표 3-1]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와 실태조사 목록	26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27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28
[표 3-4] 광주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29
[표 3-5]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30
[표 3-6]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내용	31
[표 3-7] 인천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31
[표 3-8] 인천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32
[표 3-9]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33
[표 3-10]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34
[표 3-11]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35
[표 3-1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의 지표 분류체계	36
[표 3-13]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설문 문항	40

[표 3-14] 델파이 조사 내용	41
[표 3-15]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지표(안)	43
[표 3-16] 전체 지표 구성 및 각 지표의 적절성(1차 조사 결과)	44
[표 3-17] 전체 지표구성 관련 수정 의견(1차 조사 결과)	45
[표 3-18] 문화다양성 범주의 용어에 대한 수정(안)	46
[표 3-19] 문화다양성 범주 용어 수정(안)의 적절성 평가	46
[표 3-20]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수정(안)에 대한 동의도	47
[표 3-21] 문화적 배경과 문화표현 수정(안)	47
[표 3-22] 단어 및 문구 수정(안)과 설명의 적절성	48
[표 3-23]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지표체계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50
[표 3-24] 사회적 거리감 척도 추가 필요 여부	50
[표 3-25]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최종안)	51
[표 4-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내용	55
[표 4-2] 응답자 특성	56
[표 4-3] 응답자 특성별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58
[표 4-4]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도	60
[표 4-5] 응답자 특성별 '문화다양성'에 관한 생각과 태도	62
[표 4-6] 응답자 특성별 문화표현 존중도	63
[표 4-7] 연령별 '성적지향·성정체성'의 문화표현 존중도	64
[표 4-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존중도와 사회적 거리감 비교	70
[표 4-9] 최근 3년간 일상생활(오프라인)에서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71
[표 4-10]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 대응 방법	73
[표 4-11]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 대응 방법	74
[표 4-12] 소수자 인식과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76
[표 4-13] 소수자 심층인터뷰 대상	85
[표 4-14] 소수자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85
[표 5-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124
[표 5-2]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와 실태조사 기준 비교	127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증가 현황	4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비율(2018년 기준)	4
[그림 1-3]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혐오표현 확산 관련 기사	5
[그림 2-1] 제2차(2019~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틀	16
[그림 2-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틀	17
[그림 2-3] 2019년 종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24
[그림 3-1]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체계 비교 (정부 vs 서울시)	39
[그림 3-2]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지표체계 수정(안)	49
[그림 4-1]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57
[그림 4-2]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	59
[그림 4-3] ‘문화다양성’에 관한 생각과 태도	61
[그림 4-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63
[그림 4-5] 이웃이나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65
[그림 4-6]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동의’ 응답 비율	65
[그림 4-7]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66
[그림 4-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67
[그림 4-9]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동호회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68
[그림 4-10]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에 참여할 의향	69
[그림 4-11] 최근 3년간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71
[그림 4-12]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72
[그림 4-13]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73
[그림 4-14] 최근 3년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	74

[그림 4-15] 타인의 문화표현에 거부감을 느낀 경험	75
[그림 4-16] 타인이 문화표현에 거부감이 들었을 때 행동	75
[그림 4-17]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76
[그림 4-18] 비주류 문화의 표현도	77
[그림 4-19]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77
[그림 4-20] 비주류 문화를 표현하는 데 어려운 점(1순위+2순위)	78
[그림 4-21]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79
[그림 4-22]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나와 서울시민의 존중도 비교	79
[그림 4-23]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식 수준)	80
[그림 4-24]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식 수준)	81
[그림 4-25]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82
[그림 4-26]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82
[그림 4-2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83
[그림 5-1]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체계의 전제조건: 수용자이자 당사자로서 시민	115
[그림 5-2] 정부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 비교	116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2_연구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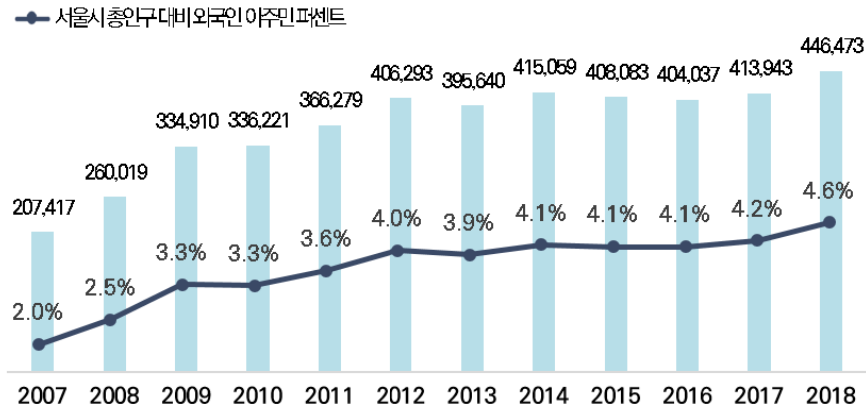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
 - 1990년대 초 문화산업이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면서 자국 문화를 지키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 사용
 -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를 보전해야 한다며 '문화다양성' 개념을 제기
- 유네스코는 개인과 공동체가 다문화화하는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파악
 - 1995년 유네스코 세계발전위원회는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ity Diversity)' 발표
 - 문화다양성이 생물다양성만큼 중요하며, 국가, 지역, 인류사회의 중요한 발전전략이라 강조
- 2011년 11월 2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천명하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채택
 -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이 모든 인류의 자산이자 개인의 권리이며 창조의 원천이라 천명
 - 문화다양성은 민족과 인종차별로 집단학살에 이르게까지 했던 세계 2차대전의 반성에서 출발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ESCR, 1966), 시민·정치적 권리의 국제 규약(ICCPR, 1966)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문에 명시

-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출발점이 외국인 이주민 등 기존 단일사회가 분화되며 나타나는 내부적 다양성에 대응한 데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와 차이
 - 2010년 이전 우리나라는 주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등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냐는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 시행
- 다문화 정책을 넘어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시작된 것은 우리나라가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한 이후
 - 외국인 이주민의 정착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무지개다리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
-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화다양성 정책 본격화
 - 문화다양성법에 기초하여 연차보고서 발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시행,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
 - 2017년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에 피선
 -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의 9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이 포함됨
- 서울수도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
 - 서울시는 세계 여러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집단과 문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국제도시
 -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는 2007년 207,417명(2.0%)에서 2018년 446,473명(4.6%)로 두 배 이상 증가
 -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은 외국인주민이 10%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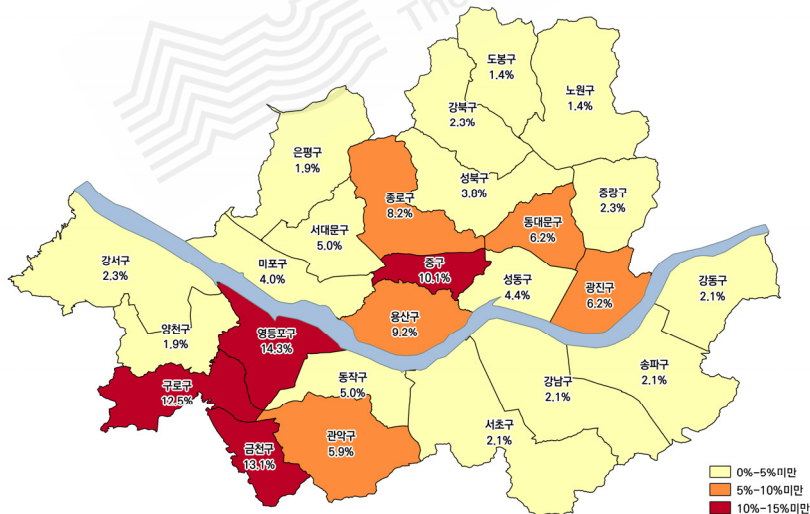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증가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07~2018)」.

주. 외국인주민 현황은 2015년에 통계조사 방법이 변경되어 2015년 외국인주민 수는 2가지의 수치가 존재. 2015년부터 변경된 방법의 수치로 계산함.

- 변경 전 조사방법: 읍면동 공무원이 대상자별 주민등록·가족관계 시스템 조회 후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 자료 비교 및 필요 시 전화조사 후 통계정보 생성 및 입력.
- 변경 후 조사방법: 통계청에서 인구총조사·주민등록·가족관계·인구변동·외국인등록·거소신고 등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 DB 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생성.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비율(2018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8)」.

- 문화다양성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수많은 갈등을 양산
 -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론통일이나 사회통합을 강조한 결과, 다양한 문화의 수용 성이나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며 이는 다양한 양상의 사회갈등으로 분출
 - 서남권 지역의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이태원클럽에 대한 사회적 냉소, 검찰청 앞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의 대치 등이 상징적인 예



[그림 1-3]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혈오표현 확산 관련 기사

-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가피
 - 서로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한 불인정은 충돌과 갈등을 야기
 - 문화다양성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 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달리 말하면, 어느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나 지역이 자기 문화를 표출하도록 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¹⁾
-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

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 이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
- 이를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²⁾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
-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8년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라도삼)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실행을 위한 기본 체계를 설계
 -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시민도시 구현’을 제시하고 3대 정책방향을 설정: 소수문화 보호 육성,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 정책기반 구축
 - 특히 정책수립 이전에 문화다양성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
-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규정
 -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등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환경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과 제도
 - 문화다양성 관련 사회적 인식
 -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현재 서울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와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 중

1) 라도삼 외,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p.3.

2) 동 조례 2조에 따르면,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및 제도나 관련 사업,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환경 등을 문체부의 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파악
 -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 중인 문화영향평가로 파악 가능
- 그에 비해 문화다양성 관련 사회적 인식조사는 실태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으로, 서울시에 적합한 조사지표체계부터 방법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
 - 부산시, 광주시 등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다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인식조사를 실시 중
-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인식조사에 초점을 두고 지표개발 및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_연구내용과 방법

- 이 연구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여건,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 행정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여건 파악
 -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하는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및 정책실태조사 보고서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
 - 그 외에 문헌 및 사례조사 등을 병행
 -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 여건을 파악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계와 시범조사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지표체계 개발과 설문 문항 설계를 위해 단계적 과정을 거쳐 설문 문항 초안 작성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주요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2019. 12. 3.)

- 국내외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사례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설문 문항 초안 작성
- 해외 문화다양성 조사에서 추출된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테스트 설문 실시: 서울시 엠보팅 조사(2020. 2. 17.~2. 26., 총 158명 참여)
- 인식조사 설문 문항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1차 델파이 조사(2020. 2. 28.~3. 12., 30명 응답): 연구진이 제시한 전체 지표 구성, 지표별 문항 구성과 개별 설문 문항 적절성 평가 및 수정의견
 -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델파이 조사로 수렴된 의견 검토 및 반영 방향 결정(2020. 3. 30., 2020. 4. 10.)
 - 2차 델파이 조사(2020. 5. 4.~5. 20., 29명 응답): 1차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수정된 용어, 지표구성, 변경 또는 추가된 설문 문항의 적절성 평가
- 델파이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 확정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방향은 서울시민을 문화다양성의 당사자이자 수용자로 설정하고, 개인의 문화표현에 초점을 맞춰 문화다양성 발현방식을 확인하는 것
 - 문화다양성의 대상은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나이),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등 8개 영역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실태 시범조사 실시
 - 2020. 6. 23.~6. 30., 온라인 설문조사
 - 서울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1,000명 대상
-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조사
 -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소수자 집단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문화표현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 2020. 5. 27.~6. 18. 3주간 면대면 심층인터뷰와 비대면 영상인터뷰를 병행

- 인터뷰 대상은 인종·민족·국가, 장애, 성적지향·성정체성, 성별(젠더) 등 4개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를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와 전문가 13인을 선정
- 심층인터뷰 내용
 - 한국사회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인식 평가
 -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사적 영역, 공적 영역)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0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1_문화다양성 관련 제도

2_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0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여건

1_문화다양성 관련 제도

1) 조례

(1)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기본 사항과 추진체계를 규정한 조례로, 2017년 5월 18일 제정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와 구로구가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년 11월 16일 제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년 1월 5일 제정
-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 및 연구, 정책 실행조직 구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권고 및 표창 등으로 나누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규정
-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실행계획 수립
 -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서울

시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문화다양성 관련 조사와 연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향유·창조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및 공표
 -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
- 정책 실행조직 - 문화다양성위원회
 -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실태조사, 지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계 기관 및 지자체 간 협조 등 문화다양성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의무 기구
 - 문화예술정책, 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여성가족정책, 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문화다양성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우선 설치 필요
- 정책 실행조직 - 지역협력체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기구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과 교육
 -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활동 또는 문화시설 지원
 - 교사, 청소년, 그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 조치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을 표창

(2) 연관된 조례

- 서울시가 문체부에 제출한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는 총 27개
 - 소수집단 복지지원이나 문화기관 설립 등 문화예술 일반에 해당되는 조례 등은 문화다양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고 제외하면,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는 약 12개로 파악됨
- 이들 조례를 문화다양성 8대 대상영역별, 즉 민족·인종·국가,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으로 분류하면 [표 2-1]과 같음
 -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활성화를 지향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대상집단 또는 정책수행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
 - 그 외 대부분의 조례는 외국인주민,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특정 대상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종교·정치적 견해, 성적지향·성정체성, 출신지역 관련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표 2-1]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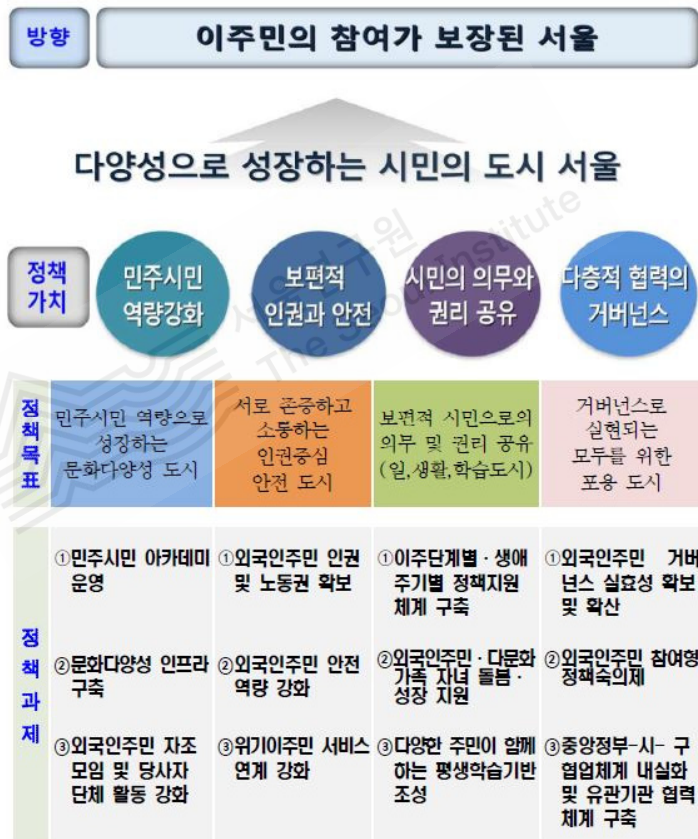
대상	조례	관련 내용
시민 전체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호 및 확산)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체
민족/인종/ 국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범위) ①의 4. 각종 문화, 체육행사의 개최 ②의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의 범위) ①의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개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장애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체
성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의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라. 성평등 문화확산
세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②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서울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	전체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8조(자치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설치)

2) 기본계획

-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 전이며, 다만 문화다양성 사업과 연관성이 큰 기본계획이 존재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계획으로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음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이 주무 부서이고 2019년도에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됨

- ‘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시민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목표 5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4대 목표 중 하나가 ‘민주시민 역량으로 성장하는 문화다양성 도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으로는 글로벌문화주간 선정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개선, 이주민 문화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 개발·보급사업,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개최 등이 있음



[그림 2-1] 제2차(2019~2023)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틀

출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2019.8), “제2차 서울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를 근거로 하는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이 주무 부서이고 2018년도에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됨
-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목표로 중점과제로 10개 추진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있음
- 4대 목표 중 하나가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으로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성평등 문화확산 등이 10대 중점과제로 들어가 있음

비 전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			
방 향 (3)	함께 누리는 인권도시		포용하는 인권도시	참여하는 인권도시
정책목표 (4)	시민의 생활 인권 확대	인권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중 점 추진과제 (10)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안심 대책 마련 ·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강화	·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지속 추진 · 무장애 도시공간 조성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편견 해소 · 성평등 문화 확산	·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제도적 기반 강화 · 인권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그림 2-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틀

출처: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2_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1) 서울시 추진 사업

- 서울시가 작성한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가 추진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349건으로 2,072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이 169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91건),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48건) 순이었음
- 그 외에 국제문화교류,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업 등이 파악됨

[표 2-2]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수와 예산

구분	사업 수	예산 (백만 원)	사업 명(예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91	66,734	거리 예술존 운영, 마을미디어 활성화, 아시아 한마당 음악회,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연등축제 등 각종 축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건립 등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169	104,171	청춘극장 운영, 세계인의 날 행사, 중국동포사회 통합 지원, 문화다양성이 있는 북한산 韓(한)문화 페스티벌,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건립,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어린이 여성 축구교실, 여성 마라톤대회 개최 등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48	19,97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다문화합동결혼식, 배봉산 해맞이 행사, 동대문 봄꽃 축제 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7	757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 운영, 성평등 위원회 운영,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16	1,277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용역, 성주류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만들기,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와 과제 등
국제 문화교류	18	14,351	국제 다양성 음악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도시교류 협력 행사,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 지원, 서울시향유류순회공연 등
합계	349	207,267	

출처: 서울시, 2019. 6.,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
 - 추진 사업 수는 2015년 50건에서 2018년 349건으로 약 7배 증가
 - 사업 예산액 역시 2015년 61,182백만 원에서 2018년 207,267백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표 2-3]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연도별 사업건수와 예산액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 건수	50	166	294	349
예산액	61,182	223,267	207,288	207,267

출처: 서울시, 연도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2018년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서울시 7개 부서, 13개 자치구, 6개 공공기관에서 시행
 - 서울시의 담당부서는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복지정책실(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행정국 등
 - 자치구는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 13개 구가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
 - 또한 서울관광재단, 서울도서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향,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등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 중

[표 2-4] 서울시 기관별 문화다양성 사업 건수와 예산

구분	제출부서 및 기관	사업 건수	예산 (백만 원)
서울시 (9개)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복지정책실(복지기획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푸른도시국, 행정국	142	185,863
자치구 (13개)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187	13,967
관련 공공기관 (6개)	서울관광재단, 서울도서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향,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20	7,437

출처: 서울시, 2019. 6.,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42개 사업을 재분류한 결과, 약 10개 목표로 사업영역이 구분됨
 -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소수문화 이해 촉진, 문화표현 기회 확대, 문화 향유기회 확대(문화예술 일반/문화재·전통문화/체육), 문화예술 정보제공, 소수집단 복지지원, 소수집단 인권보장, 정책개발 평가, 지역문화 증진, 국제교류 등
- 이 중 문화예술 일반 사업이 29.8%, 소수자 집단 복지지원이 28.6%로 가장 높은 비중

[표 2-5]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목표별 사업건수와 예산

구분		사업건수	예산액(백만 원)	사업건수(%)	예산액(%)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8	656	5.6	0.4
소수문화 이해 촉진		6	1,801	4.2	1.0
문화표현 기회 확대		8	7,443	5.6	4.0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일반	27	55,454	19.0	29.8
	문화재·전통문화	15	21,448	10.6	11.5
	체육	12	14,935	8.5	8.0
문화예술 정보제공		2	1,668	1.4	0.9
소수집단 복지 지원		24	53,077	16.9	28.6
소수집단 인권보장		14	9,647	9.9	5.2
정책개발 평가		9	566	6.3	0.3
지역문화증진		2	7,360	1.4	4.0
국제교류 탐방		6	1,620	4.2	0.9
기타		9	10,188	6.3	5.5
합계		142	185,863	100.0	100.0

출처: 서울시, 2019.6., “2018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재구성.

- 많은 사업이 외국인, 다문화, 장애인 등 소수자 지원정책 차원에서 부서 개별 사업으로 운영 중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이주민 인권보호와 생활지원,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등
 - 결혼이주민 여성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등

- 성차별 근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마라톤대회, 성인지 통계 작성 등
- 장애인 문화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장애인 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등
-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사업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
 - 현재는 기본계획 등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 이에 문화다양성 사업 이해도가 다르고, 담당자가 해마다 바뀌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어려움

2) 정부 추진사업

(1) 무지개다리사업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지원 사업으로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 9년째 운영 중
 -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이주민 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임
 - 공모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며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권의 공공문화재단 및 공공문화기관을 대상으로 함
 - 문화다양성 확산에 기여할 역량이 있는 지역의 문화재단 등 공공문화기관 선정 후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개 주관기관 당 4천만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함(2020년 기준)
 -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통·교류 확대사업,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등임

[표 2-6] 무지개다리사업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 장애인, 이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노인, 청소년, 소수자 등 지역사회 소수자집단의 문화 표현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소수자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 - 청소년-노년층 등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및 갈등 현상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다양한 문화주체(소수자, 다수자 포함) 간 소통·교류프로그램 운영 ※ 지역 축제 등 일회성 행사 제외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 교류 확대 사업	- 문화다양성 주간(2019. 5. 21.~27.) 기념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민, 문화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 개발 및 자원 발굴 사업	- 관련 연구조사, 라운드테이블 구성, 워크숍 및 연수 운영 등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설명회 자료집」.

- 서울시 소재 지역문화재단과 공공문화기관도 해당 사업에 응모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구로문화재단(7년차), 성북문화재단(7년차), 종로문화재단(6년차), 성동문화재단(5년차), 서대문구도시관리공간(3년차), 도봉문화재단(2년차), 영등포문화재단(2년차) 은평문화재단(2년차) 등이 지원을 받음

[표 2-7]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 기관(서울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로문화재단			○	○	○	○	○	○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	○		
성동문화재단					○	○	○	○	○
도봉문화재단							○	○	
성북문화재단		○	○	○	○	○	○	○	
영등포문화재단								○	○
종로문화재단				○	○	○	○	○	○
은평문화재단							○	○	

- 구로문화재단은 해당사업으로 지역사회 공헌도를 인정받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종로문화재단은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구로문화재단은 중국동포의 거주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중국동포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多)가치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있음
- 특히, 소수 문화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지지하는 설계로 소수자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표 2-8] 2019년 구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사례

구분	다(多)가치포럼 사업
계획	- 지속적인 조사·연구 및 포럼 등을 통한 동포사회 자주적 문화그룹 양성 및 관심자 확산 - 동포사회의 의제를 동포 스스로 발굴하고, 당사자 간 교류 협력 강화 계기 마련
진행	- 동포사회 지역이슈 발굴 및 관련 이슈의 관심자 확산을 위해 총 3차의 포럼 진행(각 재한중국동포 정책현황, 동포밀집지역 기초질서 현황, 중국동포의 한국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 - 다(多)가치 포럼 운영 주제 선정 및 동포사회의 문화활동 활성화 위한 라운드 테이블 총 5회 진행
결과	-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사회 문제점 살피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다가치포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 확보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 중 - 관내 공공기관과 동포들이 많이 찾는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여 관심자 증가 - 동포의 이야기를 동포 스스로가 하게 하는 인식 확산, 이를 지지하는 여러 주변 기관들의 협력으로 자연스러운 매개자 양성 및 자주성 강화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p.102.

- 종로문화재단은 몇 년 전부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가진 서울 종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문화다양성 연극제와 영화제를 기획하고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킴
- 지역문화, 소수문화, 비주류문화 등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표 2-9] 2019년 종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사례

구분	종로문화다양성 연극제
계획	- 2018년 '문화다양성'의 가치 탐구와 확산위해 개최한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기반으로, 2019년 제2회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개최 및 운영 기획함
진행	- 11. 5.~12. 1. 대학로 소극장 4개 장소에서 7개 극단이 참여하였고 4개의 업체가 협력함 - 7개 극단, 7개 작품을 통해 약 1개월 간 총 10,481명이 관람함
결과	- 종로구 우수연극전과 연계하여 사업의 확대 운영, 2018년 제 1회 종로문화다양성연극제 보다 참여자 1.6배 증가함 - 다양한 연령대 대상으로 한 작품선정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사업의 의미 더하는 기회를 제공 - 전통·지역·소수·비주류문화와 공연예술분야 접목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의 일반 대중 및 미래세대와의 공감대 확산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p.120.

(2)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는 별도 지원 사업 방식으로는 운영되지는 않으며 정부가 주관하여 운영 중
- 서울시에서는 무지개다리사업을 지원받은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행사를 운영 중
 - 종로문화재단에서는 2019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로 문화다양성으로 읽을 수 있는 영화 작품을 선정하여 상영 및 토크쇼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그림 2-3] 2019년 종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집」.

03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 1_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안) 설계
- 3_델파이 조사를 통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도출

03.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

1_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선행연구 검토

1) 개요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연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4년 전후로 수행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 측정 연구」를 거쳐 2017년 선행연구의 지표를 보완·수정하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함
 - 광주시, 인천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문체부에서 개발한 지표를 기준으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혹은 실태조사 연구가 실시됨

[표 3-1]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와 실태조사 목록

시행처	연도	연구명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 연구	지표개발 연구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전국단위 조사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전국단위 조사
광주문화재단	2016년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역 단위 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17년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지표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2018년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지표개발 연구 지역단위 조사
서울연구원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정책연구

2)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 문화다양성을 소수 자집단과 사회문화현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소수자집단은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종교인 등 6개 집단임
 - 사회문화현상은 성별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전통문화의 위기,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등 7개 항목임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내용
소수자집단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종교인
사회문화현상	성별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의 독점
	전통문화의 위기
	지방(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73.

② 조사 내용 및 방법

- 문체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소수자 인식조사, 정책 및 여건조사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로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의 지표로 구성됨
 - 인식지표는 국민이 소수자집단과 사회갈등현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수용하고, 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2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함
- 소수자 인식조사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로 인지도,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만족도 등 5개 지표를 조사함
 - 활동지표는 소수자 집단이 느끼는 문화다양성 인식으로 국민이 소수자 집단을 얼마나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내용임
 - 소수자집단 중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각 300명씩 총 90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으며 1:1 대면조사를 통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함
- 정책 및 여건 조사는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기반 시설여건, 자원여건, 자원인력 여건을 조사함
 - 정책·여건 지표는 17개 시·도에 공문발송 후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음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비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인식 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및 가치평가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일반국민)
		관심도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수용도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포용도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도	
		필요도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소수자 집단 인식조사	활동 지표	인지도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설문조사 1:1 대면조사 (외국인노동자 , 결혼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친밀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시·도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정책 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지자체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예산	
	여건 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자원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인력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80.

(2)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광주문화재단, 2016)

① 문화다양성 대상

- 사회적 소수자와 비주류문화예술로 구분함
 - 사회적 소수자는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5개 집단임
 - 비주류 문화예술은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등 4개 항목임

[표 3-4] 광주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내용
사회적 소수자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비주류문화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출처: 광주문화재단,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pp.257~258.

② 조사 내용과 방법

-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시민인식조사와 전문가조사 2가지로 진행됨
 -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조사항목은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 정책, 개인의 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함

[표 3-5]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조사항목	세부 문항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태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 인지도
	문화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인식 정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정도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정도
	정부 및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 정도
	문화예술 행사나 프로그램 참여 의향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참여 경험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경험
사회적 소수자와의 거리감	사회적 소수자와의 지인관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수용도(알고지내는 사이, 이웃, 직장동료, 가족)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노인)	노인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
	노인들의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참여 의향
	노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비주류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비주류문화 관련 문화예술행사 참여 의향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비주류문화 활동가들에 대한 인식
	비주류문화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다양성의 날에 대한 인지 정도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
	2016년 무지개다리사업 세부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찬반 여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타 의견
개인의 성향	개인의 정치적 성향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
	문화예술활동 지출 비용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거주지역, 종교

출처: 광주문화재단,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pp.6~8.

- 전문가 조사는 초점집단인터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소수자 및 비주류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반영 사항을 조사함

- 조사대상은 정책일반, 다문화이주민, 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독립문화예술, 전통·지역문화, 대안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16명임

[표 3-6]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문항
조사내용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주류 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광주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에 반영할 사항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반영 사항

출처: 광주문화재단,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p.10.

(3)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인천발전연구원, 2017년)

① 문화다양성 대상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대상을 소수자와 소수문화로 구분함
 - 소수자 집단은 지역, 젠더, 장애, 세대 등 크게 4개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지역(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젠더(여성, 성소수자), 장애, 세대(청소년, 노인) 등 8개 집단임
 - 소수문화는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등 3개 항목임

[표 3-7] 인천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분류	세부분류
소수자	지역
	다문화·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젠더
	여성
	성소수자
	장애
	정신
소수문화	지체
	세대
	청소년
	노인
	독립문화
	전통문화
	생활문화

출처: 인천발전연구원,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p.104.

② 조사 내용과 방법

-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는 정책, 여건, 활동, 인식 등 4개 부문으로 설정함
 - 정책지표는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여건 지표는 시설여건, 자원여건 인력여건 항목으로 구성함
 - 활동지표는 소수자 및 소수문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로 구성함
 - 인식지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로 인지도, 수용도, 참여도, 평등도, 조례제정 찬반 여부로 구성함

[표 3-8] 인천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지표	세부지표	세부분류	조사방법
정책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조례·규칙·정책 수립 유무 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예산	
여건	시설여건	문화다양성 지원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문화다양성 단체 수	
	인력여건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수(여성 비율)	
활동 (소수자)	인지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 인지도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수용도	소수자/문화예술가가 체감하는 사회적 수용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 시설·자원·인력 활용도	
	평등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평등도/차별	
인식 (일반)	인지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인지도	일반시민 설문조사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수용도	
	참여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참여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우선지원 필요도	
	찬반여부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출처: 인천발전연구원,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p.104.

(4)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부산시·부산문화재단, 2018)

① 문화다양성 대상

- 부산시는 문체부의 2017년 조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 대상을 ‘소수자’와 ‘사회갈등’으로 구분하였지만, 세부 항목은 부산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였음

- 소수자집단은 장애인, 인종(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유학생),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 7개 집단임
- 사회갈등은 성별불평등, 세대 간 갈등,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 다른 지역 출신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 등 6개 항목임

[표 3-9] 부산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내용	
소수자	장애인	
	인종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난민
		유학생
	성소수자	
사회갈등	북한이탈주민	
	성별 불평등	
	세대 간 갈등	
	소득 차이로 인한 갈등	
	다른 지역 출신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	

출처: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p.5.

② 조사 내용 및 방법

- 부산시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구구조 특성조사,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관련 여건 현황 파악으로 구성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구구조 특성은 인구구조, 경제수준, 소수자 수 및 관련 시설 현황 조사로 구성됨
 - 부산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소수집단에 관한 인식과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인식,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등 3가지로 구성됨
 - 소수집단 인식조사는 소수집단 접촉 경험, 수용도, 포용도, 활동 경험을 조사하였고, 사회갈등 인식조사는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도를 조사함
 - 조사대상은 부산시에서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만 15세~79세 시민

- 1,200명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조사와 대면 면접조사를 병행
- 부산시 문화다양성 관련 여건 현황조사는 문화다양성 대상 8개 분야 중 장애, 인종, 성소수자, 청년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 종사자,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공공분야의 관련 주무관/연구원 인터뷰에서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 내용과 공공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장 활동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분야별 민간기관/활동가를 대상 인터뷰에서 현장 활동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과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지원에 대한 인식, 의견 등을 조사함

[표 3-10] 부산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분	분류		세부내용	비고
인구구조 특성 조사	인구구조		연령별 성비, 가구구성, 행정구역별 인구수	통계자료/ 행정자료
	경제수준		1인당 지역총소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	
	소수집단 현황		장애인 인구수,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외국인현황, 다문화지원센터 현황,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	
문화다양 성 인식조사	소수 집단	소수집단 접촉 경험	소수집단별 접촉경험 정도	설문조사 온라인조사
		소수집단 인식지표(수용도)	소수집단별 동네이웃 및 가족으로서의 수용도	
		소수집단 인식지표(포용도)	소수집단의 사회적 차별정도 인식	
		소수집단관련 활동경험	다문화, 장애인, 성소수자, 성별 불평등 관련 경험	
	사회 갈등 요소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	각 사회갈등 현상 문항에 대한 인식 정도	
		사회갈등현상 인식지표(수용도)	성별불평등, 세대 간 갈등 수용도	
		활동수준에 따른 연령대 수용도	동호회, 문화센터 프로그램, 공간 및 안부인사 가능한 연령대	
		사회갈등현상 개선 필요도	6개 사회갈등현상 개선 필요도	
	전반적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문화다양성 관련 5개 문항 인식 정도	
	갈등현황		해당 소수자 집단 현황 및 사회갈등 현황	
문화다양 성 관련 여건 조사	인식도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식도	심층인터뷰 6명(장애인 , 인종, 성소수자, 청년)
	정책현황		해당 소수집단 관련 부산시 정책 현황	
	정책 개선방향		지원정책 개선방향	

출처: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2018,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5)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서울연구원, 2018)

① 문화다양성 대상

- 서울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는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을 [표 3-11]과 같이 설정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민족·인종·국가, 장애, 종교·사상, 성·성적지향, 나이(세대), 비주류문화, 지역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함

[표 3-11]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분류 영역
민족·인종·국가
장애
종교·사상
성·성적지향
나이(세대)
비주류문화
지역

출처: 라도삼,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3)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와 실태조사의 시사점

① 문화다양성 대상

- 문화다양성 대상 분류체계는 문체부가 2015년과 2017년 조사에서 설계한 체계를 참고하여 지역별로 재구성함
- 문화다양성 대분류체계 소수자 집단을 기본으로 사회갈등현상, 하위문화, 비주류문화예술, 소수문화 등 지역마다 다르게 구성함
 - 문체부(2017 실태조사), 부산시는 소수자 집단과 사회갈등현상 등 2개로 구분함
 - 문체부(2015 지표조사), 광주시, 인천시는 소수자 집단, 하위문화, 비주류 문화예술 등 3개로 구분함
 - 서울시는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고 7개 영역으로 구분함
- 소수자집단 세부구성은 공통으로 들어간 집단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한 집단이 있음

- 공통 소수자 집단: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 지역별 소수자 집단: 타종교인(문체부) , 이주민의 자녀, 난민, 유학생 (부산)

[표 3-1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의 지표 분류체계

구분		문체부 (2015)	광주시 (2016)	인천시 (2017)	문체부 (2017)	부산시 (2018)	서울시 (2018)
소수집단	민족/ 인종/ 국가	다문화이주민	다문화이주민	다문화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민족·인종· 국가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	
					이주민의 자녀	이주민의 자녀	
					결혼이주민	결혼이주민	
	장애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
하위문화/ 사회갈등 현상	성별	여성	-	여성	-	-	성·성적지향
	성적 지향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종교/ 사상	-	-	-	타종교인	-	
	성별	-	-	-	성별불평등	성별불평등	-
	혼인	-	-	-	독신가구 증가	-	-
	세대	청소년	노인	청소년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나이(세대)
		노인		노인			
	지역	지방문화	지방문화 예술	-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다른 지역 출신과의 갈등	지역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이주민에 의한 갈등	
	소득	-	-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소득차이로 인한 갈등	-
	전통	전통문화	전통문화예술	-	전통문화의 위기	-	-
	예술 취향	-	-	-	주류문화 예술의 독점	-	-
	(비주류) 문화예술/ 소수문화	독립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독립문화	-	-	비주류 문화
		대안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생활문화 전통문화			

② 조사 내용과 방법

- 실태조사 조사 범주는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소수자 대상 활동지표 조사, 정책과 여건조사는 선택적으로 구성함
 - 부산시와 광주시는 소수자집단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여건 조사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문체부: 대국민 인식조사, 소수자 집단 인식조사, 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
 - 광주시: 광주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소수자 집단 전문가인터뷰
 - 부산시: 부산시민 인식조사, 문화다양성 관련 인구현황, 소수자 심층인터뷰를 통한 여건 파악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문체부조사와 다른 지자체 조사 모두 국민 혹은 시민을 문화다양성 수용자로 설정하고 소수자집단, 소수문화, 사회문화갈등 등에 대한 수용도, 포용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음
- 소수집단 인식(활동)조사 방법은 대표집단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면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심층인터뷰 방법으로 진행
 - 문체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각 300명씩 1:1 대면조사로 설문조사 실시
 - 광주시: 정책일반, 다문화이주민, 여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독립문화예술, 전통·지역문화, 대안문화예술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실시
 - 부산시: 장애인, 인종, 성소수자, 청년 등 4개 분야의 지원기관 종사자, 활동가, 연구자 등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안) 설계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안)의 기본방향

- 서울시에 적합한 인식지표는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여 설계해야 함
 - 정부가 수행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세계 비교 및 국내 도시 간 비교 등을 위해 거시적 접근이 필요. 즉 전체 집합으로서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를 설계하므로, 인식조사의 추상 수준이 높고 문화표현을 단순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국민을 수용자로 설정하고, 국민이 소수성을 갖는 소수자집단과 문화현상을 얼마나 수용하는가를 지표화함
 -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단위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에 근거한 실증적 지표가 필요함
- 이에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당사자로 설정하고 시민의 문화표현 자유도와 발현방식에 초점을 두어 지표안을 설계
 - 개개인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과 취향이 있으며 이것이 문화표현으로 표출됨. 이에 문화다양성 정책은 타인과의 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시민 개개인이 문화적 소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에 기인하는 문화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를 측정
-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수용도 고려도 필요
 - 시민을 당사자로 설정하더라도,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
 - 다만 소수자 집단을 개별화하고 각 집단에 대한 수용도를 묻는 방식보다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을 일반시민이 얼마나 수용하고 존중하는가와 관련된 지표가 필요
 - 문화다양성의 대상은 민족·인종·국적, 종교·사상, 신체적 특성(장애), 성별,

성적지향, 세대,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 집단으로 설정

- 이는 2018년 우리연구원에서 수행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연구의 분류체계를 수용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8개 집단 분류안을 제시
- 서울시의 맥락을 잘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체계를 그대로 존중함. 다만, 인식지표 검증 과정에서 용어의 엄밀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수행
- 정부 조사와 비교가능성 고려
 - 서울시의 맥락에 적합한 지표 설계를 우선으로 하되 정부 조사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비교가 가능한 일부 지표를 수용함
 - 이에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도와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관련 지표를 서울시 지표에 포함하여 설계함



[그림 3-1]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체계 비교 (정부 vs 서울시)

2)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설문문항(안) 설계

- 앞에서 상술한 기본방향에 따라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안)의 기본체계를 수용도(존중도), 차별경험, 실천의지, 발현방식, 이해도, 우리사회 의식, 서울시 정책평가 등 7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각 항목에 맞는 설문문항을 개발함
-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선행 인식조사 설문문항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문항을 개발

- 그러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표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문문항을 추가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의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대체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를 사용하거나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의 수용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다음과 같은 국외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3종류를 추가로 검토함
 - 미국 로우어 콜롬비아 대학(Lower Columbia College, 이하 LCC)의 ‘문화다양성 자가평가 설문(Cultural Diversity Self Assessment Survey)’
 - 캐나다 웨스턴 대학 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연구 및 교육센터에서 개발한 ‘문화역량 자가평가 설문(Cultural Competence Self-assessment Checklist)’³⁾
 - 영국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의 V. Dhupa 교수가 개발한 ‘다양성과 문화의 이해 설문(Understanding Diversity & Culture)’⁴⁾
- 검토 후 문화다양성 수용도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1개의 설문문항(안)을 채택하고 테스트 조사 및 신뢰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다양성 수용도 관련 5개 문항을 추가함([표 3-13])

[표 3-13]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설문 문항

구분	문항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선 의지	나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일반화 예시: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이런”, “장애인인데 할 수 있어요?”).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http://rapworkers.com/resources/cultural-competence/>4) <https://www.surveymonkey.co.uk/r/UnderstandingDiversityandCulture>

3_델파이 조사를 통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도출

1) 델파이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와 문항 개발
- 조사 대상: 다문화, 문화사회학, 문화정책, 문화다양성 관련 교수 및 연구자, 지표 전문가 등 총 35명
- 조사 기간
 - 1차 조사: 2020. 2. 28.~3. 12.(14일간)
 - 2차 조사: 2020. 5. 4.~5. 20.(17일간)
- 조사 내용
 - 1차 조사: 연구진이 제안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구성과 설문문항 적절성 평가와 수정·보완 의견 조사
 - 2차 조사: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의 적절성 평가

[표 3-14] 델파이 조사 내용

구분	내용
1차 조사	- 연구진이 제안한 전체 지표구성의 적절성 평가 및 수정·보완 의견 - 지표별 문항 구성의 적절성 평가 및 수정·보완 의견 - 개별 설문 문항의 적절성 평가 및 수정·보완 의견
2차 조사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요 용어 및 문구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다양성 대상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표구성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설문문항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응답자 현황
 - 1차 조사는 전체 35명 중 30명 응답(응답률 85.7%)
 - 2차 조사는 1차 응답자 30명 중 29명 응답(응답률 96.7%)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 문화다양성 범주

- 8개의 문화다양성 범주(민족·인종·국적, 종교·사상, 신체적 특성(장애), 성별, 성적지향, 세대,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외에 소득, 외모, 학력, 혼혈, 난민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대상에 초점을 맞춰 범주를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8개 범주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
- 그러나 제시된 8개 범주의 일부 용어에 대한 수정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에 반영
 - 종교·사상은 사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정치적 견해로 수정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의미가 다르므로 병기 필요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보다 적합한 용어가 있는지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른 용어들을 검토하여 2차 조사에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함

(2) 주요 용어와 표현 수정

- 지표명과 설문내용 중 ‘문화적 차이 집단’과 ‘문화적·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집단)’이란 표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문화적 차이 집단’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색하여 수정 필요, ‘사회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신체적 차이’가 혼용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 필요,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등
 - 대안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소수자 집단’,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 ‘문화적·사회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집단)’ 등이 제안됨
- 또한 설문 문항 중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표현과 지표명 중 ‘문화표현’이라는 명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생각이나 가치관만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확장된 표현이 필요, ‘생각’이나 ‘가치관’의 표현은 ‘문화표현’보다 더 추상적이고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함
- ‘문화표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3) 전체 지표 구성체계와 개별 지표의 적절성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지표(안)을 제시하고 전체 지표 구성체계와 개별 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함([표 3-15])

[표 3-15]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지표(안)

대분류		소분류
I. 수용도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II. 차별 경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1. 개인(나)의 문화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2.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
		3. 차별 경험 시 행동(내가 차별받았을 때, 지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4. 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III. 가치 실천 의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1. 문화다양성 인식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IV.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1. 개인(나)의 문화표현 가능 여부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발현 방식 (표현 여부, 집단적 표현 여부, 표현 장소)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V. 이해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VI. 우리사회의 인식 수준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1.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VII.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 전체적 구성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83.3%로 부적절하다는 평가(6.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옴
 - 지표별 적절성 평가는 7개 지표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수용도, 이해도, 우리사회 의식 수준 평가 지표가 적절하다는 평가가 80% 이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임
 - 반면 차별경험, 발현방식, 서울시 정책평가 지표가 적절하다는 평가는 60%로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표 3-16] 전체 지표 구성 및 각 지표의 적절성(1차 조사 결과)

(단위: %)

지표	적절	보통	부적절
전체 지표 구성	83.3	10.0	6.7
I. 수용도	83.3	10.0	6.7
II. 차별 경험	60.0	26.7	13.3
III. 가치 실천 의지	70.0	13.3	16.7
IV.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60.0	33.3	6.7
V. 이해도	80.0	10.0	10.0
VI.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	80.0	20.0	0.0
VII. 서울시 정책 평가	60.0	33.3	6.7

- 지표구성과 관련된 수정·보완 의견으로는 지표 구성 순서 수정의견(6명)과 지표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에 대한 수정의견(5명)이 있었음
 - 대분류 구성 순서 수정과 관련해서는 ‘V. 이해도’ 지표를 맨 앞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적 차원의 수준’과 ‘사회적 차원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배치하자는 의견 등이 제안됨
 - 지표 항목 중복과 관련해서는 ‘VI.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지표가 ‘I. 수용도’와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지표의 세부항목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나옴
- 지표 세부내용과 관련된 수정·보완 의견으로는 지표명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음
 - ‘VI.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 지표는 ‘우리사회’ 범주를 서울시로 볼 것

인지 한국사회로 볼 것인지 범주를 명확하게 해야 함(3명)

- ‘Ⅶ. 서울시 정책 평가’ 지표는 응답자가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설명을 해야 함(3명)

[표 3-17] 전체 지표구성 관련 수정 의견(1차 조사 결과)

구분	수정 의견	응답자 수
지표 구성 관련	‘Ⅴ. 이해도’ 지표 를 제일 앞으로 배치	6명
	‘Ⅰ. 수용도’ 지표가 다른 지표와 중복되고 있음	5명
	‘개인적 차원’ 수준과 ‘사회적 차원’ 수준으로 재분류	2명
지표 세부내용	‘Ⅵ. 우리사회의 의식 수준’ 지표에서 ‘우리사회’ 범주 명확화	3명
	‘Ⅶ. 서울시 정책 평가’ 지표는 설문에서 구체적 설명 필요	3명

(4) ‘사회적 거리감’ 지표 추가 의견

-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실질적 존중도나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설문문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문화다양성 집단에 대한 문화표현 존중도 항목은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긍정적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 존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문항 추가가 필요
 - 이에 각 대상에 대해 ‘시민, 동네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보가더스(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측정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됨

3) 델파이 2차 조사 결과

(1) 문화다양성 범주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표 3-18]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고 적절성을 평가함

[표 3-18] 문화다양성 범주의 용어에 대한 수정(안)

문화다양성 범주	1차 조사 결과 및 자문위원 의견	수정(안)
1. 민족·인종·국적		1. 민족·인종·국적
2. 종교·사상	사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화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견해'로 수정	2. 종교·정치적 견해
3. 신체적 특성(장애)	정신적 특성을 포함하여 장애로 수정	3. 장애
4. 성별		4. 성별
5. 성적지향	성적지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성적체성을 같이 표기	5. 성적지향·성정체성
6. 세대		6. 세대
7. 출신지역		7. 출신 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	8. 미정 (2차 조사 에서 확인)

- '종교·사상'은 '종교·정치적 견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83.7%이며, '신체적 특성(장애)'는 '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86.2%로 수정(안)의 적절성이 높음

[표 3-19] 문화다양성 범주 용어 수정(안)의 적절성 평가

(단위: %)

수정 내용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종교·사상 → 종교·정치적 견해	20.7	69.0	10.3	0.0
신체적 특성(장애) → 장애	10.3	75.9	13.8	0.0

- 다만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용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어려움
 - '소수성을 갖는 문화 취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로 가장 많았지만,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27.6%), 비주류 예술(20.7%) 등의 응답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다른 용어들도 현재 용어의 한계를 크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표 3-20]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수정(안)에 대한 동의도

구분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27.6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37.9
비주류 예술(독립예술, 인디예술, 실험예술 등)	20.7
그 외 다른 의견	13.8
합계	100.0

(2) 주요 용어와 표현 수정

- 주요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수정(안)을 [표 3-21]과 같이 제시하고 적절성을 평가
 - '문화적 차이 집단'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으로,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표현은 '문화표현'으로 수정
 - 설명과 예시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경

[표 3-21] 문화적 배경과 문화표현 수정(안)

문화적 배경
모든 개인과 집단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인종국적, 종교나 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 지역, 취향 등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룹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표현
이 설문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말씨나 행동, 생활방식, 표현 등을 문화표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반인류적 가치 등 인류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표현은 제외됩니다. 문화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 이슬람 국가에서 온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학교에 가는 것 - 채식주의자가 식사 시간에 채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 - 퀴어 문화축제(성 소수자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 - 교회 다니는 친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 손목에 좋아하는 글귀를 문신으로 새기는 것 -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불을 비비며 인사하는 것 - 부산에서 온 친구가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 -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문화표현'이란 용어와 설명에 모두 90% 내외로 적절하다고 평가

[표 3-22] 단어 및 문구 수정(안)과 설명의 적절성

구분		적절	부적절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문화적 차이집단'→'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으로 수정	93.1	6.9
	문화적 배경 설명	89.7	10.3
문화표현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문화표현'으로 수정	89.7	10.3
	문화표현 설명	89.7	10.3

(3) 전체 지표 구성체계와 개별 지표의 적절성

- 전체 지표체계를 대분류와 중분류, 세부문항으로 세분하고 개별지표를 추가 및 변경한 수정(안)을 [그림 3-2]와 같이 제시하고 적절성을 평가함
 - 대분류 체계를 '개인적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지역사회(서울시)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로 수정
 - 개인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인지(지식), 관점과 태도, 존중도(수용도), 차별경험, 문화표현 경험 및 표현 시 저해 요인으로 구성
 - 지역사회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수용도, 존중도, 영향력으로 구성. '우리사회'는 지역사회로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시'로 수정

대분류	소분류	세부 문항	중분류	대분류
I.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1. 문화다양성이란 단어의 경험 여부와 대상 인식 정도	인지도(지식)	개인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2.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존중도	관점과 태도	
	1. 개인(나)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3. 소수문화에 대한 관점과 차별극복을 위한 태도	존중도	
	2. 내가 문화적 표현을 할 때 차별 받은 경험	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실질적 존중도		
II.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3. 차별 경험 시 행동(내가 차별받았을 때, 지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5. 내가 문화적 표현을 할 때 차별 받은 경험과 차별받았을 때 행동	차별받은 경험	차별 경험
	4. 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6. 친구가 문화적 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 목격시 행동	
	1. 문화다양성 인식	7. 타인이 문화적 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한 경험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8. 내가 타인의 문화적 표현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 경험과 불편함을 느꼈을 때 한 행동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1. 개인(나)의 문화적 표현 기능 여부	9. 개인의 문화적 표현 여부와 방식	문화적 표현 경험 및 표현시 지해요인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발전 양식 (표현 여부, 집단적 표현 여부, 표현 장소)	10.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11. 개인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존중도		
IV.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12. 문화적 표현 시 어려움 점	존중도	서울시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1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존중도		
V.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선택)	14.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1.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5. 문화다양성 가치(핵심가치)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력	
V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도	정책 필요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의 중요도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선택)	17. 서울시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정책 중요도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파악(선택)	18. 문화다양성 사업별 필요도 및 우선순위	사업별 필요도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그림 3-2]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지표체계 수정(안)

- 수정된 전체 지표 구성 체계에 대해 93.1%가 적절하다고 평가
 - 1차 조사 결과보다(83.3%) 적절성이 높아짐
- 세부 지표 체계도 80% 이상 적절하다고 평가

[표 3-23]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지표체계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단위: %)

지표	매우 적절	적절	부적절	매우 부적절
전체구성	20.7	72.4	6.9	0.0
I.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27.6	55.2	13.8	3.4
II.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13.8	75.9	10.3	0.0
I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 및 중요도	13.8	79.3	6.9	0.0

(4) '사회적 거리감' 지표 추가 의견

- 사회적 거리감 지표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0.7%로 필요 없다는 의견 39.3%보다 약 20%p 높음

[표 3-24] 사회적 거리감 척도 추가 필요 여부

구분	%
추가 필요	60.7
추가 필요 없음	39.3
합계	100.0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최종(안)

-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거쳐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최종(안)을 도출하였음
 -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
 - 개인적 차원은 인지도, 수용도, 차별경험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로 구성
 - 인지도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 문화다양성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으로 설정
 - 수용도는 인지적 수용도(다른 문화집단을 수용하는 태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존중도)와 실제 수용도(사회적 거리감)를 구분함

- 차별경험도는 내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와 대응도, 다른 사람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로 구성함
-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는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로 구성함
- 사회적 차원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와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로 구성
 -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구현도로 구성함
 -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로 구성함

[표 3-25]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최종안)

구분		세부내용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04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 결과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2_서울시 소수자 대상 심층인터뷰

3_소결

04.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 결과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파악
- 향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표본설계

- 조사 대상: 서울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 남녀
- 표본 규모: 총 1,000표본
-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 표본추출 방법: 성별, 연령,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
- 조사 기간: 2020년 6월 23일 ~ 6월 30일(1주일간)

(3) 조사내용

- 체계적이고 엄밀한 조사문항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2회), 전문가 자문회의, 서면조사 등을 걸쳐 문항을 설계함
- 조사내용은 크게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으로 구분됨
 - 개인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도 및 관점과

태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도, 차별 경험,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및 표현 시 어려운 점으로 구성함

-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도로 구성함

[표 4-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개인적 차원	인지도	1. 문화다양성 인지도
		2.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2)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직장 동료로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동호회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 참여 동의도
	차별 경험도	5.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온라인)
		6.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오프라인)
		7. 가족 혹은 친구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8. 잘 모르는 타인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9.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10.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11. 비주류 문화표현 표현도
		12.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13.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서울시 차원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14.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15.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16.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17.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18.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필요도

(4) 분석방법

- 분석 절차: 응답 완료된 설문에 대한 결과 확인 및 결측 자료 확인 후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함
- 이후 검증절차(문항 간 로직 확인 등)를 거쳐 코딩작업을 실시하고 최종 통계분석을 실시함

- 분석 도구: SPSS 통계패키지 및 MS-EXCEL을 이용한 통계분석
- 분석 내용: 응답자 특성 및 문항별 기초 통계분석 실시 후, 척도 문항은 5점 만점으로 환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함. 또한 주요 응답자 특성에 따른 문항별 교차분석을 실시

(5) 응답자 특성

-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4-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	%
전체		(1,000)	100.0
성별	여성	(510)	51.0
	남성	(490)	49.0
연령별	20대	(214)	21.4
	30대	(203)	20.3
	40대	(211)	21.1
	50대	(208)	20.8
	60대 이상	(164)	16.4
권역별	도심권	(51)	5.1
	동북권	(308)	30.8
	서북권	(120)	12.0
	서남권	(306)	30.6
	동남권	(215)	21.5
직업	블루칼라	(163)	16.3
	화이트칼라	(593)	59.3
	주부	(120)	12.0
	학생	(49)	4.9
	무직/기타	(75)	7.5
학력	중졸 이하	(10)	1.0
	고졸	(119)	11.9
	대졸(재학포함)	(734)	73.4
	대학원(재학) 이상	(137)	13.7
종교	불교	(120)	12.0
	기독교	(184)	18.4
	천주교	(128)	12.8
	기타	(22)	2.2
	무교	(546)	54.6
소득	200만 원 미만	(81)	8.1
	200~399만 원	(292)	29.2
	400~599만 원	(279)	27.9
	600만 원 이상	(348)	34.8

[표 4-2(계속)]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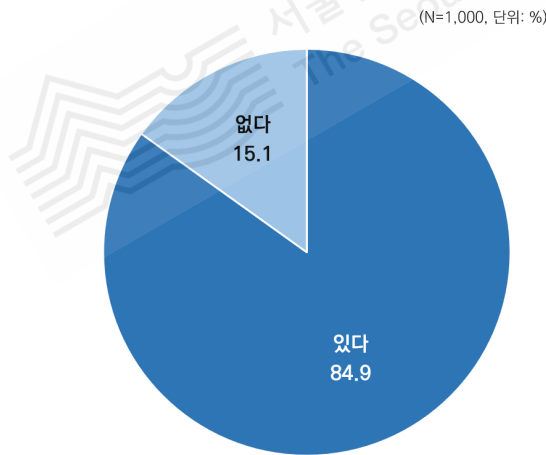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
전체		(1,000)	100.0
가구원수	1인	(139)	13.9
	2인	(154)	15.4
	3인	(310)	31.0
	4인 이상	(397)	39.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유무	있음	(328)	32.8
	없음	(672)	67.2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	그렇다	(94)	9.4
	아니다	(906)	90.6

2) 주요 조사 결과

(1) 개인적 차원: 문화다양성 인지도

①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84.9%, ‘없다’ 15.1%로 나타남



[그림 4-1]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들어본 경험도 높게 나타났고,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소수자 지인이 있는 집단에서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접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68.2%)보다 ‘대학원(재학) 이상’(94.2%)에서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접한 경험이 26%p 높게 조사됨
-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72.8%)보다 ‘600만 원 이상’(89.4%)에서 16.6%p 높게 확인됨
-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거나 사람은 주변에 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은 90% 이상이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80% 내외만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4-3] 응답자 특성별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000)	84.9	15.1
학력	고졸 이하	(129)	68.2	31.8
	대졸(재학포함)	(734)	86.1	13.9
	대학원(재학) 이상	(137)	94.2	5.8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81)	72.8	27.2
	200~399만 원	(292)	81.2	18.8
	400~599만 원	(279)	86.7	13.3
	600만 원 이상	(348)	89.4	10.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유무 ¹⁾	있음	(328)	95.1	4.9
	없음	(672)	79.9	20.1
소수자 지인 여부	있음	(315)	91.7	8.3
	없음	(685)	81.8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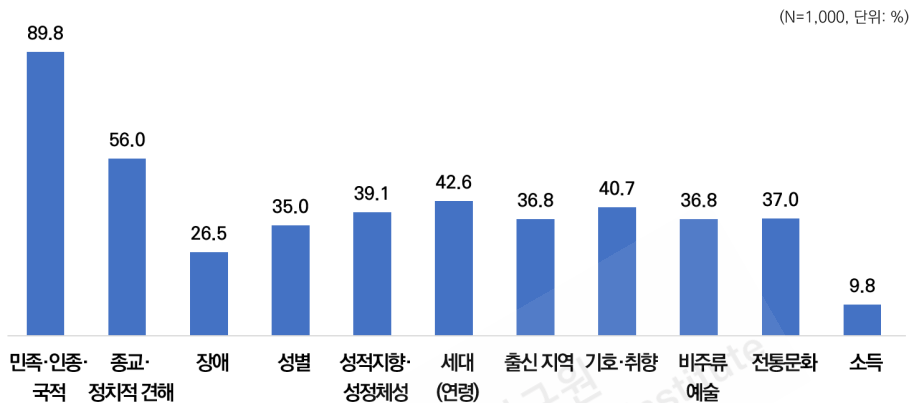
주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경험은 다문화, 장애인, 성별 불평등,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교육, 캠페인, 자원봉사, 축제 및 행사참여를 의미.

②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

-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11개의 대상을 제시하고 문화다양성이 어떤 항목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함. 그 결과, ‘민족·인종·국적’이 89.8%로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그다음은 ‘종교·정치적 견해’(56.0%), ‘세대(연령)’(42.6%), ‘기호·취향’(40.7%) 등의 순이었음
- 성적지향·성정체성, 전통문화, 출신지역, 비주류 예술, 성별, 장애, 소득은 40% 미만으로 응답

- 특히 장애를 문화다양성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으며, 소득(9.8%)은 문화다양성 대상이나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시민의 90%는 '문화다양성'을 민족·인종·국적 등의 차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등 개인의 정체성의 차이를 문화다양성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2] '문화다양성'과 연관성이 있는 대상

- 위 두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 인지도는 높지만, 문화다양성 개념을 '민족·인종·국적'에만 국한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국민 전체적으로 문화다양성의 본래 의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조사 결과 48.6%만이 문화다양성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은 48.1%가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표 4-4] 문화다양성 개념과 의미 인지도

		사례 수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계
전체		(2100)	48.6	40.9	10.5	100.0
거주 지역별	서울	(418)	48.1	40.2	11.7	100.0
	경기/인천	(644)	51.4	39.0	9.6	100.0
	부산/울산/경남	(325)	43.1	44.9	12.0	100.0
	대구/경북	(207)	47.3	44.0	8.7	100.0
	광주/전북/전남	(201)	52.7	35.8	11.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47.0	42.0	11.0	100.0
	강원/제주	(86)	48.8	45.3	5.8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219.

(2) 개인적 차원: 문화다양성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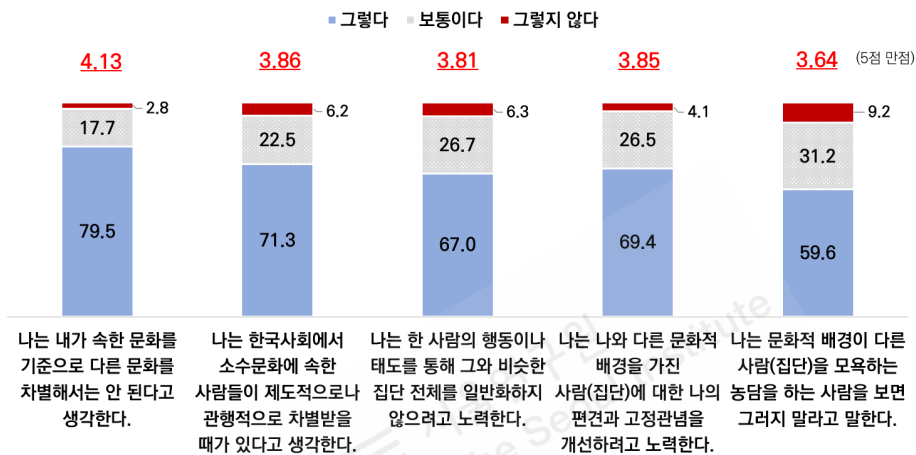
① 문화다양성 수용도(생각과 태도)

- 문화다양성에 관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나는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음
 - 그다음은 ‘나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3.86점), ‘나는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3.85점), ‘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그와 비슷한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3.81점) 순이었음
 -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는 3.64점으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타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응답은 다소 낮게 확인됨
- 긍정 응답률을 살펴보면 서울시민의 약 70%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평가할 때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 단 다른 사람이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태도에 제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 60%만 그렇게 행동한다고 응답
 - 서울시민의 약 70%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평가

할 때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79.5%), 소수문화가 제도적·관행적으로 차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71.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 노력하고(67.0%),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일반화하지 않으려 노력한다(67.0%)고 있다고 응답

(N=1,000, 단위: %)



[그림 4-3] '문화다양성'에 관한 생각과 태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포용적인 생각과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응답자 특성별 ‘문화다양성’에 관한 생각과 태도

(N=1,000, 단위=점(5점 만점))

구분		사례 수	문항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4.13	3.86	3.81	3.85	3.64
학력 (*:①,②,⑤)	고졸 이하	(129)	3.89*	3.70*	3.74	3.72	3.50*
	대졸(재학포함)	(734)	4.14*	3.86*	3.79	3.84	3.66*
	대학원(재학) 이상	(137)	4.32*	4.01*	3.95	4.01	3.66*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81)	3.93*	3.77*	3.67*	3.83*	3.43*
	200~399만 원	(292)	4.03*	3.79*	3.73*	3.69*	3.55*
	400~599만 원	(279)	4.15*	3.80*	3.79*	3.80*	3.64*
	600만 원 이상	(348)	4.25*	3.97*	3.92*	3.82*	3.7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유무 (*:③,④,⑤)	있음	(328)	4.15	3.90	3.89*	3.94*	3.78*
	없음	(672)	4.12	3.84	3.77*	3.78*	3.58*
문화다양성이 란 말을 들어본 경험*	있음	(849)	4.19*	3.90*	3.86*	3.90*	3.71*
	없음	(151)	3.81*	3.62*	3.51*	3.53*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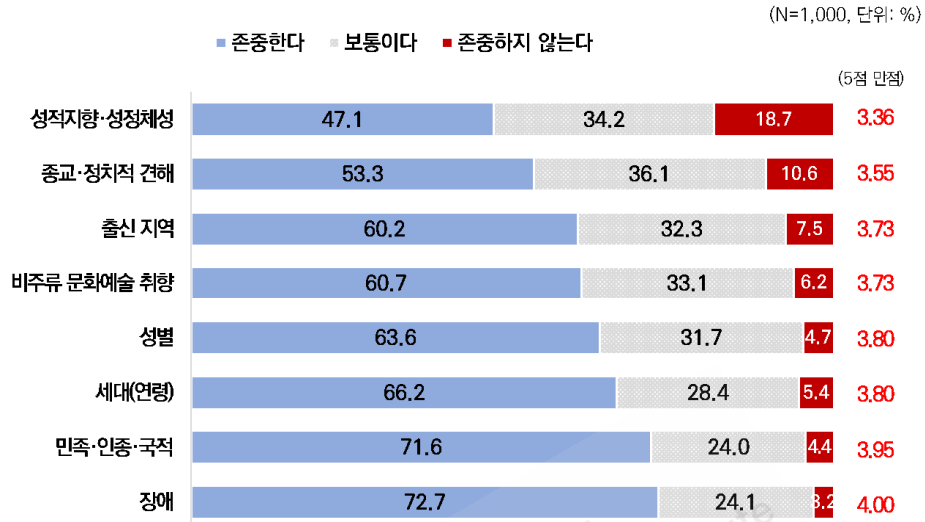
주: *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항목을 의미

②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존중도 조사 결과, 시민이 가장 존중하는 집단은 ‘장애’(4.00점)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민족·인종·국적’(3.95점), ‘성별’, ‘세대(연령)’(각각 3.80점) 등의 순임
- 가장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적 배경은 ‘성적지향·성정체성(3.36점)’으로 존중한다는 응답이 4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그다음은 ‘종교·정치적 견해’(3.55점)로, 존중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약간 넘는 53.3%에 불과함
 - ‘성적지향·성정체성’은 서울서베이 등 타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포용도를 보임⁵⁾

5) 2019년 기준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중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종교·정치적 견해’ 존중도가 낮은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종교 및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갈등을 자주 접하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그림 4-4]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문화표현에 대한 존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 응답자 특성별 문화표현 존중도

(N=1,000, 단위=점(5점 만점))

구분	사례 수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 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전체	(1000)	3.95	3.55	4.00	3.80	3.36	3.80	3.73	3.7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유무*	있음 (328)	3.99	3.65	4.13	3.91	3.61	3.90	3.84	3.88
	없음 (672)	3.69	3.50	3.94	3.75	3.24	3.75	3.68	3.66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경험*	있음 (849)	4.03	3.60	4.06	3.84	3.38	3.83	3.79	3.77
	없음 (151)	3.90	3.25	3.69	3.56	3.22	3.58	3.44	3.49

주: *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항목을 의미

- ‘성적지향·성정체성’의 문화표현 존중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보임
- 전체 평균(47.1%)과 비교해 보면, 20대는 존중한다는 응답이 58.4%로 11.3%p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36.6%로 전체 평균보다 10.5%p 낮게 확인됨

[표 4-7] 연령별 ‘성적지향·성정체성’의 문화표현 존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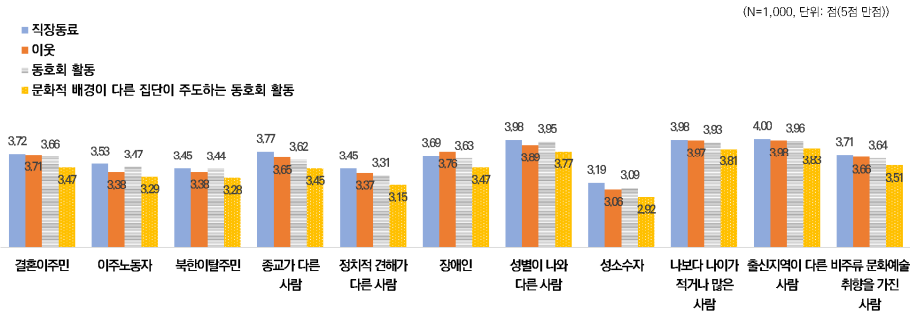
(N=1,000, 단위=점(5점 만점))

구분		사례 수	%			5점 만점
			존중한다	보통이다	존중하지 않는다	
전체		(1000)	47.1	34.2	18.7	3.36
연령*	20대	(214)	58.4	22.9	18.7	3.50
	30대	(203)	47.8	33.0	19.2	3.39
	40대	(211)	45.0	35.1	19.9	3.29
	50대	(208)	45.2	38.0	16.8	3.38
	60대 이상	(164)	36.6	44.5	18.9	3.20

주: *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항목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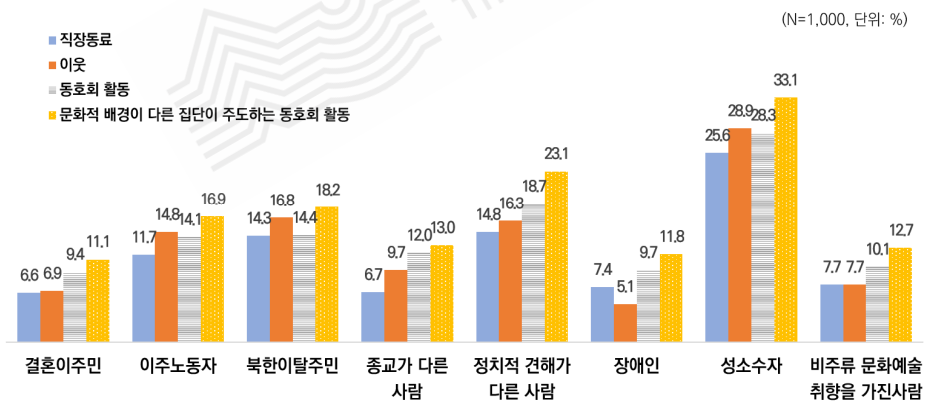
③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11개의 집단에 대해
 - ①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 ② 이웃이 되는 것, ③ 동호회(취미모임)를 함께 하는 것, ④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를 각각 측정함
- 직장동료, 이웃, 동호회 활동,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 활동 4개 항목 모두에서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이웃이나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을 동료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미하는 ‘비동의’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공적인 직장동료 관계보다는 사적인 이웃관계를 맺는 것을 더 꺼려하고, 동호회 활동 시 주도권을 문화적 배경을 다른 집단이 가지고 있을 때 참여를 더 꺼리는 경향을 보임
 - 장애를 제외하면 ‘직장동료’보다 ‘이웃’이 ‘비동의’ 응답률이 높았고,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는 것’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에 함께하는 것’이 ‘비동의’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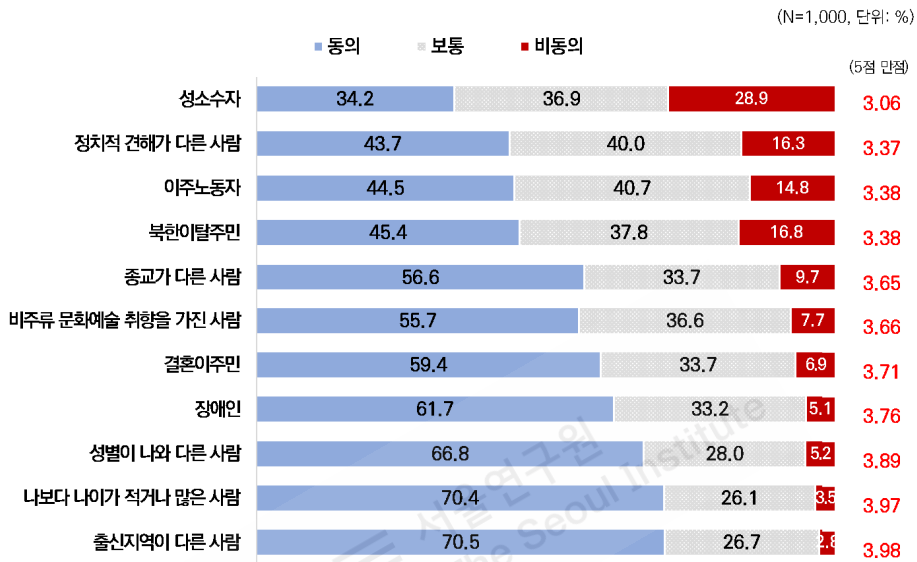
[그림 4-6]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비동의’ 응답 비율

주: 문화적 배경 중 다른 항목에 비해 동의율이 높은 성별, 나이, 출신지역 제외

-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성소수자’가 3.06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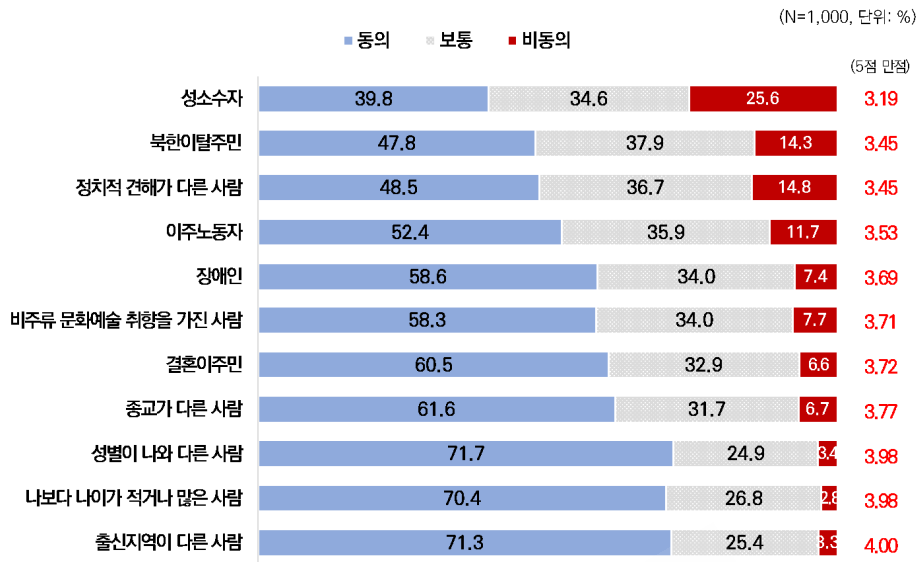
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3.37점),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각각 3.38점) 순으로 조사됨

- '성소수자'와 이웃이 되는 것이 싫다는 사람이 약 30%에 이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16.3%), 북한이탈주민(16.8%), 이주노동자(14.8%)는 15% 내외로 부정적 의사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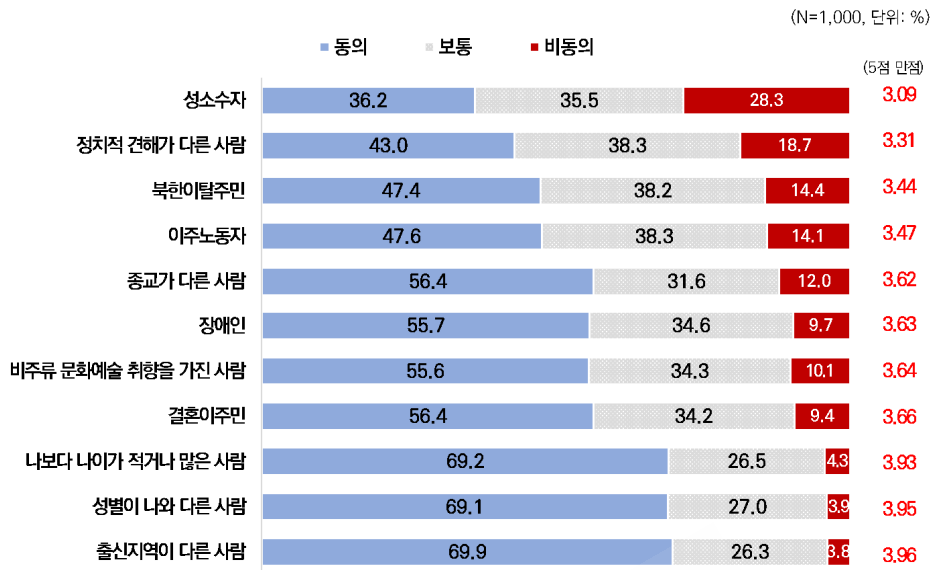
[그림 4-7]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도

- 내가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화적 배경은 '성소수자' 집단으로, 동의도가 3.19점으로 나타남. 그다음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북한이탈주민'(각각 3.45점), 이주노동자(3.53점) 순으로 동의도가 낮게 조사됨
- '비동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25.6%로 4명 중 1명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14.8%), 북한이탈주민(14.3%), 이주노동자(11.7%)에 대해서는 모두 10% 이상이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을 반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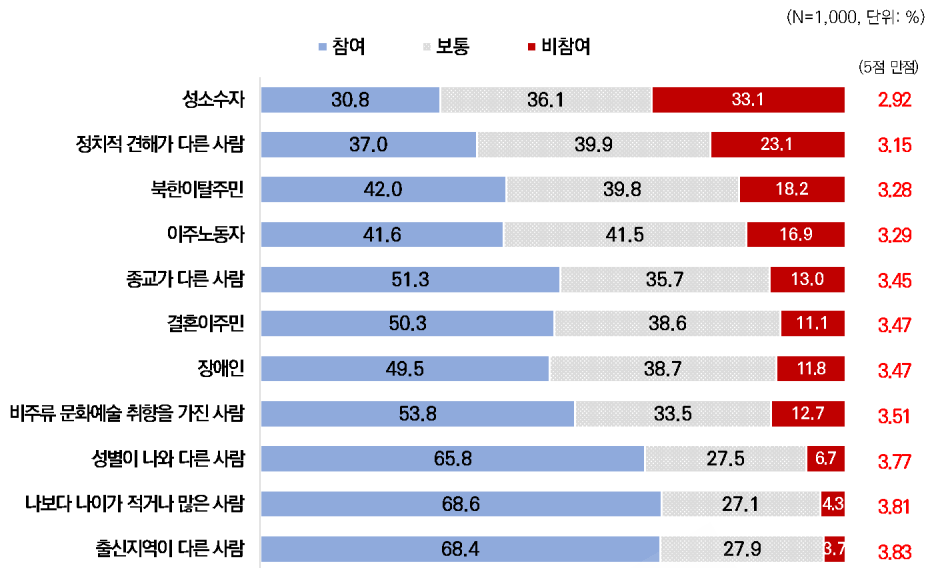
[그림 4-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직장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 내가 동호회(취미활동)를 함께 하기 어려운 집단 역시 ‘성소수자’로, 동호회활동 참여에 대한 동의도가 3.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다음으로 동의도가 낮은 집단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3.31점) ‘북한이탈주민’(3.44점), 이주노동자(3.47점)순임
- ‘비동의’ 응답 비율을 비교해보면 ‘성소수자’가 28.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18.7%), 북한이탈주민(14.4%), 이주노동자(14.1%) 순이었음



[그림 4-9]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동호회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에 참여할 의향을 물었을 때, ‘성소수자’가 주도하는 동호회 참여의사가 2.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3.15점) ‘북한이탈주민’(3.28점), 이주노동자(3.29점) 순으로 조사됨
- ‘비동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성소수자’가 3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23.1%), 북한이탈주민(18.2%), 이주노동자(16.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에 참여할 의향

④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존중도와 사회적 거리감 간 격차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문화 표현의 존중도’와 ‘사회적 거리감’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존중도와 거리감 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체적으로 높은 데 비해, 이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예를 들어, 민족·인종·국적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해 71.6%가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을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47.8%만이 긍정응답을 하였음. 장애 역시 문화표현에 대해서는 72.7%가 존중한다고 하였으나 직장동료로는 58.6%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서울시민이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관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소수자 집단과 직장동료, 이웃 등으로 실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4-8]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존중도와 사회적 거리감 비교

(N=1,000, 단위=%, %p)

문화표현 존중도			사회적 거리감(직장동료)			긍정 응답률 차이 (존중도-사회적 거리감)
구분	존중한다	존중하지 않는다	구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민종·인종·국적	71.6	4.4	결혼이주민	60.5	6.6	11.1
			이주노동자	52.4	11.7	19.2
			북한이탈주민	47.8	14.3	23.8
종교·정치적 견해	53.3	10.6	종교가 다른 사람	61.6	6.7	-8.3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48.5	14.8	4.8
장애	72.7	3.2	장애인	58.6	7.4	14.1
성별	63.6	4.7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71.7	3.4	-8.1
성적지향· 성정체성	47.1	18.7	성소수자	39.8	25.6	7.3
세대(연령)	66.2	5.4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70.4	2.8	-4.2
출신지역	60.2	7.5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71.3	3.3	-11.1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60.7	6.2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58.3	7.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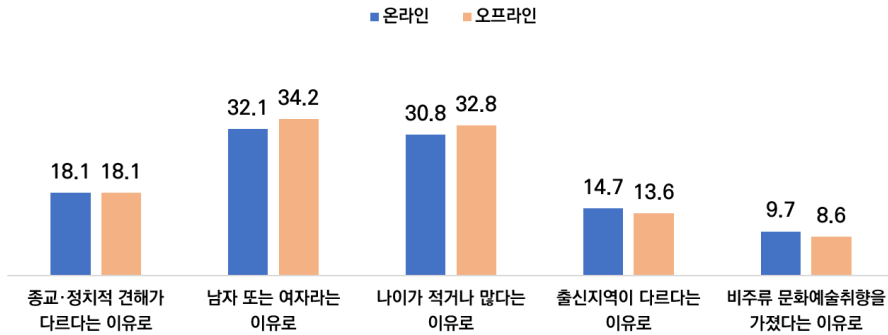
(3) 개인적 차원: 차별 경험도

①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은 경험⁶⁾

-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의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차별 경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6) 본래 조사의 의도는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나이,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도를 파악하는 것임.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민족·인종·국적, 장애,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소수자 대상으로 별도의 표본설계를 수행하지 못하여 유의미한 수가 표집되지 못하였음. 이에 해당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N=1,000, 단위: %)



[그림 4-11] 최근 3년간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은 여성이 47.1%로 남성(20.8%)에 비해 26.3%p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40% 이상이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
-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13.1%p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42.5%로 차별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9] 최근 3년간 일상생활(오프라인)에서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N=1,000, 단위=%)

구분		사례 수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체		(1000)	18.1	34.2	32.8	13.6	8.6
성별	여성	(510)	19.0	47.1	39.2	13.9	8.8
	남성	(490)	17.1	20.8	26.1	13.3	8.4
연령	20대	(214)	16.8	48.6	42.5	15.0	10.3
	30대	(203)	19.2	40.4	36.0	16.3	11.8
	40대	(211)	23.2	36.0	35.5	16.1	8.5
	50대	(208)	14.9	20.2	25.5	8.2	5.3
	60대 이상	(164)	15.9	23.2	22.0	12.2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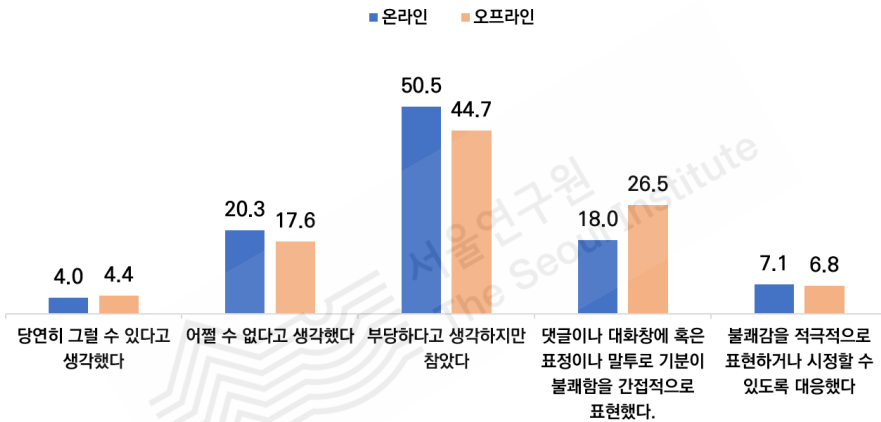
②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질문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부당하다고 생

각하지만 참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았다'가 절반 이상(5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20.3%), '댓글이나 대화창에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18.0%) 순으로 나타남
- 오프라인에서 차별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았다'가 4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26.5%),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17.6%) 순으로 나타남

(N=477(온라인), 499(오프라인), 단위: %)



[그림 4-12]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한 34명에게 어떤 대응을 했는지 재질문한 결과,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 70.6%, 85.3%로 가장 높았음
- 온라인은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렸다'가 35.3%로 두 번째로 높았고, '오프라인은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26.5%로 높게 나타남

[표 4-10]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 대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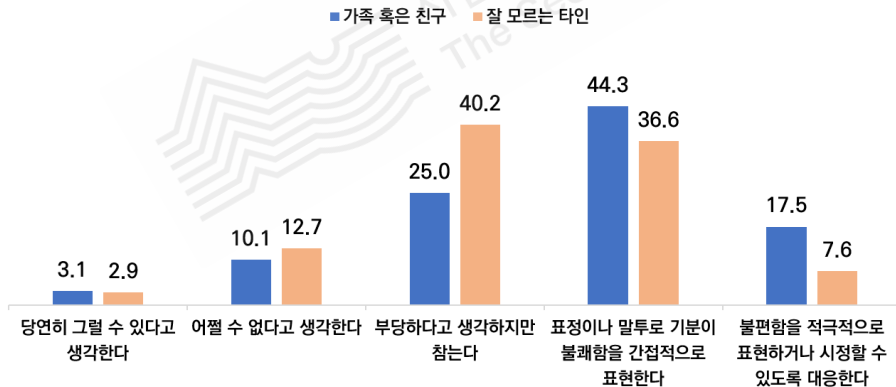
(N=34, 복수응답)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	빈도	%	빈도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70.6	24	85.3	29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14.7	5	26.5	9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했다	14.7	5	2.9	1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렸다	35.3	12	14.7	5

③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 다른 사람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 혹은 친구에 대해서는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가 44.3%로 가장 높았고, 잘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는다’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가족과 친구가 차별받을 때는 내가 차별받을 때보다 훨씬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N=1,000, 단위: %)



[그림 4-13]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의 대응

-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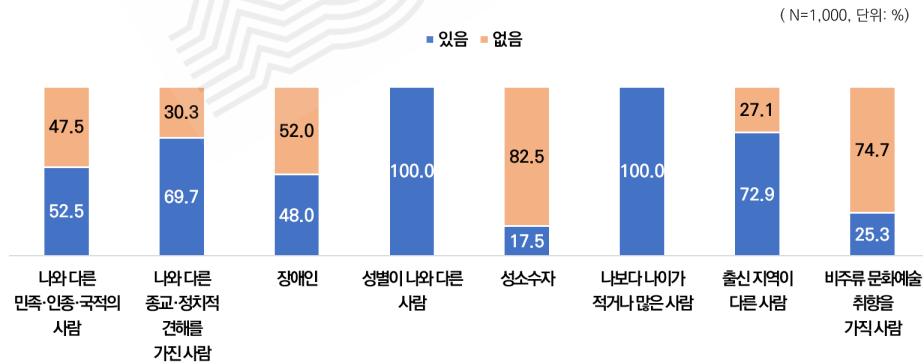
[표 4-11]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 대응 방법

(복수응답)

구분	가족 혹은 친구 (N=175)		잘 모르는 타인 (N=76)	
	%	빈도	%	빈도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82.9	145	73.7	56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36.9	63	32.9	24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하다	41.7	73	34.2	11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린다	26.9	47	26.3	0
기타	1.1	2	0	0

④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 최근 3년간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을 접한 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나와 다른 성별, 나이를 제외하면,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이 7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69.7%로 높았음
- ‘성소수자’를 접한 경험이 17.5%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이 25.3%로 낮게 조사됨
-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과 ‘장애인’을 접한 경험은 50% 내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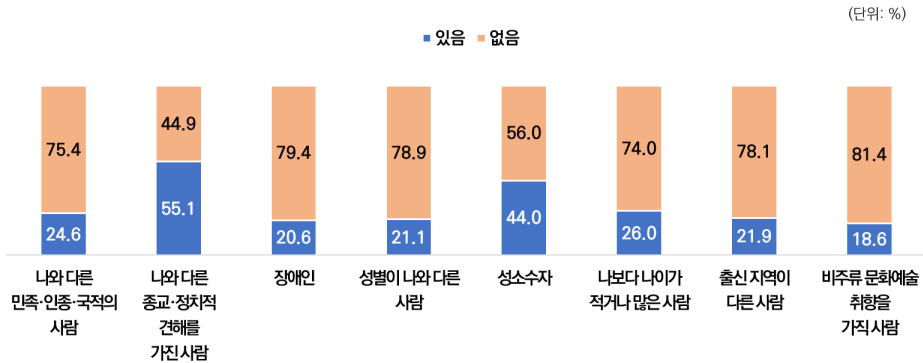


[그림 4-14] 최근 3년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 거부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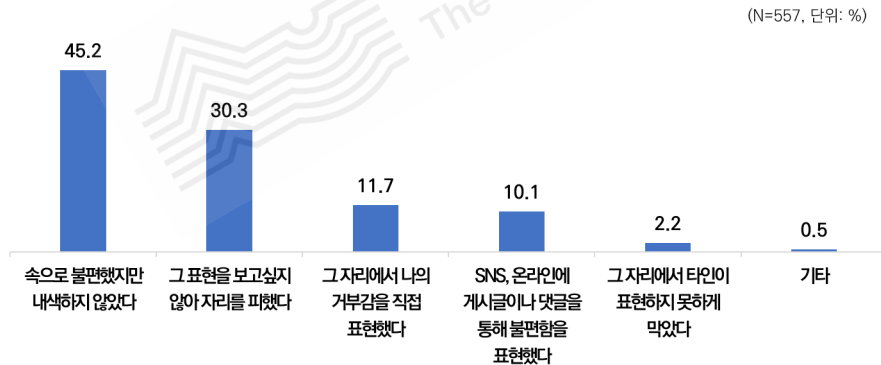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은 ‘성소수자’(44%),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26%),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24.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5] 타인의 문화표현에 거부감을 느낀 경험

- 타인의 문화표현에 거부감이 들었을 때의 행동은 ‘속으로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가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 표현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가 30.3%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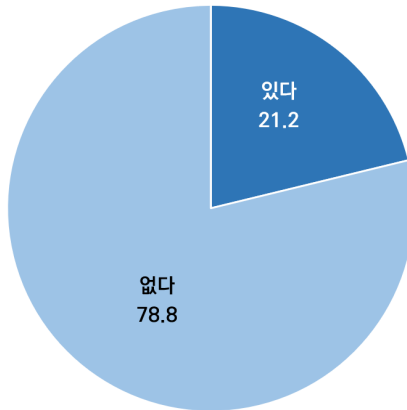
[그림 4-16] 타인이 문화표현에 거부감이 들었을 때 행동

(4) 개인적 차원: 비주류 문화 표현 보유도

①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 한국사회에서 주류로 여겨지지 않는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가 21.2%로 나타남

(N=1,000, 단위: %)



[그림 4-17]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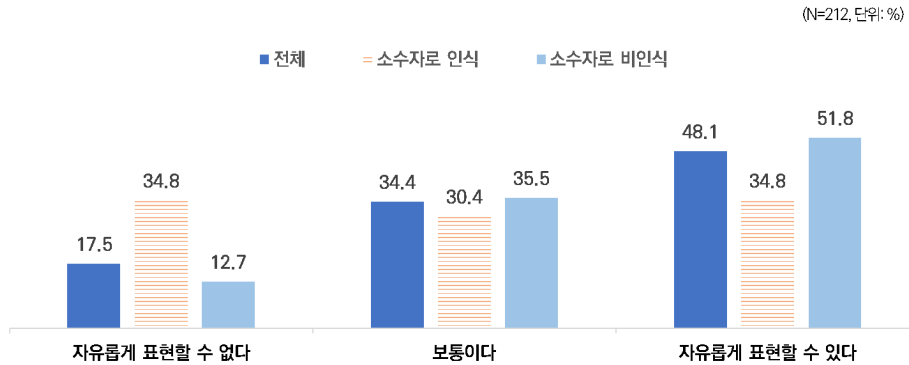
- 자신만의 비주류 문화표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비주류 문화표현이 있는 사람 중 21.7%가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인식한 반면, 비주류 문화표현이 없는 사람은 6.1%만이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

[표 4-12] 소수자 인식과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구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여부					
		있다		없다		합계	
		%	빈도	%	빈도	%	빈도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	그렇다	21.7	46	6.1	48	9.4	94
	아니다	78.3	166	93.9	740	90.6	906
	합계	100	212	100	788	100	1,000

- 자신만의 비주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절반가량은 자신만의 비주류 문화를 ‘(조금 또는 매우)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48.1%)고 응답하였으며, 17.5%는 ‘(전혀 또는 거의)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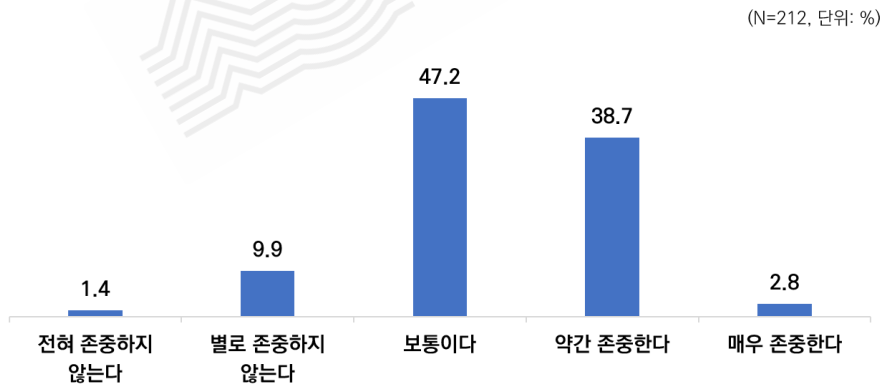
- 자신을 소수자라고 인식한 경우는 비주류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34.8%로, 자신을 소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2.7배 높게 나타남



[그림 4-18] 비주류 문화의 표현도

②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 자신만의 비주류 문화 표현을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가 47.2%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약간 또는 매우' 존중한다'가 41.5%, '존중하지 않는다'가 1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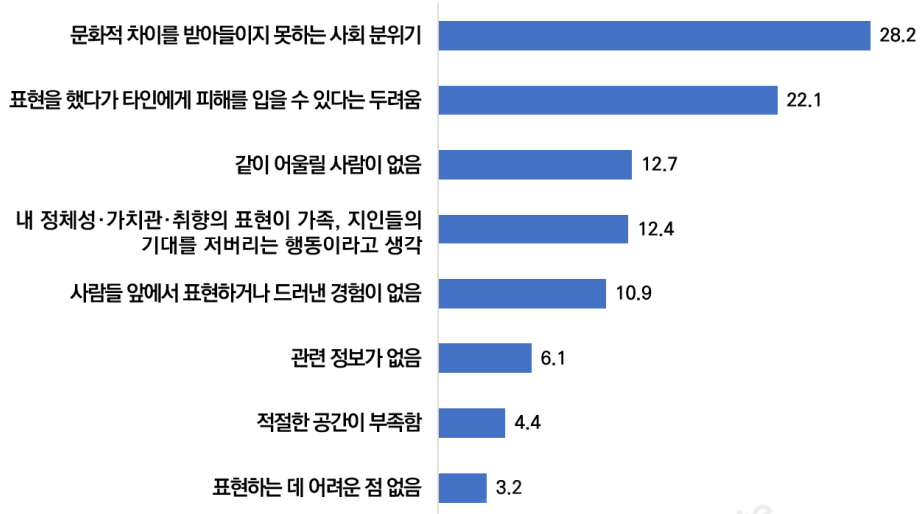
[그림 4-19]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③ 비주류 문화표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비주류 문화표현이 어려운 요인 1위는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분위기’(28.2%), 2위는 ‘표현을 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22.1%)으로 확인됨

(N=21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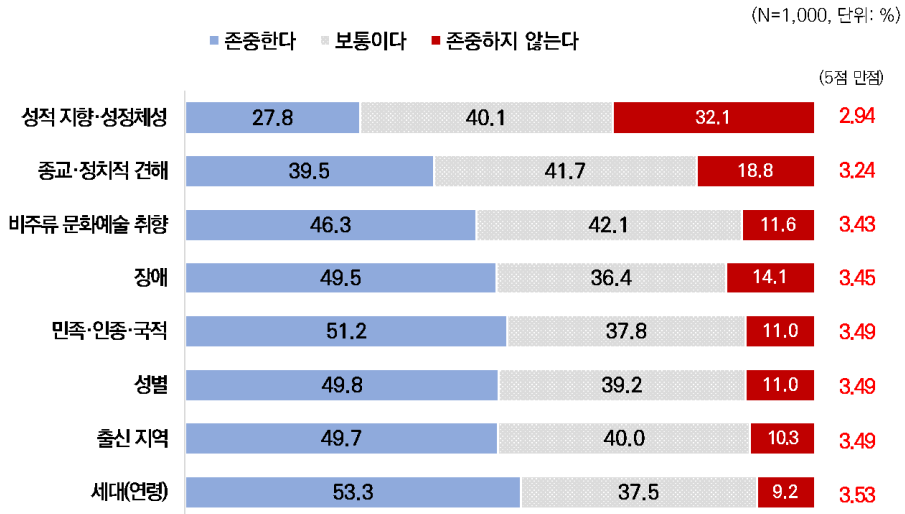


[그림 4-20] 비주류 문화를 표현하는 데 어려운 점(1순위+2순위)

(5)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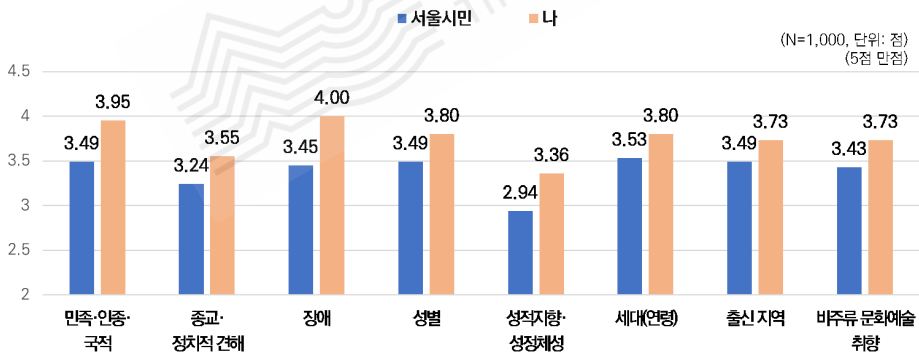
①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 서울시민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세대(연령)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민족·인종·국적’, ‘장애’, ‘출신지역’에 대한 존중도가 모두 3.49점으로 높게 평가됨
- 서울시민의 존중도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문화적 배경은 ‘성적지향·성 정체성(2.94점)’이고 그다음은 종교·정치적 견해(3.24점)임



[그림 4-21]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와 ‘서울시민의 존중도’를 비교해 보면, 응답자들이 전체적으로 ‘나의 존중도’가 ‘서울시민의 존중도’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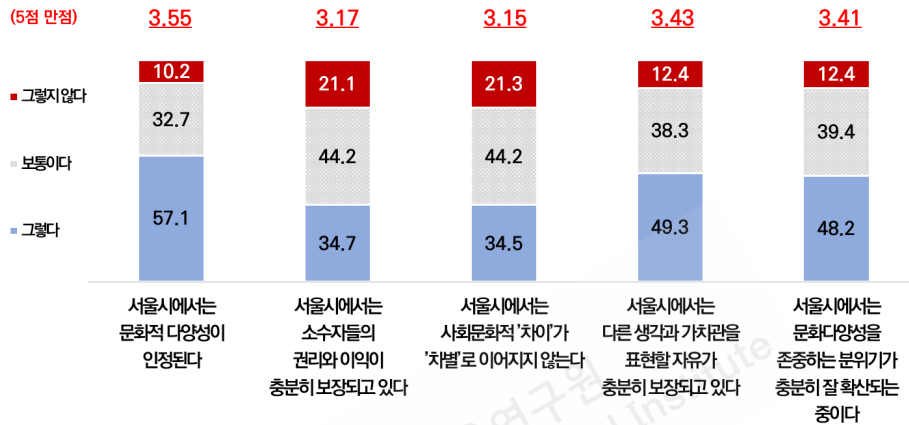
[그림 4-22] 다른 집단의 문화 표현에 대한 나와 서울시민의 존중도 비교

②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된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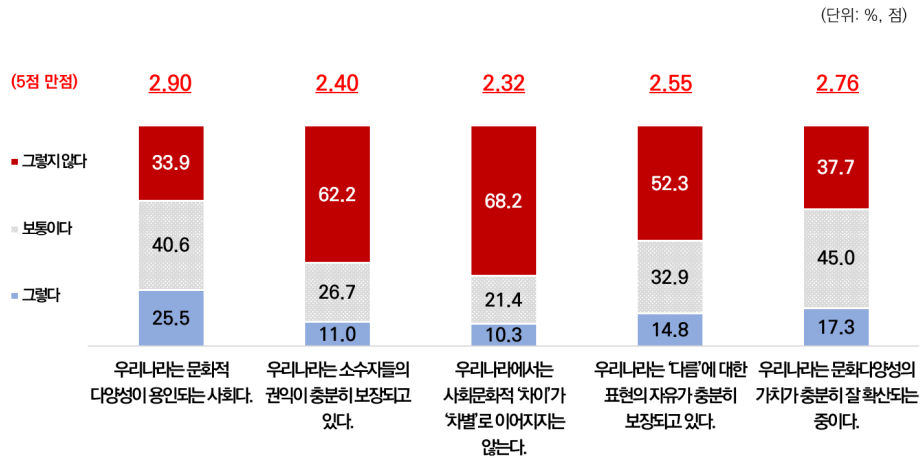
- 그다음은 '서울시에서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43점), '서울시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3.41점), '서울시에서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17점), 서울시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3.15점) 순이었음

(N=1,000, 단위: %, 점)



[그림 4-23]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식 수준)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대해 서울시에 대한 평가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국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5.5%로, '서울시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된다'의 긍정 응답률(57.1%)이 31.6%p 더 높음



[그림 4-24]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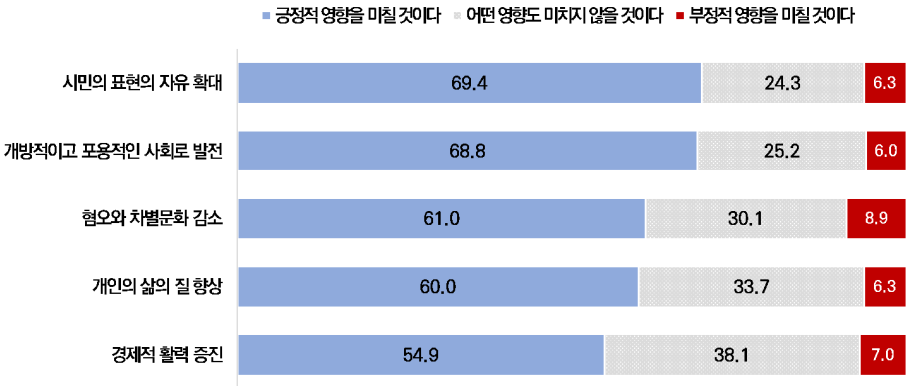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97.

(6) 사회적 차원: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①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68.8%),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61.0%), '개인의 삶의 질 향상'(60%), '경제적 활력 증진'(54.9%) 순으로 조사됨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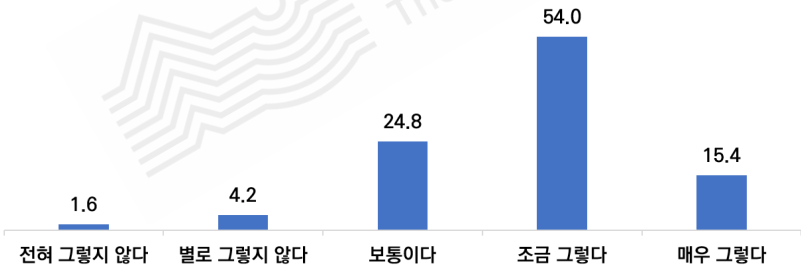


[그림 4-25]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②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가 69.4%로 ‘그렇지 않다’(5.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N=1,000, 단위: %)



[그림 4-26]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③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사업별 필요도

- 서울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3.66점),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강화’(3.57점), ‘관련 제도,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사업’(3.53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7]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2_서울시 소수자 대상 심층인터뷰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시민인식조사에서 표집의 한계가 있어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를 의미하게 분석하기 어려웠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자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심층인터뷰를 통해 소수자 집단의 문화다양성 인식, 침해 사례, 정책적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소수자 집단은 ① 인종·민족·국가, ② 종교·정치적 견해, ③ 장애, ④ 성별(젠더), ⑤ 성적지향·성정체성, ⑥ 세대, ⑦ 출신지역, ⑧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 문화다양성 집단 중 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종·민족·국가,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4개 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함
- 인종·민족·국가, 장애, 성적지향·성정체성, 성별(젠더) 등 4개 집단의 문화 표현 실태를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 집단별로 3~4명씩 총 13명을 선정하였으며,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인터뷰로 진행하였음
 - 인종·민족·국가 영역에서는 본인이 이주민 당사자이거나 이주민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예술가, 이주민단체 활동가, 중국동포 신문사 대표를 대상으로 4명을 선정함
 - 장애 영역에서는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혹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총 3명을 선정함. 이 중 1명은 장애인 당사자이고, 1명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음
 - 성소수자와 관련된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당사자이면서 연구자 또는 활동가인 3명을 선정함
 - 마지막으로 젠더 영역은 관련 연구자 혹은 활동가로 총 3명을 선정함

[표 4-13] 소수자 심층인터뷰 대상

구분	본문 약칭	대상자 특성	일시
인종·민족·국가 (4명)	결혼이주민 A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귀화한국인, 이주민단체 활동가	2020. 6. 1.
	귀화 한국인 B	방글라데시 출신 귀화 한국인, 이주민단체 활동가, 영화 감독	2020. 5. 27.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파키스탄 출신 남편과의 결혼한 한국여성, 이주민단체 활동가	2020. 5. 27.
	중국동포 D	중국동포 귀화 한국인, 중국동포 신문사 대표	2020. 5. 29.
장애 (3명)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장애인, 장애관련단체 활동가	2020. 6. 1.
	장애 연구자 B	연구자	2020. 6. 1.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장애인의 가족,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2020. 6. 18.
성적지향·성정체성 (3명)	성소수자 연구자 A	성소수자, 관련 연구자	2020. 5. 29.
	성소수자 활동가 B	성소수자, 관련단체 활동가	2020. 6. 12.
	성소수자 활동가 C	성소수자, 관련단체 활동가	2020. 6. 12.
성별(젠더) (3명),	젠더 연구자 A	젠더 연구자	2020. 6. 3.
	젠더 연구자 B	여성단체 활동가, 연구자	2020. 5. 27.
	젠더 연구자 C	젠더 연구자	2020. 6. 12.

(3)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크게 한국사회와 서울시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인식, 사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공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 4가지로 구성하여 질문함

[표 4-14] 소수자 심층인터뷰 주요 질문 내용

구분	세부 질문
한국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평가	- 한국사회는 각자의 다양한 정체성이 자유롭게 표현되는 사회입니까? -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 일상에서 나(또는 특정 당사자의) 소수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거나 침해받았다고 느낀 사례는 무엇입니까? -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 서울시(제도나 정책 측면)에서 나(또는 특정 당사자의) 소수성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 문화다양성 가치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중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일상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가치가 확산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2) 주요 조사 결과

(1) 우리사회에 문화다양성이 부족한 이유

① 집단주의 문화와 개발 우선주의

- 대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는 한국사회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인식함
-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강조해 온 단일민족주의와 개발 우선주의’를 가장 많이 언급
 - 과거 군사독재 유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통제와 획일주의, 그리고 개발과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정책 등은 우리사회 구성원이 개발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였으며, 개별적인 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젠더 연구자 A) 한국사회가 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는 한국의 국가 발전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발전주의 국가를 만들어 낸 것도 영향을 미쳤죠.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적 범주로서 연대하고 단결을 하려고 하면, ‘국가를 일단 발전시켜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국가가 이런 모든 기획을 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는 거죠.

(젠더 연구자 B) 군대문화, 군사문화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장년층에서는 꼭 군대 갔던 남성들만이 아니고 독재시기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은 아무리 시대가 민주화가 되어도 몸에 각인된 문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죠.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헌장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게 몸에 밴 세대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죠.

- 이러한 국가개발 우선주의는 단일한 구성체제와 획일주의를 강조하고 소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류를 따를 것을 강요함
 - 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이주민들에게 동화주의를 강조하는 형태로, 성소수자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고 살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남

(결혼이주민 A) 엄마인데 아이한테 모국어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이인데 내 모국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불편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님, “아니 왜 아이한테 베트남어 가르쳐 주느냐? 차라리 영어 가르치지”라고 말했어요.

(중국동포 D) 과거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인 동포들에게 다수에 맞춰서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해하고 적응하고 따라오라고. 그런데,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중국동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지, 어느 일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소수자 당사자, 연구자 A)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숨어 있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드러내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차별적 상황을 확대시키는 것이죠.

② 소수자와의 접촉 및 교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배타성

- 소수자에 대한 배타성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 본 경험 부족에서 기인
 - 일상에서 다양한 정체성과 접하거나 교류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만났을 때 낯설어하며, 의도치 않은 차별적 행위를 가하기도 함

(젠더 연구자 A)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주나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아래로부터의 결합은 이루어져 왔지만, 뚜렷하게 다른 종족이 드러난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고, 사회적 이슈로서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것도 문화다양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죠.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공공영역에서도 과도한 친절, 불안,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비장애인에게는 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는 차별적 행위들이 있어요. (중략) 제가 재난기금 받으러 갔는데 “힘든데 왜 나오셨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다른 비장애인한테는 안하는 멘트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친절해야 좋을지 잘 모르는 거고, 장애인을 만나본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할지 몰라 그런거죠. (중략) 제가 볼 때는 나쁘게 보면 한도 없이 나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직장인이고, 대학생이고, 애인일 수 있는 장애인을 많이 못 만나 봤거든요.

- 반대로 소수 정체성을 접할 기회가 증가한 영역에서는 문화다양성 인식이 증가하기도 함
 - 일상적인 접촉 증가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중국동포 A씨는 이전보다는 정체성을 숨기는 일이 적어졌고, 장애인 당사자이자 활동가인 B씨는 다양한 정체성이 노출되는 지역일수록 수용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음을 언급

(중국동포 D) 지금은 어딜 가나, 제조업에 가든, 음식점에 종사하든 거의 다 조선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면(자기 출신을 숨기는 것)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선족 없는 곳 없으니까요. 간병인이나 가정부, 옛날처럼 요즘은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홍대는 장애인들도 되게 많고, 어차피 저보다 특이한 인간들도 많고 저보다 피어싱을 한 인간을 쳐다보지, 저를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대학가라서 장애인 대학생에게 많이 노출되는 측면, 그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수용도가 높은거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도 여기에서는 소비자이니까요.

③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확산

- 일상에서 접촉하지 못했던 나와 다른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은 때로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남. 이런 불안감은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결합해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짐
- 주류 미디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개인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음. 이런 가짜뉴스들은 소수자들이 사회불안을 야기한다거나, 일자리를 빼앗는다거나, 또는 기존 사회 구성원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복지혜택을 아무런 기여 없이 축낸다는 등의 전형적인 혐오논리로 이어짐

(중국동포 D) 집단과 집단을 이야기할 때, 소수일 때는 의식 안하다가 사람 많아지면 밥그릇을 뺏어간다는 의식 때문에 좀 혐오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 활동가 B) 성소수자는 한국사회에서 너무 혐오가 심하기 때문에 드러낼 수조차 없어요.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장애인들에게 주는 어떤 국가적 지원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지원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짜 장애인 몰아내야 한다'거나, 모든 장애인들을 부정수급자로 본다거나 하는 식의 흑백논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④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 많은 문화다양성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다양성이 가지는 교차성과 복합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화다양성을 특정한 민족이나 인종의 특색이나 풍습을 배우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와 정책은 여러 가지 소수성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수자인 동시에 소수자라는 교차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국제결혼가정 한국인여성 C) (문화다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을 보면)전부 다 체험 옷 입고 뭐 먹어보고 이런 거예요. (중략) 정말 문화다양성을 가르치려면 사실은 어느 나라를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체험교육에만 머물러 있어서, (중략)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초보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인 거죠.

(2) 문화다양성 관련 사회변화 평가

① 한국사회와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 수용도 확대

-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절대적인 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성의 가치 인식과 일상에서 소수성의 발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

(장애 연구자 B) 소수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의 틀,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중략) 지금은 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한국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빨리 변화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 문화다양성은 지역과 층위에 따라 그 수용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시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 구성원 모두 빠르게 다양성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제가 00출신이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양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은 그렇게 시선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00시에 딱 가면 버스를 타도 ‘버스를 왜 타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해요. (중략) 서울은 그런 건 없죠. 가끔가다 만나지만, (중략) 00시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 10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은 지금 장애인 복지관을 해체하자는 분위기잖아요. 00은 지금 설립하는 분위기구요.

(성소수자 활동가 C) 서울에 산다는 것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적 혜택 등.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략) 시민은 시민으로 있는 것, 이미 형성되어진 성소수자들이 내 옆에 있거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이유는 다른 도시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며, 한국의 수도로서 지위와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아무래도 제일 큰 원인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이나, 국제화된 수도라는 그 에너지, 그 스탠더드, 서울시민은 이렇게 교양적이다 이 정도는 있어,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스탠더드를 해 본 경험들, 본 것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별당해도 ‘아저씨 왜 그래요 손님인데’ 이렇게 해줄 비장애인들의 세력이 많다는 거, (중략)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중략) 대사관이나 외교관들 같은 국제적인 것들도 되게 많다. 그 사람들은 외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국제적인 유엔인권기구 이런 곳들도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해요.

-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과거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성소수자 등 일부 소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표현이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

(성소수자 활동가 B)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질병이 드러나는 것에서도 그렇고, 요즘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아직 있는 상태니까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화다양성을 포괄적 범위에서 본다면 사실 진짜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표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리고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 혹은 사회적 반응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 코로나19로 생긴 전염병 위기에서 급격하게 관용도가 떨어지고 혐오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젠더 연구자 C) 관용도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쉽게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관용도가 나의 영역을 침범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혐오표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②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에 긍정적인 서울시 정책과 제도

-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점이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음

- 청년청 운영, 참여예산제, 소수자들의 시정 참여 등

(성소수자 활동가 B) 서울시에 청년청이라고 해서 청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이 세대 균형적으로 시정을 다양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정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청년이 거의 없었거든요. (중략) 참여예산제도도 문화다양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로컬맵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시민주도의 사업, 그리고 시민이 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권리, 그래서 사업화 안에서는 소수자들 아닌든 특정 정체성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는 좋은 제도들이라고 보고요.

(결혼이주민 A)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이 참여하는 거 시정 참여하는 거, 그게 좋은 활동(입니다.)

- 정책 용어에서 소수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젠더 연구자 A) 나는 서울시에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모든 여성가족부 이런 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중략) 서울시가 그래도 성평등이라는 말을 고수하고 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서울시의 유일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은 위치인거죠.

(3) 사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① 무시와 모욕, 정체성의 불인정

- 이주민, 장애인 등 소수 정체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일상적으로 반말과 무시를 겪는 사례가 많음
 - 장애인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듣는 사례가 많았으며, 귀화 한국인 B씨는 귀화한 사실과 한국에서 장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밝혀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귀화 한국인 B씨에 따르면, 때로는 방글라데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능력 자체를 무시하는 시선 때문에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우리 건물 관리실 선생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나이 지긋하시잖아요. 첫날부터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적절하게 첫날에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서 방어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 버렸더니 계속 과하게 어린이 취급을 하는 거죠. 얼굴이 동안이어서 나이를 착각해서 반말하는 것과 ‘장애인이어서 넌 아무것도 못 하지’ 이런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방글라데시 출신의 귀화 한국인 B)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태도를 조심스럽게 하죠. 그래서 일부러 처음에 만날 때 “저 귀화했어요.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이름이 그렇지만 나는 한국인이예요. 이름만 안 바꿨어요..”라고 말해요. (중략) 특히 택시를 탈 때는 많이 그러죠(한국 사람이라고 밝히죠). 택시 아저씨들이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반말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물어보면 그 순간 “아, 20년이 되었어요. 한국인이예요.”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말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출신의 귀화 한국인 B)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도 영화감독으로서 10편을 찍고 다양한 영화제에도 상영되고, 국제영화제도 나갔다 오고 그래도 내가 영화감독이라고 소개를 할 때는 약간 나를 보는 시선 때문에 내 스스로 정체성을 이야기 안 할 때가 있어요. 나를 감독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이주운동가라고 소개할 때가 있고……. 뭔가 감독이라고 하는 순간, 단순한 ‘이주 출신인데 뭔가 제대로 하겠어?’, ‘감독이면 뭐가 되겠어?’ 등 이미 우리 사회에서 깔려 있는 시선이 있는 거 같아요.

- 직접적으로 소수자를 비하하지 않더라도 일상적 상황에서 모자라거나 비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별적 언어는 소수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듣는 언어폭력 중 하나임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무의식적으로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의 경우에는 약간 모자란 듯한 아이가 덜덜어진 행동을 하면 “너 애자야?”, “너 장애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저희 딸은 이 말이 되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야, 우리 짱깨나 먹으러 가자.” 아니면 “저 남자는 게이 같아.” 라는 식으로 비하적으로 말한다든지. “그 흑형 힘 좋게 생겼네.” 이런 거 다 비하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다 문제없다고 쓰는데 그런 것이 일상에 차별언어들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명시적인 차별인 거죠.

② 표현의 기회 박탈과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불인정

- 무시나 모욕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자기 표현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심지어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

- 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 가족 및 일상적인 모든 접촉과정에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함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장례식에 안 부른다거나, 결혼식에 못 부른다거나,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중략) 제 어릴 때의 경우를 반추하면, 친척들이 저를 삼촌 혹은 조카로서 대하거나 어떤 역할을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외가 쪽도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일부러 안 갔거든요. 집 지키라고. 근데, 보통은 손주가 안 가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뒷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하고 내 위치가 그런 거구나, 아무도 위협감을 안 느낀다는 거죠. 재산을 가져갈 리가 없어,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위치에서 완전 탈락되어 있는 거죠.

(젠더 연구자 B) 우리 엄마도 이야기하거든요. 밥값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성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밥값 하는 사회인데, 밥값 못한다는 얘기죠. (중략) 집안 대소사에 안 불러요. 제 여동생은 결혼했는데, 여동생은 부르는데 저는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닌 거죠.

(결혼이주민 A) 저는 결혼이주여성이니까 한국에 와서 시댁하고 같이 살게 되었고, (중략) 그래서 돈 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시부모님이 가게 관리하는 거 그거는 관리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 남편 월급은 아내가 관리해야 하는데 한 3년간 시어머님이 관리하셨고,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결정에 끼지를 못해요. 저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원래 아내로서 같이 논의하고 집안에 일이 있으면 같이 결정해야하는데, 끼지는 못하고 의견 같은 거 존중받지 못하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하면서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돈에 관한 거는 결정에 끼지 못하는, 의사결정은 시댁식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ooo센터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주여성의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센터 관계자가 한국인 남편한테 가서 '당신 와이프를 교육시켜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났었어요.

③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 소수자는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부족한 존재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등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만연함
- 다수의 인터뷰 참여자는 이런 전형적인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 행위가 매우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대부분 행위자가 이런 행위를 편견이나 불평등하다는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

- 그 사례로 장애인은 늘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서 대우하는 경우가 다수 언급되었고, 성별 정체성에서는 매우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례가 언급됨
-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온 남성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테러리스트나 전쟁과 연관시키는 편견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지적함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여자 친구랑 어디 놀러갔는데, 내가 차 끌고 모셔갔는데, 어르신들은 여자 친구한테, “보호자 되시죠?”라고 물어요. 보호자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남편이 아닐 거다, 애인이 아닐 거다, 주도하지 않을 거다, 도움받을 존재일 거다,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 일상적인 차별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있고, 그리고 저처럼 오래 알던 사람들은 상처가 되죠. 집을 계속 맞는 거죠.

(젠더 연구자 B) 고기 집에서 중년 남녀가 같이 가면 가위랑 집계를 여자 앞에 놓고 가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중략)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걸 인식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중략) 한 축제에서 70년대 여성노동 운동 하셨던 선배님들한테 축제 음식 만드는 거를 요청한 거죠. 딱 찍어가지고, 그분들이 연세가 50대 중후반이니까, 그분들을 딱 그 이즘마로만 생각하는 거죠.

(젠더 연구자 B) 복지관 이런 데서 이주여성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자꾸 ‘어머님, 어머님’ 이라고 부르는 거 (중략) 여성은 그런 가족과 관련된 호칭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중략) 공적으로 얘기되어야 할 것도, 대개 여성들인 경우에 사적으로 이야기되는 거 같아요.

(방글라데시 출신의 귀화 한국인 B) 지금은 뭐 테러 소식이 많이 안 들리지만, 테러 소식 들릴 때는 공장에 오자마자 직원들 부르고 ‘니네 무슬림이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는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④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소수 정체성의 차별

-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소수자의 학벌, 직업, 사회적 지위, 소득 등에 따라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남
 - 인터뷰 참여자는 사회적으로 차별되는 정체성 이외에 다른 주류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와 반대로 주류적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우와 태도가 달라짐을 토로함
 - 이러한 특성은 자녀들에게도 나타남. 중국동포 D씨에 따르면 많은 중

국 동포의 자녀가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하지만, 부모의 직업이 교수, 공무원 등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당당히 정체성을 밝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함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제가 암전히 있으면 “어머님 데리고 오세요. 보호자 데리고 오세요.” 이런 거 되게 많고요. 학벌(연세대)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고 있는 일(변호사)이 나오면 그때는 ‘애는 혼자라도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할 때가 많죠.

(젠더 연구자 A) 전문직 여성이라고 덜 차별 받는 게 아니라, 딱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수로 밝혀지는 공간 외에는 그냥 아줌마인거죠. (중략)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40~50대 여자들을 바라보는가 그런 거를 느끼기도 하지요.

(중국동포 D) (부모가) 대학교수거나 그러면 애들이 (자신이 이주민 또는 이주민 자녀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데, 사농공상을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구분하는 것 같아요. 밥집 사장은 무시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나 경찰, 공무원 이런 직업의 엄마들은 당당히 아이들한테도 밝히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숨기지 않아요.

(4) 공적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① 공공서비스에서의 모욕과 무시

-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것은 공공이 행하는 무시와 모욕
 - 공공건물이나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시각적으로 소수성이 드러나는 장애인과 이주민에게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사례가 많이 언급됨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어디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는데 꼭 민원실에서 어떤 사람 튀어나와서 ‘어디 가세요. 어떤 이유로 오셨어요?’ 그 마음에는 ‘넌 구걸하러 왔니, 휴지 팔러 왔니, 뭐 하러 왔니, 데모하러 왔니, 똥 싸러 왔니.’ 그다음에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난 동네에서 화장실 이용하러 왔을 뿐인데, 그럴 때는 가끔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죠.

(결혼이주민 A) 출입국사무소나 노동청에 가면, 저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항상 느낀 게 공포예요. 되게 위협적인 그런 태도로 대해요. 한 번은 산재에 걸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두 명과 같이 세종로 출입국사무소 갔더니, 상담직원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등록 보여 달라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왔느냐? 주민등록 보여 달라고 하고, 막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명함도 보여 주었어요. 그래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②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배제와 분리로 편견 강화

-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전 부분에서 여러 형태로 배제되고 있음
 -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의 기능적 요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서비스 사용대상에서 이유 없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충전을 해야 할 때 휠체어를 타면 높이가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좋은 제도 만들어 놓아도 우리는 소외되었네, 이런 거죠.

(성소수자 활동가 B) 저희가 '퀴어여성게임즈'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관련 행사를 기획하면서 000구 체육관이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좋을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퀴어들이 온다, 성소수자들이 체육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체육관이 갑자기 공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000구에 승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 것처럼 특정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문화적으로 누려야 하는 당연한 혜택 같은 것, 일상적으로 생활체육 같은 것도 시민들이라면 모두 다 누려야 하는 특정 장소에서도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예요.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파키스탄 커뮤니티가 00글로벌센터에 신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용산에 있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이 접수를 잘 안 받아줬대요. (Q. 왜요?) 이유가 없지요. 싫은 거죠, 그냥. 파키스탄 사람들이 오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가 갔어요. '무슨 이유로 당신들이 안 받아주냐?' 했더니 억지로 받아줬어요. 싸웠으니까.

-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단순히 특정 소수성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거나, 그 지원마저도 매우 좁은 의미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국제결혼가정 한국인여성 C) 예전에 여기(글로벌센터)에서 공간사용을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왜? 너희들은 외국인 남편의 부인이자 당사자(외국인)가 아니라서 우리는 (지원) 못 한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례로 한국인 남성들이 베트남어를 배워서 와이프랑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교실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더이상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시판에 민원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발 내려달라.'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글로벌센터라서 외국인 당사자만 올 수 있대요. 글로벌은 교류 안하고 외국인들끼리 모아 놓는 것이 글로벌인가요?

-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차별행위가 일어나기도 함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택시에 시각장애인이 타는데 안내견이 못 타게 한다든지, 원래는 안 태우면 안 되거든요.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많은 택시 기사분이 모르세요. 안내견을 태울 수 없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시청에 전화를 한 후에 태워야 한다고 하니까 궁시렁거리면서...

-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강화하기도 함
 -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남성 중심적 표현방식이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비판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음

(젠더 연구자 B) 서울시 모 위원회에 위원이 되어서 첫 회의를 갔는데, (중략) 회의 자료에는 전체자료에 성별표시가 없었는데, 회의자료 자체에는 (여성만 '여'라고 표시되어 있는) (중략) 언론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여성만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호칭을 안 붙이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스피커 누가 발언을 많이 하는가, 언론에서, 스피커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 행정기관의 부서 명칭에도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담겨 있거나, 이주여성의 노동이나 사회적 기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례가 있음
 - 예를 들면, 부서명칭을 '저출산·다문화팀'이라 표기한 것은 이주여성을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라 출산의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 그러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는다는 점에서 문제

(젠더 연구자 B) (서울시 구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 담당 부서 명칭이 '저출산·다문화팀'인 거하고, '다문화지원팀'인 거하고 시각이나 가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제도 하나를 바꿈으로써 여성을 출산도구화 하지 않는 느낌이 딱 있는데, 지금처럼 저출산·다문화팀으로 있으면,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주여성 보고 딱 '애 낳아라.' 이런 이야기로 생각이 들잖아요.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이주여성들이 뭐를 하면 다 자원봉사로 해야 하고 저평가된 금액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건 이주여성이에요. 모든 단체 행사는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하는데 부스에서 지원되는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수고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이벤트 업체들은 몇천만 원을 가져가잖아요. 이거 한판 벌려주면.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 하면 전문성은 한국인에게 있다. 이벤트 회사에게(있다는 거죠).

③ 사회적 위기와 재난 대응 정책에서 소수자 배제

- 다양성이 존중되려면 일단 소수자와 다수자의 구분 없이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이 필요함. 특히나 평상시 이들에게 가해지는 처우를 감안한다면, 위기와 재난 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
-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다양성의 보장은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 몇 차례의 집단 발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특정 영역의 사람들이 방역망에서 배제되거나, 특정 소수성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지탄은 특정한 소속이나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함. 그러나 이는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됨

(성소수자 활동가 B) 코로나 관련해서도 트랜스젠더는 마스크를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별 이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자신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으면 마스크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태원에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왜 사람들이 검사받는 것을 두려워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그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이 시국에 클럽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혐오성 발언들이 4일 사이에 1천 건이 쏟아지는데, 그런 혐오발언들 앞에서 과연 내가 '이태원에 갔어요. 그 기간에 게이클럽에 갔어요.'까지 말은 못하더라도 검사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에서 커밍아웃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밖에 없는데 그것이 차단되면 내 이야기를 직장에서도 할 수 없고 학교에서도 할 수 없고, 가정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결혼이주민 A)

(코로나 관련) 문자만 오는 것도 그 다 한국어로 되어있고, 무슨 문자인지 모르잖아요. 외국인은 한국어로 문자가 계속 들어오면 엄청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중략) 외국인 특히 노동자들이 모르잖아요. 한국 텔레비전 안 봐요. 텔레비전도 없고, 접하는 거는 자기네 페이스북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침 나고 열이면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왜 보건소에 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설명. 정부는 그냥 생활수칙 자가격리 그런 것을 한 장씩 웹자보처럼 번역해서 올리는 거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왜 보건소에 가야 하는지 왜 병원에 가지 말고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하는지 그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 최근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의 의료접근에도 기존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작동됨

(젠더 연구자 B)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병원들이 긴장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조그만 동네의원에서 외국인이면 무조건 진료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중국출신 여성이 갔는데, 진료를 안 받아준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 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산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거죠.

(5) 문화다양성 침해 상황에서 대처방식

①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피

- 무시와 정체성 불인정 또는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면, 적극적인 저항 또는 항의보다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근무처 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회사를 이동하면서 체류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급적 고용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

(귀화 한국인 B) oo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교회에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어서 미안마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oo이 못 갔어요. 어차피 oo이 무슬림이니까. 그런데 다음날 와서 (사장이 oo에게) ‘너는 무슬림이냐?’고 묻는데, oo이가 그 순간에 말을 못 했대요. 무슬림이라고 내놓고는 못하고 다음 주에 사장이 oo 보고 ‘너도 교회 가자.’ 그래서 애도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하루 갔다 왔대요. 그 뒤부터 공장에서 비자 연장할 때 비자 연장 안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요일마다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한글 교실 가야 한다고 회사에서 빠져나오곤 했어요.

(귀화 한국인 B) 한국 어머니와 방글라데시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고 (중략) 자기 아이가 돼지고기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 유치원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유치원에 가서 “애가 돼지고기 알레르기 있다.” (중략)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시선으로 볼까봐 차라리 그냥 무슬림이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돼지고기 알레르기 있다고 말했대요.

②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

-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소수 정체성에 대한 불이익의 경험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비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함

- 소수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음

(중국동포 D) 아이들 사회는 그런 게 아직 심하지요. 학교에서 조선족이라고 하면 신분을 밝히기 꺼리고, (하지만) 말투에서 다 드러나니까. (중략) 중국식당이라든가 자영업으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그분들이 한국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다니면 숨겨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중국 출신인 것을 숨겨요. 엄마가 일부러 학교를 안가고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는 왜 한국에 친구가 없냐?’고 물으면 ‘엄마는 미국에서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결혼이주민 A) 제가 물어봤어요. 제 아들한테 네가 다문화 아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알고 있느냐, 같은 반에(서) 모른대요. 한 명만 알고 있대요. 자기 친한 친구,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 반에 한 명 더 있는데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서로 숨기는 거 같아요.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좋은 것 같다는, 분위기상 그런가 봐요.

(성소수자 당사자, 연구자 A) 자주 겪는 반응이 처음에 봤을 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네. 하거나 얼핏 복장을 봤는데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얼굴, 목소리를 보니까 남자네 여자네. 아니면 아예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묻는다거나. 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중략) 누가 공연 같은 것을 보고 설문지를 할 때도 ‘공연이 좋았나요?’ 물어보는데 성별 체크란이 있다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응답하기 싫음’이라고 넣어 놓던가. 아니면 체크를 안 하고 주면 따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③ 더욱 심각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항의 자제

- 자신들의 자유로운 문화표현과 정체성이 가시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혐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킬까봐 이를 자제한다는 의견도 있음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상대방이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반말을 하는 경우) 그런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세요.’ 이러면 또 안 돼요. 장애인들 성질 더럽다고 편견 생겨요.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들 중에 개종한 무슬림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언니 응원해요, 감사해요.’라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거리에서 피켓을 들지는 않거든요. (중략) 자기들(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인 여성)이 나서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슬림을 더 혐오하게 될까봐. ‘저 여자들이 미쳐가지고, 속임을 당해서, 뭐 꼬임을 당해서 ……」 지금까지 파키스탄 남성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담론들이 있잖아요.

④ 체념

- 소수자들은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발생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상당 기간 노출되면서, 구조적인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문제제기나 저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음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휠체어 타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힘이 든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싸우기 시작하면 기운이 너무 빠진다고.

⑤ 적극적인 항의 행동

- 차별 상황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련 단체의 지지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차별 행위가 시정되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된 사례는 당사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됨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가 C) 시각장애인 친구가 안내견을 못 타게 막은 택시가 있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택시 뒷번호판을 찍었대요. 그래서 아무튼 분에 못 이겨서 페이스북에 자기 사연을 올렸어요. 제가 그것을 SNS에 공유하면서 관계자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카카오택시 부사장한테 알려졌고 그다음날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전체 기사들에게 공지가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이라고. (중략) 안내견을 태워야 한다는 교육도 하고 있고 휠체어도 태워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택시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인식을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각장애인 친구가 보고서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6)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제안

① 인식개선

①-1. 자연스러운 소수성 표현과 만남의 기회 확대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식개선임. 특히 제도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정책이나 제도, 공공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음
 - 인식개선을 위한 방식으로는 강제적인 의무교육보다는 일상에서부터 자

연스럽게 소수성이 노출되고 이를 통해 익숙해지는 과정이 더욱 필요

- 일반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는 캠페인, 캐릭터, 친화기업 인증,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됨

(성소수자 연구자 A) 인권단체에서 이번에 성소수자를 우리사회에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와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해서 지원받았다고 해요. (중략) 인권단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트랜스젠더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에 성소수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이를 인증해 주는 작업이라든가 스티커 붙여주기 작업을 하는 캠페인을 넣었는데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일상에서 사람들이 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사실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날(아이다호데이⁷⁾)에 맞춰서 자기 자리에 스티커 붙여놓기, 배지 붙이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주변에 내가 드러내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이런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게 앞에 게이 바가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무지개라도 붙어 있으면 그날에 지지를 받는 것도 있으니까.

(성소수자 활동가 B) 저는 행사를 할 때 문자통역을 사용했어요. ‘왜 해?’라고 하면 ‘아, 이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언어적으로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확인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라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체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불편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감하게 하는 사회적인 상황, 삶에 들어간 것들로 반영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 밖에 없으니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캐릭터를 어릴 때부터 동화책, 노래, 교과서 이런 데서 많이 접하게 되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 캐릭터 중에 라이언이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떨까? 상상을 해서 이제 캠페인을 했죠. 그런 종류의 매스미디어라든지 특히 아이들은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친구들과 놀게 되면 장애에 대한 편견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제 딸의 친구들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캐릭터를 통해서 친근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애인식타파에 대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7) ‘IDAHO’(아이다호)는 매년 5월 17일 ‘세계성소수자차별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의 약자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이라고도 불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이 5월 17일이 된 이유는 1990년 5월 17일에 WHO(세계 보건 기구)가 정신질환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기 때문임.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성소수자를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카피, 문구나 이런 것들을 공공이 주최하는 기관에서부터 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공이 이야기하면 무게가 실리니까요. 외국에서는 세서미 스트리트(미국의 어린이 TV 프로그램)에서 캐릭터에 일부러 소수자를 넣어서 만드는 것처럼, 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시에서도 시가 표현하고 하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행사 같은 것에 다양성들을 보장하면 좋겠어요.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이미 250여만 명이나 존재하지만, 일상에서 한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도 제기됨

(결혼이주민 A) 서울시민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매일 공장에 가서 일하고, 다문화가족센터도 따로 외국인만 만나는 거지, 한국인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기회도 많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①-2.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

-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 특히 이미 형성된 편견을 교정하려면 긍정적 뉴스를 더욱 더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
- UN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인권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수자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권고함

(중국동포 D) 전반적으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홍보해줘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세금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 좋은 일을 한 게 많잖아요. 김OO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독거노인 관련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홍보가 안돼요. 이런 걸 한국사회에 자꾸 알려야죠.

①-3.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및 내용과 형식의 변화 필요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물론 사기업까지 문화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제결혼가정 한국인여성 C)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커뮤니티의 주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당연한 거를, 왜 한국사람 없냐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커뮤니티가 한국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이면 당연히 주도하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베트남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중략) 공무원들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해요.

(젠더 연구자 C) 일단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대상으로 거의 의무교육화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예방교육이잖아요.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 년에 한번이라도 정례화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지시문에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관을 가지는 교육으로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다양성교육의 내용과 형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문화다양성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 형태로 이루어져서 안 되며,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차이와 다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

(장애 연구자 B) 저는 다양성 교육이 경험과 감각의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험, 감각 이런 거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니까 재밌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이나 부채의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저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교양인이라면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차원의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식의 일종의 인권규범에서 항상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가 강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문화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런 다양한 문화라는 게 있어서 인간의 삶이 훨씬 풍부해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식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규범적인 측면, 최소한 이 정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의 삶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우리가 내적인 차별을 갖고 있는 것과, 외적으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이게 내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내적으로 키우고 훈련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죠.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B) 지하철환승지도를 만들면서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장애인식개선 효과가 있고요. (중략) 그 수단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 같은 것을 이끌어 내려면 그 상황을 직접 당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지하철리서치의 경우는 보통 그런 종류의 리서치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② 물리적 환경 개선

②-1.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간

- 이주민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이러한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애 연구자 B) 특수학교에서는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잘하게 되거든요. 자신 감도 생기고 그 안에서는 마음 편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일단 사회에 가서 그게 깨지면서 힘들어하게 돼요. 근데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계를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자기모멸하고 차별을 받아서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중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보호의 지역이 있으면서, 거기를 그 공간을 매개로 연계 활동을 하는 그 어떤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서, 연계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중국동포 D) 지금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어 잘 모르는 애들이 어디 가서 책 보려고 해도 볼 책이 없어요. 그러면 도서관, 물론 그 애들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라면 구에서 도서관이라도 따로 내 가지고 동포어린이가 갈 수 있고 외국(배경)어린이가 갈 수 있고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 놓고 발현할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자신만의 정체성이 환대받는 마음 편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장애 연구자 B)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건 뭐건 없거든요. (중략) 지금 보면 장애인 쪽에서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학교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러니까요. 장애인으로서 맘 편하게 있을 수 있고 장애인이어서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관제망이 취약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도, 이주민만 해도 어디가든 찬밥 덩어리고, 어디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잖아요. 저는 좀 약간, 모든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소수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LGBT들이 그렇게 이태원에 몰려가는 게, 거기 있으면 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환대의 공간들을 공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②-2.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모두의 화장실

- 문화다양성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과 더불어 '모두의 화장실'에 대한 의견 또한 많이 제시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 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자인이 필요해요. (중략)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이 시설에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드웨어가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그 달라진 인식이 다시 또 하드웨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소수자 활동가 B) 사람들이 체감할 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든 화장실을 이용해야 '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공유부엌 같은 것을 많이 보고 다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싱크대가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에 '오! 왜?' 이렇게 질문하면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싱크대가 너무 높잖아' 하면 거기에서 오는 '맞아. 나 너무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직접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성소수자 연구자 A) 성별을 드러내야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정정을 안 한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시작해서 호르몬을 맞고 있는 이 상태도 그렇고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서 패싱이 되는 경우도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③ 정책 추진체계 개선

③-1.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

- 다양한 정체성이 제도권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기회 제공 필요
 - 상대적으로 기회가 박탈되어 자신을 대변할 정치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위해 할당제 또는 적극적인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함

107

(국제결혼가정 한국인 여성 C) 동등하게 서로 대우하고, 그런데 여기가 역량이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하면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데 적극적 조치는 소수자들에게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역차별은 아니거든요.

(젠더 연구자 B) 그래서 저는 할당제나 이런 걸 굉장히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서울시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소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할당제만 적극적으로 도입해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 각각의 소수자로 분리된 개별 위원회보다는 다양한 소수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위원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서울시청 내 다양성 담당자를 두어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성소수자 활동가 B) 서울시 명예시장제도라고해서 이주민 명예시장도 있고 여성 명예시장도 있고 다양한 명예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도 호명되지 않는 성소수자. 명예시장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그런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룹들이 서울시에 제도적으로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젠더 연구자 C) 저는 필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소수집단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또,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홍보하는데 좀 많이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소수자분들 따로따로 엮어서 하지 말고, 아예, 소수자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하고 장애인하고 동성애하고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공통된 차별요소, 공통된 정책이슈가 무엇인지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미국에는 실리콘 벨리에는 보통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다양성 포용 담당하는 임원이 있거든요. (중략)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고 하면 다양성을 보장하는 담당을 하는 사람을 뒤편 하지 않나? 그래서 시가 하는 어떤 종류의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를 전담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③-2. 미디어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

- 한국사회 전체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사회전반에 인식개선에 있어 미디어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미디어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노출하고,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방식이 필요

(장애인 당사자 활동가 A) TBS를 서울시가 관할하니까, (중략) 정규 과정으로 좀 장애인 문제나 장애인 당사자가 아나운서가 되어서 나오거나 DJ가 나오는 프로그램과 교통방송으로라도 저상버스나 이런 걸 이야기해주는 정규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장애 연구자 B) 저는 미디어 정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서 어찌됐든 일정한 정도의 쿼터를 줘서, 문화다양성 관련된 미디어 정책이 확실히 들어가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장애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들을 평가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③-3. 다양성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철학과 패러다임

- 모든 사회구성원은 여러 소수성의 집합체이며, 문화다양성 정책은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데 핵심적인 철학적 바탕이 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다양성 정책이 특정한 한 분야의 소수 정체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의 소수성, 모두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

(젠더 연구자 A) '서울시 여성친화' 이런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사람들이 '여성행복도시'에서 가장 우스웠던 정책은 (중략) 여성들이 공중 화장실에서, 어떤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에티켓 벨을 다 설치한다. 그게 평등과 어떤 부분에서 여성 권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이잖아요. 거기다 돈을 투자한다니까,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에티켓벨이 아니라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중략) 지금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게 누가 정말 시혜를 베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패러다임이나 가치나, 두 존재들 간에 권력관계를 완벽하게 변화시켜내는 권리 개념으로 가야지, 시혜 개념으로 가면 계속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장애 관련 단체 활동가 C) 너무 장애 정책을 복지로만 봐요. 지하철에 환승 통로를 잘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다리 멀쩡한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카트나 여행가방 끌고 다닐 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성소수자 활동가 C) 저상버스가 지금은 일반화되어있는데 예전에는(저상버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었잖아요. 이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3_소결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요약과 시사점

- 서울시민 중 85%가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대부분 ‘민족·인종·국적’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로만 인지
 - 서울시민 중 4명 중 3명은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문화다양성 개념을 ‘민족·인종·국적’에만 국한하여 인지하는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함(유네스코, 문화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여기서 문화란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 즉 문화다양성은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지역, 기호·취향 등으로 인해 형성된 개인의 정체성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민족·인종·국적’ 등 기존의 다문화의 개념에서 확장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울시민은 자신 스스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높게 인식하지만, 다른 문화집단과 직장동료, 이웃, 동호회 등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떨어짐

- 많은 서울시민이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79.5%), 소수문화가 제도적, 관행적으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고(71.3%),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69.4%)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지적으로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높게 나타남
- 또한 다른 문화집단의 문화표현도 성적지향·성정체성과 종교·정치적 견해를 제외한 다른 집단들의 문화표현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존중한다고 응답
- 그러나 성소수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이웃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50% 미만만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실제적 수용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사회적 거리감을 느끼는 1순위는 ‘성소수자’ 2순위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 직장동료, 이웃, 동호회 활동,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주도하는 동호회 활동 4개 항목 모두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이 두 번째로 낮게 나온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갈등을 자주 접하고 이로 인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비주류 문화표현의 자유로운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소수자로 인식하는 집단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음. 또한 문화표현을 저해하는 요인 중 첫째는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임
 - 서울시민 중 21.2%가 비주류 문화표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스스로를 소수자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34.8%가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함. 이에 비해 스스로를 소수자로 인식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12.7%만이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함
 - 문화표현이 어려운 요인으로서는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와 ‘표현을 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임

- 문화다양성에 관한 태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존중도 등을 살펴보면 시민 스스로 문화다양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자신의 존중도(평균 3.74점)와 서울시민의 존중도(평균 3.28점)를 비교하면, 자신의 존중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배제 및 차별은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함
-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정도는 전체 평균 3.34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소수자 권익 보장과 차별분위기 평가는 다소 낮은 편
 - 5개 문항 중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와 ‘서울시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항은 긍정 응답률이 각각 35%로 다른 문항에 비해 다소 낮음
- 서울시민의 약 70%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
 - 사업별 필요도에서는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
 - 2순위로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이 필요, 3순위로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강화’를 들고 있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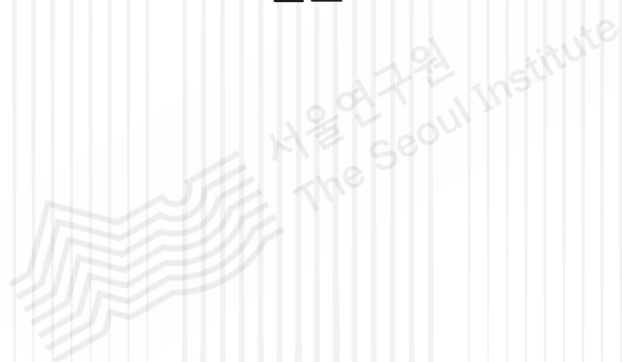
2) 소수자 심층인터뷰 요약과 시사점

- 대다수의 인터뷰 참가자가 한국사회와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한다고 인식함
 -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이 부족한 이유는 ① 집단주의 문화와 개발우선주의로 인한 다양성 부족, ② 소수자와의 접촉 및 교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배타성, ③ 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표현 확산, ④ 문화다양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부족 등임

- 서울시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 그 이유는 다른 도시보다 실제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이 높고, 한국의 수도로서 지위와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
 - 긍정적 정책으로 청년청 운영, 참여예산제, 명예시장 제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정책 참여 제도 등을 꼽음
- 문화다양성 침해사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모두 무시와 모욕 및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남
 - 사적인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사례는 정체성 표현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언급됨
 -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다양성 침해사례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 및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오히려 편견이나 선입견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언급됨
 - 이런 이유로 성소수자, 중국동포, 베트남 이주여성 등은 무시와 차별을 피하는 방법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
-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물리적 환경 조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제안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소수정체성이 표현되는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수정체성을 노출시키는 방안,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화 등이 강조됨
 - 지식전달 방식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삶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
 -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소수 정체성이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지원과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모두의 화장실 등이 제안됨
 - 정책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소수자위원회 구성 등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 결정 구조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정책이 특정 소수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05

결론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와 시범조사 결과 요약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방향 제언

0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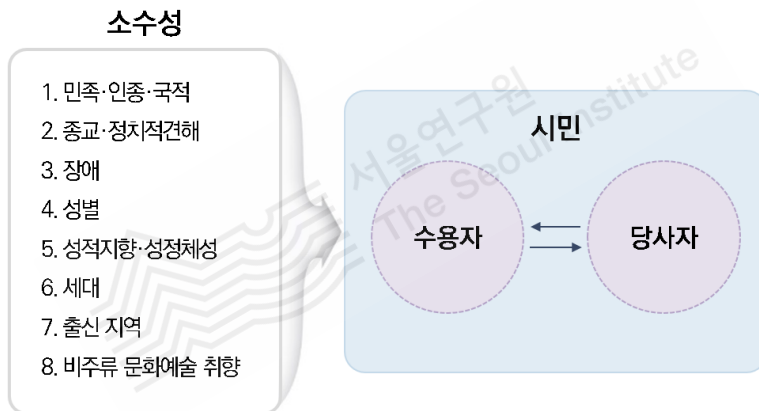
1_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와 시범조사 결과 요약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체계의 구성과 특징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일반시민 대상 온라인 조사와 소수자 대상 심층인터뷰 조사의 이원 체계로 실시
 - 일반시민 조사는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설정하고 문화 표현의 자유도와 수용도를 중심으로 조사
 - 소수자는 설문조사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진행
- 서울시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식조사 지표체계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 몇몇 지자체의 상황을 보면, 지자체 특성에 맞는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수용자로서의 국민(시민)과 대상자로서 소수자로 구분
 - 구성원을 단일하고 평균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평균적 구성원과 다른 소수자는 누구인지, 소수자에 대한 일반 구성원의 수용도는 어떠한지를 측정하는 방식
 - 이는 기준이 명확하여 한 국가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나타내고, 국제 간, 도시 간 비교를 수행하기에 적합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구축 과정에서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문화다양성 정책은 평균적인 보통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두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화상호주의에 기초
 - 또한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매우 세분화된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 개개인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가능
-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체계는 **시민을 소수성에 대한 수용자이자 소수성을 갖는 당사자로 설정하여 구축**
 - 소수성은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로 분류



[그림 5-1]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체계의 전제조건: 수용자이자 당사자로서 시민

- 인식지표 항목과 세부내용은 정부 기준을 참고하되 서울시민의 ‘문화표현’에 대한 존중과 발현에 초점을 두고 재설계
 - 정부(문체부)의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
 - 전국 단위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을 수용

-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는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 활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사업을 세분화
-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자신의 문화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정 보완
 - 문화다양성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과 밀접한 서울시정의 특성을 고려
- 시민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문항 세분화
 -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자신의 문화표현과 타인의 문화표현 등 다차원적 접근
 - 개인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자기평가와 서울시민 전반의 수용도에 대한 평가를 구분
 - 또한 개인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인지적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사회적 거리감)를 구분하여 구성
- 문화표현에 대한 인지와 표현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규 문항 개발
 - 개인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경험 및 비주류 문화표현의 저해 정도와 요인을 파악

문체부 문화다양성 인식지표(2017)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지표(2020)	
지표 항목	세부내용	지표 항목	세부내용
인지도	개인의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도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및 연관대상
	개인의 문화다양성 가치 동의도 및 필요도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차별 경험도 (추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도(온/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관심도	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거리감 정도	비주류문화표현 보유도 (추가)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유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 정도
수용도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개인의 문제 인식 정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수용 정도 (가족, 동료, 동네 이웃, 지인)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확신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포용도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		
필요도	소수자들이 우리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사회갈등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소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충분도		
	사회갈등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 충분도		

[그림 5-2] 정부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 비교

-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 조사를 위해 문화다양성 대상별 당사자 및 전문가(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인터뷰 진행
 - 문화다양성 인식,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중심으로 조사
 - 문화다양성 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인한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및 인식정도 평가를 중심으로 조사
 - 문화다양성 침해사례는 소수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하거나 침해받은 사례를 사적 영역과 공적(서울시 제도 및 공공기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소수자 입장에서 서울시가 실행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프로그램, 제도, 공간 등의 측면에서 자유롭게 제시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결과

-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그 개념을 협소한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 서울시민의 84.9%가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그러나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민족인종국가가 89.8%로 압도적인 반면, 성적지향성정체성, 전통문화, 장애, 소득 등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낮게 인식함
 - 이러한 경향은 심층인터뷰에서도 확인됨. 문화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문화다양성을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태도와 자세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서울시민은 인식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매우 높은 편
 - 서울시민의 79.5%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응답도 67%로 상당히 높은 편

-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포용적인 생각과 자세를 취함.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과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포용성이 높음
- 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실제 수용도는 낮은 상황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남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을 직장동료, 이웃, 동호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
 - 성소수자집단,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게 나타남
 - 이처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차원의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 간 차이는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의 부재에 기인
 - 소수자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으로, 소수집단이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감수성이 부재한 상황
- 비주류 문화표현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유는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
 - 서울시민의 21.2%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특히 본인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표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소수자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성소수자, 중국동포, 베트남 이주여성 등이 무시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례들을 확인
-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은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
 -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대해 25.5%가 긍정 응답을 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57.1%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긍정적으로 응답
 -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하고, 한

- 국의 수도로서의 지위와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 등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
- 소수자의 권익보장이나 차별문제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
 - ‘소수자들의 권리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에 34.7%,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에 34.5%만이 긍정 응답을 하여, 제도적 구현이 미흡함을 보여줌
 -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서울시민의 70%는 서울시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
 -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은 포용적 사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표현의 자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
 - 학생 및 시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지원, 소수자 접근을 위한 문화 시설 개선, 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

-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로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제정
 - 문화다양성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책실행조직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등을 규정
- 부처별로 문화다양성 인식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등
 -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 전으로,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책목표에 따라 소수자 대상별 사업이 각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
-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계획으로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있음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으로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여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기본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

-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현황은 서울시가 문체부에 제출하는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및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
-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
 - 사업 건수가 2015년 50건에서 2018년 349건으로 약 7배 증가
 -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이 169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이 91건,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이 48건 등
- 사업을 성격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시에서 실시되는 문화다양성 사업들은 총 10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
 -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 소수문화 이해 촉진 / 문화표현기회 확대 /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화예술 정보 제공 / 소수자집단 복지지원 / 소수집단 인권보장 / 정책개발 및 평가 / 지역문화증진 / 국제교류탐방 등
 - 이 중 문화예술 일반사업(29.8%)과 소수자집단 복지지원사업(2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대부분의 사업이 외국인, 다문화, 장애인 등 소수자 지원정책 차원에서 추진
 - 지원정책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되고 분화된 대상별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소수자들의 공통적 이해나 어려움 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

2_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방향 제언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체계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구성

-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인식조사와 정책환경 조사의 두 축으로 구성
- 인식조사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와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서울시민의 인지도, 수용도, 차별경험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를 평가함을 목표로 함
 - 소수자 집단 심층조사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 파악과 함께 서울시 문화다양성 우수사례/침해사례 발굴을 목표로 함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와 소수자 집단 심층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
- 정책환경 조사는 문화본부 담당부서에서 추진
 - 현재는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및 실태조사에 대응하여 정책환경 파악 중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지표 및 여건지표의 별도 연구개발 필요
 - 서울시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선행이 전제조건
- 실태조사 결과물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리포트〉로 발간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에 기여
 - 일반시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 서울시 문화다양성 관련 현황 및 주요 정책 소개,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및 침해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실태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관련 인식 향상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도출된 만큼,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

- 리포트의 형태는 인쇄물 및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임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추진체계

-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로 실태조사의 주기성과 연속성 확보
 -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에 설치가 지정되어 있는 기구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총괄 실행하고 조정하는 역할
 - 조례상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실태조사 시행, 관련 사업과 교육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
 - 현재는 위원회 미설치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
 - 실태조사의 주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 설치가 선행되어야 함
- 문화다양성 정책의 당사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위원회〉에 소수자 집단별 대표자 참여 보장
 - 현재 조례상 〈문화다양성위원회〉 참여 대상은 관련 부서의 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됨
 -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위원회 구성원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문화다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수자 집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서울시 정책 수행에서 당사자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특히 문화다양성 분야는 각 소수자 집단의 의견 발화가 중요
-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상 조정 및 분과위원회

운영

-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시장 소속에서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위상 조정
 - 현재 조례상 시장 소속기관으로, 위원회 운영횟수 등의 제한이 있어 형식적 운영으로 치우칠 가능성 존재
 - 정부의 경우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라, 2020년 6월에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위상을 조정함
- 소수자 집단 대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
 - 〈문화다양성위원회〉 산하에 소수문화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에 당사자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형성이 필요
 - 소수자들이 겪는 공통된 차별요소와 정책이슈를 집중 논의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방식

(1)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구성안은 [표 5-1]과 같음
- 지표항목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
 - 개인적 차원은 인지도, 수용도, 차별 경험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 비율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
 - 사회적 차원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와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항목으로 구분

[표 5-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

구분	지표항목		세부내용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 문화다양성 범주의 일부 조정 검토 필요
 -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시범 실태조사는 문화다양성 대상을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문화예술취향 등 8개 범주로 구분
 - 실태조사 결과 위 범주 중 종교·정치적 견해 및 비주류 문화예술취향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종교·정치적 견해는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로 분리 필요
 -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서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에 대한 거리감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 서울시민은 종교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를 구분하여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태도 역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조사에서 범주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의 범위에 대한 재논의 필요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은 델파이조사 및 자문회의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범주로, 추가적 논의 필요

- 이번 연구에서는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으로 정의하여 조사를 진행
 - 그러나 취향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달라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
- 취향의 범위를 예술로 한정할 것이냐, 개인의 취향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냐는 논쟁적 영역
 - 이번 연구에서는 비주류 예술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지만,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일상문화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취향을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인식조사 표본설계에서 소수자 집단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는 일반시민과 소수자 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문항을 개발
 - 다만 조사 수행 과정에서 예산 등의 제약으로 표본설계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을 별도로 반영하지 못함
 - 향후 조사 추진에서는 일반시민과 소수자 집단을 나누어 표본 설정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차별경험, 비주류 문화표현 관련 자유도 등 일반시민과 소수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이번 조사 결과에서 본인이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서울시민의 경우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자유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이 드러남

(2) 서울시 소수자 집단 심층 인식조사

- 문화다양성 정책의 한 축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심층 조사 병행 필요
-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는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표현, 수용도를 중심으로 접근
 -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를 통한 실증데이터의 해석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 농후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

-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소수자 집단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인식과 침해사례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가 필요
- 심층 인식조사는 인종·민족·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젠더),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개 대상별 조사가 필요
 - 소수자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집단별로 경험하는 차별 상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함
 - 이 연구에서는 예산 및 코로나19 등 상황적 이유로 민족·인종·국가,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등 4개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한 한계
- 조사 내용은 소수자 집단이 경험하는 문화다양성 인식과 침해사례 및 우수사례 발굴에 초점
 -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지적 포용도와 실제 수용도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문화다양성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
 - 이에 소수자 인터뷰 과정에서도 문화다양성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
 - 문화다양성과 차별 상황에 대한 감수성은 소통과 공감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제시할 필요
 -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침해 사례와 우수 사례 발굴이 필요
- 심층 조사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진행
 - 소수자 집단은 평소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포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조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와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전문가에 의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심층인터뷰 조사 자체가 소수자 집단에게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조사

- 문화다양성 정책환경은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법·제도, 기본계획, 관련 사업실태 등을 종합하여 파악
- 현재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조사는 중앙정부의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체계로 수행 중이나, 조사의 한계가 존재
 - 조사대상 범주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효성 있는 실태 파악이 어려움
 -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 등 문화시설 및 조직 설립과 관련된 사항, 일반시민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체육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축제 등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제반 사업, 소수자집단 복지 지원 사업까지 망라하여 조사되는 상황
 - 중앙정부의 연차보고서와 실태조사의 조사기준이 달라 이중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행정부담이 존재
 -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조사기준 일원화 및 세부기준 설정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음

[표 5-2]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와 실태조사 기준 비교

구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정책·여건 조사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분류 기준	사업대상을 및 내용을 기준으로 13가지 유형으로 분류	사업 성격을 기준으로 6 가지로 분류
분류 내용	① 외국인근로자 지원 ② 결혼이주여성 지원 ③ 북한이탈주민 지원 ④ 성차별 근절 ⑤ 성소수자 관련 사업 ⑥ 장애인 문화지원 ⑦ 세대 간 갈등 해소 ⑧ 전통문화 보존 ⑨ 지역문화 발전 ⑩ 예술의 다양성 확보 ⑪ 종교의 다양성 ⑫ 가족의 다양성 ⑬ 저소득층 문화 지원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조사 내용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 -문화다양성 예산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 인력 수	-사업명 -사업 수 -예산 -사업내용 -추진성과 -참여인원 -담당부서

- 서울시 자체 정책지표 개발 및 관리 필요
 - 현재 서울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기본적 정책방향 없이 여러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추진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본래 가치와 맞지 않는 사업들이 문화다양성의 이름으로 추진되기도 하는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들을 행정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실효성 부족
 -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및 이에 기초한 정책지표 개발이 시급
 - 문화표현의 자유와 포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다양성의 기본 가치에 근거한 기본 정책방향 제시가 필요
 - 서울시 문화본부 내 담당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 필요
 - 또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근거를 둔 정책 및 여건지표의 개발과 관리 필요

- 강희영·권용희, 2013, 「서울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분석을 통한 정책 및 사회통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강희영·이경숙, 2014, 「서울시 외국계 주민 밀집지역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도에 대한 젠더 분석: 서남권 4개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라도삼·조윤정·이정현, 20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 류정아, 2009, 「다문화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각년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 작성 지침(2015~20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설명회 자료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2019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집」.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7a,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7b,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 서울시, 2019.8., 「제2차 서울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 서울시, 2018.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 세계문화발전위원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번역), 「세계문화발전 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 백령 외, 2014, 「2014 문화역량 개념 틀 및 지표 구축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안태호 외, 2019, 「2019 경기도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오정은, 2015,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황 조사 연구」, 서울특별시.

오주희 외, 20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광주문화재단.

변미리·신인철 외, 2018,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장미혜, 2008, 「양성평등 문화지표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현선 외,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부산문화재단.

정보람, 201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사업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지민 외, 2016, 「세계시민교육의 측정지표 개발 및 국제적 확산 지원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영화·김창수·민경선,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8)」.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cda.or.kr/main.do>

독일 다양성 헌장 협회 홈페이지 <https://www.charta-der-vielfalt.de/>



1_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항 설계 및 신뢰도 검증

①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설문문항(안) 도출

- 미국 로우어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다양성 자가평가 설문’,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 개발한 ‘문화역량 자가평가 설문’, 영국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의 V. Dhupa 교수가 개발한 ‘다양성과 문화의 이해 설문’을 참고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11개 문항을 채택

[표 1]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설문 문항(안)

구분	문항
문화다양성 에 대한 인식	1) 나는 모든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사회에는 주류문화권 밖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과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집단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다양성 에 대한 개선 의지	4) 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전체 집단에 일반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 “모든 남자들은~”,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보통 장애인들은~”)
	5)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대상)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말은 가능한 쓰지 않으려한다.
	6)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7)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교류의지	8) 나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 문화적·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9)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편견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소수집단 대상	10) 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② 신뢰도 검증을 위한 테스트 조사 실시

- 새롭게 개발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서울시 모바일투표 시스템 엠보팅 사이트를 활용하여 테스트 조사를 실시함
 - 조사시기: 2020.2.17.~2.26.(10일간)
 - 조사방법: 서울시 모바일 투표 시스템 엠보팅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
 - 조사내용: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지 문항 11개



[그림 1]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개발을 위한 설문 진행

③ 신뢰도 검증 결과

- 11개 항목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의 알파 계수가 0.81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음
- 문항별로는 8번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0.817)와 11번 문항이 제거되었을 때(0.819)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짐을 확인
- 이에 8번과 11번을 모두 제거했을 때 Cronbach의 알파 계수가 0.827로 더 높아짐을 확인

[표 2] 신뢰도 통계량

항목 수	Cronbach의 알파
11개 문항	.815
8개(8번 11번 제거)	.827

[표 3] 신뢰도 항목 총계 통계량

문항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1) 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37.68	29.759	.407	.807
2) 나는 우리사회에는 주류문화권 밖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과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37.99	29.599	.449	.803
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집단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38.23	30.075	.339	.815
4) 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전체집단에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7.92	29.192	.556	.794
5)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대상)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한다	37.72	29.517	.597	.792
6)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대상)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37.86	28.923	.641	.788
7)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있는 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7.66	28.619	.587	.790
8) 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문화적·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38.85	28.826	.365	.817
9)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38.15	28.609	.632	.787
10)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37.84	28.771	.595	.790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38.70	30.162	.313	.819

④ 요인분석

- 문화다양성 인식 및 개선의지에 대한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결과 $\chi^2=443.281$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함
- KMO 값이 0.863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

-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
- 신뢰도(알파 계수)가 0.60이상으로 채택됨
- 요인1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요인2는 “문화다양성 인식도”로 명명함

[표 4] 문화다양성 수용도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요인1	요인2
9)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 편견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769	.036
5)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대상)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한다	.755	.178
7)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있는 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733	.189
10)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717	.156
6)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집단(대상)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703	.351
4) 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전체집단에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669	.227
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가진 집단을 무의식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021	.836
2) 나는 우리사회에는 주류문화권 밖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과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225	.743
1) 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화가 다른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328	.562
고유값	3.313	1.835
분산설명(%)	36.815	20.384
누적설명(%)	36.815	57.199
신뢰도(크론바흐 알파 계수)	0.844	0.608

주: KMO=0.863, Bartlett's test결과 $\chi^2=443.281(df=36, Sig.=0.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3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⑤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항 구축

-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지표는 신뢰도 및 요인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진은 1)~7)번 문항을 채택함
 - 8)번과 12)번 문항은 문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거하였고, 9)번과 10)번 문항의 교류의지는 수용도와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연구진의 내부회의를 거쳐 제거함
- 7개 문항 중 이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걸쳐 3)번과 5)번 문항은 다른 문항과 차별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거됨

[표 5]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수용도 설문 문항 구축

구분	문항	채택여부 (비채택 이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1)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채택
	2) 나는 우리사회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채택
	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와 문화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집단)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문항과 유사)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선 의지	4) 나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일반화 예시: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이란”, “장애인인데 할 수 있어요?”)	채택
	5)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한다	(다른 문항과 유사)
	6)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채택
	7)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채택
교류 의지	8) 나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 문화적·신체적 차이에서 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뢰도)
	9)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과 편견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교류의지 제거)
	10) 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소수집단 대상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신뢰도)

2_1차 델파이 설문지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 개발을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행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와 설문 문항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받고,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하고, 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 될 예정이며, 응답에는 약 2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서울연구원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백선희 연구위원

연구원: 조윤정 연구원

설문 시작 전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에 관한 사전 설명

※ 아래 내용은 우리연구진이 구성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의 방향 및 구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 방향 및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된 ‘문화다양성 시민(국민) 인식조사’는 문화다양성을 소수자집단과 사회갈등 현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등을 주요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진은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를 설계하면서, 선행지표를 참고하되 시민의 문화표현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소수자집단에 대한 수용도 지표는 「인권실태조사」지표와 유사성이 높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즉 시민을 문화다양성 당사자이자 수용자로 보고, 시민이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설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민입니다. 소수자집단만을 대상으로하는 별도 설문지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인구특성에 소수자집단 특성을 기입하여 추후 소수자집단과 서울시민 전체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수자집단의 문화다양성 실태는 집단심층면접법(FGD: 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해 보충하고자 합니다.

※ 우리연구진이 설계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결과, ②문화체육관광부와 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③ 미국 로우어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다양성 자가평가 설문’, ④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 개발한 ‘문화역량 자가평가 설문’, ⑤ 영국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의 V. Dhupa 교수가 개발한 ‘다양성과 문화의 이해 설문’을 참고했습니다.

2.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 방향 및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된 ‘문화다양성 시민(국민) 인식조사’는 문화다양성을 소수자집단과 사회갈등 현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등을 주요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연구진은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를 설계하면서, 선행지표를 참고하되 시민의 문화표현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소수자집단에 대한 수용도 지표는 「인권실태조사」지표와 유사성이 높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즉 시민을 문화다양성 당사자이자 수용자로 보고, 시민이 문화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설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민입니다. 소수자집단만을 대상으로하는 별도 설문지는 구성하지 않았으며, 인구특성에 소수자집단 특성을 기입하여 추후 소수자집단과 서울시민 전체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수자집단의 문화다양성 실태는 집단심층면접법(FGD: 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해 보충하고자 합니다.

※ 우리연구진이 설계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①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결과, ②문화체육관광부와 타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③ 미국 로우어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다양성 자가평가 설문’, ④ 캐나다 웨스턴 대학에서 개발한 ‘문화역량 자가평가 설문’, ⑤ 영국 노팅엄 트렌드 대학교의 V. Dhupa 교수가 개발한 ‘다양성과 문화의 이해 설문’을 참고했습니다.

3. 문화다양성 집단 분류(조사 항목)

문화다양성 집단 분류는 우리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수행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방안」의 연구 결과를 차용했습니다. 2018년도 연구에서는 문화다양성 대상 분류에 관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민종·인종·국가’, ‘종교·사상’, ‘장애’, ‘성(性)·성적지향’, ‘나이(세대)’, ‘지역’, ‘비주류문화’ 등 7가지로 영역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에서는 7개 영역 중 ‘지역’은 구체화하여 ‘출신 지역’으로, ‘성(性)·성적지향’은 ‘성별’과 ‘성적지향’으로 분리하고, ‘비주류문화’는 범주를 좁혀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으로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8개로 분류했습니다.

- ① 민족·인종·국가, ② 종교, 사상,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 지향, ⑥ 세대, ⑦ 출신 지역 ⑧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4.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 체계 구성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는 I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II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IV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V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VI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및 영향력, V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등 7가지로 구성했습니다.

구분	대분류
I. 수용도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II. 차별 경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III. 실천 의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IV. 발현 방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V. 이해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VI. 우리사회 의식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및 영향력
VII.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지표별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I.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II.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1. 개인(나)의 문화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2.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
	3. 차별 경험 시 행동(내가 차별받았을 때, 지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4. 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1. 문화다양성 인식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IV.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1. 개인(나)의 문화표현 가능 여부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발현 방식 (표현 여부, 집단적 표현 여부, 표현 장소)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V.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VI.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및 영향력	1.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V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A.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전체 구성에 관한 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전체 체계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대분류
I. 수용도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II. 차별 경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III. 실천 의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IV. 발현 방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V. 이해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VI. 우리사회 인식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VII.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평가

Q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대분류 구성 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1a. (Q1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Q1b. 지표 항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지표가 있
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B.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지표에 대한 의견

〈수용도 지표 구성〉

‘I.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지표는 1. 개인이(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와 2. 우리사회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총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Q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지표를 위와 같이 2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2a. (Q2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2b. 지표 내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수용도 설문 문항〉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질문: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행동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존중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른 민족, 인종, 국적					
2) 나와 다른 종교, 사상					
3) 나와 다른 신체적 특성(장애)					
4) 나와 다른 성별					
5) 나와 다른 성적 지향					
6) 나와 다른 세대					
7) 나와 다른 지역 출신					
8) 나와 다른 문화예술 취향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질문: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우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는 사회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민족, 인종, 국적					
2) 다른 종교, 사상					
3) 다른 신체적 특성(장애)					
4) 다른 성별					
5) 다른 성적 지향					
6) 다른 세대					
7) 다른 지역 출신					
8) 다른 문화예술 취향					

Q3.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Q3_a. (Q3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Q3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나)의 수용도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도	

C.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지표에 대한 의견

〈차별 경험 지표 구성〉

‘II.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지표는 1. 개인(나)의 문화표현이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수용되는지, 2. 개인(나)의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 3. 내가 차별을 받거나 혹은 타인의 차별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4.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든 경험이 있는지 등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1. 개인(나)의 문화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2.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
	3. 차별 경험 시 행동(내가 차별받았을 때, 지인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4. 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Q4.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지표를 위와 같이 4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4a. (Q4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Q4b. 지표 구성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
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차별 경험 설문 문항〉

1. 개인(나)의 문화표현에 대한 우리사회의 수용성

질문: 우리사회는 귀하가 타인과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을 존
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5. 위의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5_a. (Q5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5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
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차별 경험 설문 문항〉

2.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

질문: 최근 1년간 귀하는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있음	없음
1) 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2) 종교·사상 다르다는 이유로		
3) 장애(신체적, 정신적)를 이유로		
4)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5) 소수자라는 이유로(예: 레즈비언, 게이 등)		
6)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7)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9) 기타 이유(자세히:)		

Q6. 위의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6_a. (Q6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6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차별 경험 설문 문항〉

3. 차별 경험 시 행동

3_1. 내가 차별받는다면 할 행동

질문: 귀하가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기:

- ① 상관하지 않는다(무시한다)
- ② 참는다
- ③ 주변사람들에게 알린다
- ④ 잘못된 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⑤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전문단체 도움요청, 시정요구, 신고 등)

3_2. 지인의 차별을 목격했을 때 나의 행동

질문: 귀하의 지인이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목격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기:

- ① 모른척한다(무시한다)
- ② 참는다
- ③ 주변사람들에게 알린다
- ④ 잘못된 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 ⑤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한다(전문단체 도움요청, 시정요구, 신고 등)

Q7.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3-1. 내가 차별받는다면 할 행동	
3-2. 지인의 차별을 목격했을 때 나의 행동	

Q7_a. (Q7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3-1. 내가 차별받는다면 할 행동	
3-2. 지인의 차별을 목격했을 때 나의 행동	

Q7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3-1. 내가 차별받는다면 할 행동	
3-2. 지인의 차별을 목격했을 때 나의 행동	

〈차별 경험 설문 문항〉

4. 내가 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질문: 귀하는 타인이 귀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2) 종교·사상 다르다는 이유로		
3) 장애(신체적, 정신적)를 이유로		
4)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5) 소수자라는 이유로(예: 레즈비언, 게이 등)		
6)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7)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9) 기타 이유(자세히:)		

Q8. 위의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8_a. (Q8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8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D.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지표에 대한 의견

〈실천 의지 지표 구성〉

‘Ⅲ.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지표는 1. 개인의 문화다양성 인식 정도와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정도 등 총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지표는 로우어 콜롬비아 대학의 ‘문화다양성 자가평가 설문’과 캐나다 웨스턴 대학의 ‘문화역량 자가 평가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1. 문화다양성 인식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Q9.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지표를 위와 같이 2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9a. (Q9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9b. 지표 구성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실천 의지 설문 문항〉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질문: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행동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가능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우리사회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와 문화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집단)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10.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1-1) 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우리사회에서 주류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나와 문화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집단)을 나도 모르게 차별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10_a. (Q10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1) 위 문항과 동일	
1-2) "	
1-3) "	

Q10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1-1) 위 문항과 동일	
1-2) "	
1-3) "	

〈설문 문항〉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질문: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행동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가능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반화 예시: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이란..”, “장애인인데 할 수 있어요?”)					
2)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한다					
3)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4)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Q11.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십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2-1) 나는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그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반화 예시: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이런..”, “장애인인데 할 수 있어요?”)	
2-2)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 한다	
2-3)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2-4) 나는 문화적·신체적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Q11_a. (Q11의 ①, ② 응답자) 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2-1) 위 문항과 동일	
2-2) "	
2-3) "	
2-4) "	

Q11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2-1) 위 문항과 동일	
2-2) "	
2-3) "	
2-4) "	

E.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과 장애요인' 지표에 대한 의견

〈발현 방식 지표 구성〉

'IV.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지표는 1. 개인(나)의 문화 표현이 가능하지 여부와 2. 개인이 사회에서 주류로 생각하지 않는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문화 등)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고 어디서 표현하는 지, 3. 비주류 문화 표현 시 장애요인 등 총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1. 개인(나)의 문화표현 가능 여부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발현 방식 (표현 여부, 집단적 표현 여부, 표현 장소)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Q12.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과 장애요인' 지표를 위와 같이 3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12a. (Q11번 ①, ② 응답자) 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2b. 지표 구성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발현 방식 설문 문항〉

1. 개인(나)의 문화표현 가능 여부

질문: 귀하는 자유롭게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13. 위의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13_a. (Q13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3_b. 설문 문항이나 보기 항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발현 방식 설문 문항〉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발현 방식

2-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향유 여부

질문: 귀하는 사회에서 주류로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문화 등을 가지고 있습니까?(예: 채식주의, 문신, 인디예술, 성소수자(퀴어)문화 등)

보기: ① 그렇다(☞2-2로 이동) ② 아니다

2-2.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의 종류

질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2개까지만 적어주시요.

(예: 채식주의, 문신, 인디예술, 성소수자(퀴어)문화 등)

()

2-3. 비주류 문화의 표현 여부

질문: 귀하는 현재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기: ① 있다(☞2-4로 이동) ② 없다

2-4. 비주류 문화의 집단적 표현 여부

질문: 그것을 함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기: ① 있다(☞2-5로 이동) ② 없다

2-5. 비주류 문화 표현 장소

질문: 주로 그것을 어디에서 표현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①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임에서

② 같은 지역·국가 출신 사람들 모임에서

③ 동호회 혹은 취향모임에서

④ 관련 기관·협회에서

⑤ 관련 축제·행사에서

⑥ SNS,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서

⑦ 기타(자세히:)

Q14.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2-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향유 여부	
2-2)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의 종류	
2-3) 비주류 문화의 표현 여부	
2-4) 비주류 문화의 집단적 표현 여부	
2-5) 비주류 문화 표현 장소	

Q14_a. (Q14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2-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향유 여부	
2-2)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의 종류	
2-3) 비주류 문화의 표현 여부	
2-4) 비주류 문화의 집단적 표현 여부	
2-5) 비주류 문화 표현 장소	

Q14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2-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향유 여부	
2-2) 향유하는 비주류 문화의 종류	
2-3) 비주류 문화의 표현 여부	
2-4) 비주류 문화의 집단적 표현 여부	
2-5) 비주류 문화 표현 장소	

<발현 방식 설문 문항>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3-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표현 시 어려움

질문: 귀하가 그것을 표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을 최대 2개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 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 ②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 때문에
- ③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 ④ 관련 정보가 없어서
- ⑤ 적절한 공간이 부족해서
- ⑥ 시간이 없어서
- ⑦ 돈이 없어서
- ⑧ 기타(자세히:)
- ⑨ 어려운 점 없음

3-2.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

질문. (비주류 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 응답자)귀하가 그것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는(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최대 2개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 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 ②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 때문에
- ③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 ④ 관련 정보가 없어서
- ⑤ 적절한 공간이 부족해서
- ⑥ 시간이 없어서
- ⑦ 돈이 없어서
- ⑧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 ⑨ 기타(자세히:)

Q15.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3-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표현 시 어려움	
3-2)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	

Q15_a. (Q15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3-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표현 시 어려움	
3-2)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	

Q15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3-1)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 표현 시 어려움	
3-2) 비주류 문화(가치관, 생활방식, 취향 등)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	

F.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표에 대한 의견

〈이해도 지표 구성〉

‘V.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표는 1. 문화다양성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2. 제시된 보기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는 단어(대상)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는지 등 총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이 중 3번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중 대국민 인식지표의 문항을 차용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문체부 문항과 동일)

Q16.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표를 위와 같이 3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16a. (Q16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6b. 지표 내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설문 문항〉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질문: 귀하는 '문화 다양성'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기: ① 있다 ② 없다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질문: 다음 제시된 단어 중 '문화 다양성'과 연관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 ① 민족·인종·출신국가 ② 종교·사상 ③ 장애 ④ 성별 ⑤ 성적지향
⑥ 연령(세대) ⑦ 비주류(소수)문화 ⑧ 지역 ⑩ 전통문화 ⑪ 소득
⑫ 기호·취향 ⑬ 기타(자세히:)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질문: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예술적 창작, 생산, 유통 및 향유방식 등의 다양성을 포함함.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존을 이루도록 추구하는 정책임.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17.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Q17_a. (Q17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Q17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G.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지표에 대한 의견

〈우리사회 인식 지표 구성〉

‘VI.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영향력’ 지표는 1.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에 대한 평가,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총 2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이중 1번 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중 대국민 인식 지표의 문항을 차용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1.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문체부 동일)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Q18.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영향력' 지표를 위와 같이 2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18a. (Q18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8b. 지표 내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우리사회 인식 설문 문항〉

1. 우리사회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질문: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2) 우리사회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3) 우리사회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4) 우리사회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5)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Q19.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1-1)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1-2) 우리사회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3) 우리사회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1-4) 우리사회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5)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Q19_a. (Q19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1)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1-2) 우리사회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3) 우리사회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1-4) 우리사회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5)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Q19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1-1)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이다	
1-2) 우리사회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3) 우리사회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1-4) 우리사회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5)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우리사회 의식 설문 문항>

2.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질문: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우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차별과 혐오문화 감소					
2) 사회갈등 완화					
3) 공존과 상생문화 확산					
4)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촉진					
5)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6)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기여					

Q20.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2-1) 차별과 혐오문화 감소	
2-2) 사회갈등 완화	
2-3) 공존과 상생문화 확산	
2-4)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촉진	
2-5)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2-6)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기여	

Q20_a. (Q20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2-1) 차별과 혐오문화 감소	
2-2) 사회갈등 완화	
2-3) 공존과 상생문화 확산	
2-4)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촉진	
2-5)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2-6)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기여	

Q20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2-1) 차별과 혐오문화 감소	
2-2) 사회갈등 완화	
2-3) 공존과 상생문화 확산	
2-4)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촉진	
2-5)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	
2-6)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통합에 기여	

H.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지표에 대한 의견

<서울시 정책 평가 지표 구성>

'Ⅶ.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지표는 1.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얼마나 잘 한다고 평가하는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3.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4. 서울시 문화다양성 각 정책 방안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총 4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서울시 문화다양성 책 평가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Q2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지표를 위와 같이 2가지로 구성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21a. (Q21번 ①, ② 응답자) 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21b. 지표 내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거나, 추가·삭제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서울시 정책 평가 설문 문항〉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질문: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질문: 귀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중앙정부 ② 서울시 ③ 자치구 ④ 시민사회 단체
⑤ 기타(자세히:)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질문: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22.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시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응답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Q22_a. (Q22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Q22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문항별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응답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2.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책임 소재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서울시 정책 평가 설문 문항〉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질문: 다음은 서울시가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귀하는 각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2) 소수문화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3)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 지원					
4)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5) 소수문화 접촉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6)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간 교류 확대					

Q23. 위의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주세요.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적절함 ⑤ 매우 적절함

Q23_a. (Q23의 ①, ② 응답자)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23_b. 설문 문항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I. 기타 의견

Q24.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발을 위해 추가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3_2차 델파이 설문지

165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지표 개발을 위한 2차 델파이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연구원은 올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총 35명 중 30명(85.7%)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1차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연구진이 수정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와 설문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서울연구원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백선희 연구위원

연구원: 조윤정 연구원

지표 적절성 평가 결과

※ 아래 내용은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결과 요약입니다. 읽어보시고 문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표 구성 적절성 평가 결과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구성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지표 전체 구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판단이 83.3%(매우 적절+적절), 부적절 판단이 10.0%로 적절하다는 판단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 지표별 적절성 평가는 7개 지표 모두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 I. 수용도, III. 실천의지, V. 이해도, VI. 우리사회 의식 수준 평가 지표는 적절하다는 판단이 70% 이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II. 차별 경험, VI. 발현방식, VII. 서울시 정책평가 지표는 적절하다는 판단이 60%로, 다른 지표와 비교하면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표. 지표별 적절성 평가결과(적절성 여부 및 평균 점수)

(단위: %, 점)

구분	지표명	적절성 판단 결과			
		적절	부적절	보통	평균 (5점 만점)
I. 수용도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83.3	6.7	10.0	3.87
II. 차별 경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60.0	13.3	26.7	3.53
III. 실천 의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70.0	16.7	13.3	3.63
IV. 발현 방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60.0	6.7	33.3	3.60
V. 이해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80.0	10.0	10.0	3.87
VI. 우리사회 의식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및 영향력	80.0	0.0	20.0	4.03
VII.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60.0	6.7	33.3	3.63

2. 2차 설문조사 구성

- 2차 설문조사는 ‘A. 주요 용어 및 문구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B. 문화 다양성 대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 ‘C. 지표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 ‘D. 설문 문항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E. 설문 문항 추가 의견에 대한 평가’ 등 크게 5가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항마다 1차 조사 결과 주요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새롭게 수정한 안이 제시되고, 수정된 안에 관하여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주요 용어 및 문구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지표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적 차이 집단’이란 용어와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문구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와 이를 수렴하여 연구진이 새롭게 수정한 안이 제시됩니다.
- **B.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
문화다양성 대상과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수정·보완 의견 중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이 채택한 의견과 연구진이 새롭게 수정한 안이 제시됩니다.
- **C. 지표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
지표 구성과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수정·보완 의견과 이를 수렴하여 연구진이 수정한 지표 구성 안이 제시됩니다.
- **D. 설문 문항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1차 조사에서 적절성 평가가 낮았던 II. 차별 경험, VI. 발현방식, VII. 서울시 정책평가 지표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만 적절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진이 새롭게 수정한 문항이 제시됩니다.
- **E. 설문 문항 추가 의견에 대한 평가**
1차 조사에서 설문 문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안된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 문항 추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A. 주요 용어 및 문구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 ‘문화적 차이 집단’이란 용어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 지표 명칭과 문항에 사용된 ‘문화적 차이 집단’, ‘문화적·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집단)’이란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 ‘문화적 차이 집단’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색하여 수정이 필요
 - ‘문화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문화적·신체적 차이’가 혼용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일 필요
 - ‘문화적 차이 집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 필요
- 수정 용어로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소수자 집단’, 문화적·사회적·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집단)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수정(안)

- 우리 연구진은 ‘문화적 차이 집단’이란 용어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으로 수정하고 추가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문화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응답자에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설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문화적 배경

모든 개인과 집단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요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인종·국적, 종교나 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 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 지역, 취향 등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룹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Q01. ‘문화적 차이 집단’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으로 수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02.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03. 연구진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 1차 조사 결과: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문구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

-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문구는 ‘문화표현’을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본 설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중요 표현입니다. 이 문구와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수정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 생각이나 가치관만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확장된 표현이 필요: 생각이나 가치관은 본인의 선택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고, 인종이나 민족 등 출생 지역에 따른 문화적 관습 등은 본인의 선택 영역이 아니기 때문
 - ‘생각’이나 ‘가치관’의 표현은 ‘문화표현’보다 더 추상적이고 넓은 범주기 때문에 수정 필요
 - ‘문화표현’이 말이 어색하고 모호함. ‘문화표현’에 대해 좀 더 구체적 상황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수정(안)

- 우리 연구진은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란 문구를 ‘문화표현’으로 수정하고 추가 설명과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문화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설문 전에 응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문화표현

이 설문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말씨나 행동, 생활 방식, 표현 등을 문화표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반인륜적 가치 등 인류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침해하는 표현은 제외됩니다.

문화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 이슬람 국가에서 온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학교에 가는 것
- 채식주의자가 식사 시간에 채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
- 퀴어 문화축제(성 소수자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
- 교회 다니는 친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 손목에 좋아하는 글귀를 문신으로 새기는 것
-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볼을 비비며 인사하는 것
- 부산에서 온 친구가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
-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

Q04. '자신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문화표현'으로 수정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05. '문화표현'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06. 연구진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B.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

- 기존 8개로 구분한 문화다양성 대상 외에 소득, 외모, 학력, 혼혈, 난민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 대상에 초점을 맞춰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우선 집중해야 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방안」의 연구 결과를 차용하기로 한 의견을 고수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을 늘리지는 않는 방향으로 유지하였습니다.

○ 수정(안)

- 기존 8개 대상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1차 델파이 제시안	채택 의견	수정(안)
1. 민족·인종·국적		1. 민족·인종·국적
2. 종교·사상	· 사상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문화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견해'로 수정	2. 종교·정치적 견해
3. 신체적 특성(장애)	· 정신적 특성을 포함하여 장애로 수정	3. 장애
4. 성별		4. 성별
5. 성적 지향	· 성적 지향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성정체성을 같이 표기	5. 성적 지향·성정체성
6. 세대		6. 세대
7. 출신 지역		7. 출신 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	8. 미정

Q07. '종교·사상'을 '종교·정치적 견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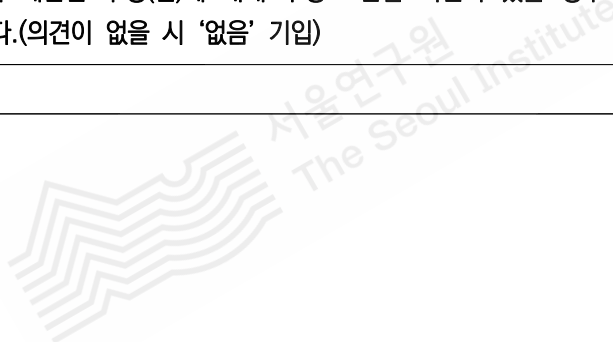
Q08. '신체적 특성(장애)'를 '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09.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의 수정(안)에 대한 자문회의 논의 결과 '비주류 예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위 7가지 대상 외에 사회에서 문화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문화적 취향으로 범주를 넓혀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중 수정(안)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② 소수성을 갖는 문화 취향
 ③ 비주류 예술(독립예술, 인디예술, 실험예술 등)
 ④ 그 외 다른 의견(자세한 내용:)

Q10. 연구진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을 시 '없음' 기입)



C. 지표 구성에 대한 적절성 평가

○ 1차 조사 결과: 대분류 지표 구성 체계에 대한 의견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표별 적절성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지표 구성과 적절성 판단 결과

구분	지표명	적절성 판단 결과(%)	
		적절	부적절
I. 수용도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83.3	6.7
II. 차별 경험	문화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60.0	13.3
III. 실천 의지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70.0	16.7
IV. 발현 방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 및 장애요인	60.0	6.7
V. 이해도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80.0	10.0
VI. 우리사회 의식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및 영향력	80.0	0.0
VII. 서울시 정책 평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60.0	6.7

- 지표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 ‘V. 이해도’ 지표를 맨 앞으로 배치
 - 현재 지표 항목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여 배치
 - 문화다양성 인식의 세분류 지표 구성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식, 관점 형성, 태도 반영 등의 측면을 포함하여 재구성 필요
 - ‘I. 수용도’,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VI.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지표의 세부항목이 유사
- 지표 명칭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 지표 명칭 중 ‘우리사회’라는 표현은 그 범주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
 - ‘II. 차별 경험’은 본인이 차별한 것인지 차별받은 것인지 정확한 표현 필요

○ 수정(안)

- 대분류 체계를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로 구분하였습니다.
 -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은 인지도(지식), 관점과 태도, 존중도, 차별 경험, 문화표현의 자유도 및 표현 시 방해요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는 수용도, 존중도로 구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는 영향력, 정책 필요도, 정책 중요도, 사업별 필요도로 구성하였습니다.
 - ‘우리사회’는 지역사회로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시’로 수정하였습니다.

○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지표 구성(좌), 수정된 지표 구성(우)

대분류	소분류	세부 문항	중분류	대분류
I.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수용도	1.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개인의 수용도	1. 문화다양성이란 말의 경함 여부와 대상 인식 정도	인지도(지식)	개인의 문화다양성 인식
	2.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도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	관점과 태도	
	1. 개인/나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존중도	존중도	
	2. 내가 문화적 표현을 할 때 차별 받은 경험	4. 내가 문화적 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받았을 때 행동	차별 받은 경험	
II. 문화적 표현에 대한 차별 경험	3. 차별 경험 시 행동(내가 차별받았을 때, 자신이 차별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5. 친구가 문화적 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 목격 시 행동	차별 경험
	4. 내가 문화적 차이 집단의 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	6. 타인이 문화적 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한 경험	
III.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1. 문화다양성 인식	7. 내가 타인의 문화적 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느낀 경험과 행동	문화적 표현의 자유도 및 표현 시 방해요인	
IV. 개인/나의 문화다양성 표현 방식 및 장애요인	2.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 의지	8. 개인의 문화적 표현을 이유로 타인이 자유롭게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1. 개인/나의 문화적 표현 가능 여부	9. 개인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2.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의 표현 방식 (표현 여부, 집단적 표현 여부, 표현 장소) (일부 삭제)	10. 문화적 표현 시 방해요인		
V.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이해도	3. 개인이 갖고 있는 비주류 문화(소수문화) 표현 장애요인	11.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존중도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1. 문화다양성 단어의 접촉 여부	12.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수용도	
VI.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및 영향력	2.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인식	13. 문화다양성 기치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	영향력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3.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정도 (삭제)	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도	정책 필요도	
V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1.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5. 서울시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정책 중요도	서울시 문화다양성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2. 문화다양성 인식 정책 평가 (삭제)	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별 중요도	사업별 중요도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VI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방안별 중요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전체 구성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Ⅰ.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인식	인지도(지식)
		관점과 태도
		존중도
	차별 경험	차별받은 경험
		차별 목격 시 행동
		차별한 경험
Ⅱ.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문화표현의 자유도 및 표현 시 방해요인	
	존중도	
	수용도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도 및 중요도	영향력	
	정책 필요도	
	정책 중요도	
	사업별 중요도	

Q1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의 전체 구성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11a. (Q11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Ⅰ.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Ⅰ.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인식	인지도(지식) 1. ‘문화다양성’이란 말의 경험 여부와 대상 인식 정도
		관점과 태도 2.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과 태도
		존중도 3.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존중도
	차별 경험	차별받은 경험 4.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받았을 때 행동
		차별 목격 시 행동 5. 친구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한 경험 6. 타인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문화표현의 자유도 및 표현 시 방해요인	7. 내가 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느낀 경험과 행동
		8. 개인의 문화표현 유무 및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9. 개인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10. 문화표현 시 방해요인

Q12.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의 구성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12a. (Q12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Ⅱ.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Ⅱ.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존중도	11.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수용도	12.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

Q13.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수용도'의 구성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13a. (Q13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Ⅲ. 서울시 문화다양 성 정책의 중요도	영향력	1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필요도	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도
	정책 중요도	15. 서울시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사업별 중요도	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별 중요도

Q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의 구성 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Q14a. (Q14번 ①, ② 응답자)위 지표 구성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D. 설문 문항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

※ 설문 문항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1차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60%로 다른 문항에 대해 적절하다는 판단이 다소 낮았던 ‘II. 차별 경험’, ‘VI. 발현방식’, ‘VII. 서울시 정책평가’ 문항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 ‘I.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중 ‘차별 경험’ 설문 문항 수정 내용

- 차별받거나 목격했을 때 선택 보기 문항이 변별력이 약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에 대응하는 행동을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적극적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 지인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을 묻는 질문에서 ‘지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친구’로 수정했습니다.
- 지인 외 타인이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 내가 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느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문항을 추가했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I.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차별 경험	차별받은 경험	4.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받았을 때 행동
		차별 목격 시 행동	5. 친구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6. 타인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차별한 경험	7. 내가 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느낀 경험과 행동

○ 수정된 ‘차별 경험’ 설문 문항

Q04. 귀하는 최근 3년간 귀하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있음	없음
1) 민족·인종·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2)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3) 장애를 이유로		
4)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5)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예: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		
6)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7)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9) 기타 이유(자세히:)		

Q04a. (Q04의 ‘있음’ 응답자)차별 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 ②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았다
- ③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 ④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Q04a1로 이동)

Q04a1.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했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렸다
- ⑤ 기타(자세히:)

Q05. 귀하의 친구가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본다면 귀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②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는다
- ③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④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Q05a로 이동)

Q05a.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한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린다
- ⑤ 기타(자세히:)

Q06. 귀하가 잘 모르는 타인이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본다면 귀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②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는다
- ③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④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Q06a로 이동)

Q06a.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한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린다
- ⑤ 기타(자세히:)

Q07. 귀하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타인이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할 때 거부감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귀하가 각 대상의 문화표현을 접한 경험이 없다면 '접한 경험이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거부감을 느낀 경험		접한 경험이 없음
	있음	없음	
1) 민족·인종·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2)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3) 장애를 이유로			
4)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5)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예: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등)			
6)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7)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9) 기타 이유(자세히:)			

Q07a. (Q07의 '있음' 응답자)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 ① 속으로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 ② 그 표현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
- ③ SNS, 온라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 ④ 그 자리에서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
- ⑤ 기타(자세히:)

Q15.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응답
4. 내가 문화표현을 할 때 차별받은 경험과 차별받았을 때 행동	
5. 친구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6. 타인이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았을 때 행동	
7. 내가 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을 느낀 경험과 행동	

Q15a. (Q15번 ①, ② 응답자)위 수정된 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I.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중 '문화표현의 자유도 및 방해요인' 설문 문항 수정 내용

- 1차 조사에서 '개인의 문화다양성 발현 방식'에 대한 설문 문항 적절성 평가 결과 적절하다는 판단이 50% 내외로 다른 문항과 비교하여 가장 낮게 판단되어 전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I. 개인 차원의 문화다양성 인식	문화표현의 자유도 및 표현 시 방해요인	8. 개인의 문화표현 유무 및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9. 개인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10. 문화표현 시 방해요인

① 있다 ② 없다(☞ Q11로 이동)

- ① 전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
- ② 거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⑤ 매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거나 드러낸 경험이 없음
- ②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음
- ③ 내 정체성/가치관/취향의 표현이 가족, 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됨
- ④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 ⑤ 표현을 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 ⑥ 관련 정보가 없음
- ⑦ 적절한 공간이 부족함
- ⑧ 기타(자세히:)
- ⑨ 어려운 점 없음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응답
8. 개인의 문화표현 유무 및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	
9. 개인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의 존중도	
10. 문화표현 시 방해요인	

--

○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설문 문항 수정 내용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 항목이 변별력이 약하고 위계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유사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 차원의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영향력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측정 척도를 긍정적 영향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모두 측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척도를 수정하였습니다.
- 1차 설문에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와 책임 소재를 묻는 문항은 응답자 입장에서 답하기에 정보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제하였습니다.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항은 각 항목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판단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문항 내용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영향력	1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필요도	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도
	정책 중요도	15. 서울시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사업별 필요도	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별 중요도

○ 수정된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설문 문항

Q13.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시민의 문화 권리 확대					
3) 차별과 혐오문화 감소					
4)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					
5) 경제적 활력 증진					

Q14. 귀하는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Q15.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Q16. 다음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시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지원					
2)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4) 이주민, 소수자 등 문화다양성 이해당사자 예술가 또는 문화다양성을 소재로 한 예술 활동 지원					
5) 다문화도서관, 세계한인박물관, 통합국제문화원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6) 대림동 중국동포거리, 방배동 서래마을 등 각 지역별로 밀집한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7)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8) 관련 제도, 예산 확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Q17. 위의 각 설문 문항이 적절한지 평가해 주십시오.

① 전혀 적절하지 않음 ② 적절하지 않음 ③ 적절함 ④ 매우 적절함

	응답
13.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력	
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도	
15. 서울시 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별 중요도	

Q17a. (Q17번 ①, ② 응답자)위 수정된 설문 문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 설문 문항 추가 의견에 대한 평가

※ 설문 문항 추가 의견에 대한 평가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가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1차 조사 결과: 추가가 필요하다고 제안된 문항

-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현재 설문 문항으로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화다양성 대상에 대한 실질적 존중도나 수용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 제시되었습니다.
- 즉 문화다양성 집단에 대한 문화표현을 존중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문항으로 각 대상에 대해 '시민, 동네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는 '보가더스(Bogardus)의 사회적 거리 측정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Q18. 1차 조사에서 제안된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측정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추가할 필요 있음(☞Q18a로 이동) ② 추가할 필요 없음(☞Q18b로 이동)

Q18a. (Q18번 ① 응답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18b. (Q18번 ② 응답자)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F 기타 의견

Q19.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개발을 위해 추가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4_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지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설문 조사

ID :

--	--	--	--	--	--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에 참고만 할 뿐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통계 결과만을 인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6월

※ 조사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KMCA 000 컨설턴트(02-000-0000)

대상자 선정 질문

185

SQ1. 귀하는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서울 외 응답은 설문 중단)

- ① 서울(☞SQ02로 이동) ② 경기
③ 인천 ④ 그 외 지역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③ 그 외

SQ3.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_____년

SQ4. 귀하가 현재 사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심권	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	
동북권	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	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	⑩ 도봉구	⑪ 노원구
서북권	⑫ 은평구	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서남권	⑮ 양천구	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
	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	
동남권	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	㉕ 강동구

Part I. 개인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Q01. 귀하는 ‘문화다양성’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Q01a.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문화다양성’은 다음 중 어떤 것과 연
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민족·인종·국적 | ② 종교·정치적 견해 |
| ③ 장애 | ④ 성별 |
| ⑤ 성적 지향·성정체성 | ⑥ 세대(연령) |
| ⑦ 출신 지역 | ⑧ 기호·취향 |
| ⑨ 비주류 예술(독립예술, 실험예술 등) | ⑩ 전통문화 |
| ⑪ 소득 | ⑫ 기타(자세히:) |

※ 아래 설명을 읽고 문항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적 배경

모든 개인과 집단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문화적 배경은 다양한 요소로 만
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인종·국적, 종교나 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 출신 지역, 취향 등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이룹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 문화표현

문화표현이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말씨나 행동, 생활
방식, 표현, 취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죄, 반인류적 가치 등 인류의
공존과 지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문화표현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문화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여학생이 히잡을 쓰고
학교에 가는 것



채식주의자가 식사 시간에 채식 메뉴를
선택하는 것



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



교회 다니는 친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



손목에 좋아하는 글귀를 문신으로 새기는 것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볼을 비비며
인사하는 것



부산에서 온 친구가 부산 지역어로
이야기하는 것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

Q02. 다음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평소 귀하의 생각·행동과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 나는 한국사회에서 소수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차별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그와 비슷한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일반화 예시: “남자/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이란..”, “장애인인데 할 수 있어요?”)					
4) 나는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집단)에 대한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5) 나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집단)을 모욕하는 농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Q0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보기 로테이션)

	전혀 존중 하지 않는다	별로 존중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존중 한다	매우 존중 한다
1) 민족·인종·국적					
2) 종교·정치적 견해					
3) 장애					
4) 성별					
5) 성적 지향·성정체성					
6) 세대(연령)					
7) 출신 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04-1. 귀하는 다음의 집단(대상)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결혼이주민					
2) 이주노동자					
3) 북한이탈주민					
4) 종교가 다른 사람					
5)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6) 장애인					
7)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8) 성소수자					
9)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10)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11)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04-2. 귀하는 다음의 집단(대상)과 직장 동료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기 로테이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결혼이주민					
2) 이주노동자					
3) 북한이탈주민					
4) 종교가 다른 사람					
5)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6) 장애인					
7)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8) 성소수자					
9)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10)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11)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04-3. 귀하는 다음의 집단(대상)과 동호회(취미모임)를 함께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보기 로테이션)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결혼이주민					
2) 이주노동자					
3) 북한이탈주민					
4) 종교가 다른 사람					
5)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6) 장애인					
7)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8) 성소수자					
9)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10)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11)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04-4. 귀하가 하고 싶었던 동호회(취미모임)를 찾았는데 다음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절대 참여 하지 않는다	참여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참여 한다	꼭 참여 한다
1) 결혼이주민					
2) 이주노동자					
3) 북한이탈주민					
4) 종교가 다른 사람					
5)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6) 장애인					
7)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8) 성소수자					
9)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10)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11)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Part II. 이번에는 귀하가 느끼신 귀하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차별 경험을 여쭙겠습니다

Q5. 다음 보기 중 귀하가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외국인근로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결혼이주민 ④ 장애인
 ⑤ 성소수자 ⑥ 비주류 문화예술인 혹은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
 ⑦ 해당 항목 없음

Q06. 귀하는 최근 3년간 온라인(인터넷,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귀하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Q06번은 문항은 4) 성별, 6) 나이, 7) 출신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9) 기타 보기는 기본으로 열리고, 나머지 보기는 Q5번 문항에서 ①, ②, ③, ④, ⑤번을 선택했을 경우는 해당 보기 문항이 추가로 열림)

	온라인에서 나의 문화표현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있음	없음
1) 나는 민족·인종·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2) 나는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3) 나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4) 나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5) 나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6) 나는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7) 나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9) 기타 이유(자세히:)		

Q06a. (Q06의 '있음' 응답자)차별 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②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았다
 ④ 댓글이나 대화창에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⑤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Q06a1로 이동)

☞ (☞ Q07로 이동)

Q06a1.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했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렸다
- ⑤ 기타(자세히:)

Q07. 귀하는 최근 3년간 일상생활에서 귀하의 문화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Q07번은 문항은 4) 성별, 6) 나이, 7) 출신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9) 기타 보기는 기본으로 열리고, 나머지 보기는 Q5번 문항에서 ①, ②, ③, ④, ⑤번을 선택했을 경우는 해당 보기 문항이 추가로 열림)

	일상생활에서나의 문화표현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있음	없음
1) 나는 민족·인종·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2) 나는 종교·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3) 나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4) 나는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5) 나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6) 나는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7) 나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적이 있다		
9) 기타 이유(자세히:)		

Q07a. (Q07의 ‘있음’ 응답자)차별 받았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았다
 - ④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 ⑤ 불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대응했다
- (☞ Q08로 이동)
- (☞ Q07a1로 이동)

Q07a1.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했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렸다
- ⑤ 기타(자세히:)

Q08. 귀하의 가족 혹은 친구가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본다면 귀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는다
 - ④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⑤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 (☞ Q09로 이동)
- (☞ Q08a로 이동)

Q08a.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한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린다
- ⑤ 기타(자세히:)

Q09. 귀하가 잘 모르는 타인이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본다면 귀하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 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③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는다
 - ④ 표정이나 말투로 기분이 불쾌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 ⑤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 (☞ Q10으로 이동)
- (☞ Q09a로 이동)

Q09a.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한 당사자 혹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 ② 지인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 ③ 전문단체·기관에 신고한다
- ④ SNS,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불편함을 알린다
- ⑤ 기타(자세히:)

Q10. 귀하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합니까?

- ① 그렇다(☞Q09a로 이동) ② 아니다(☞Q09로 이동)

Q10a. (Q10의 ①번 응답자)어떤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생각합니까? 해당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민족·인종·국적 | ② 종교·정치적 견해 |
| ③ 장애 | ④ 성별 |
| ⑤ 성적 지향·성정체성 | ⑥ 세대(연령) |
| ⑦ 출신 지역 | ⑧ 기호·취향 |
| ⑨ 비주류 예술(독립영화, 인디예술 등) | ⑩ 전통문화 |
| ⑪ 소득 | ⑫ 기타(자세히:) |

Q11. 귀하는 **최근 3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만의 문화를 표현했을 때 귀하는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Q11-2번 보기 문항은 4) 성별, 6) 나이 뿐만 기본으로 열리고, 나머지 보기는 Q11-1번 질문에서 1), 2), 3), 5), 7), 8)번에 '있음'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해당 보기 문항이 추가로 열림)

	1. 다음과 같은 사람을 접한 경험		2. 타인의 문화표현에 내가 거부감을 느낀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나와 다른 민족·인종·국적의 사람				
2) 나와 다른 종교·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				
3) 장애인				
4) 성별이 나와 다른 사람				
5) 성소수자				
6)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				
7)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을 가진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11a. (Q11-2의 '있음' 응답자)타인의 문화표현을 보고 거부감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 ① 속으로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② 그 표현을 보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
③ SNS, 온라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불편함을 표현했다

Part IV. 이번에는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존중도와 수용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Q15.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다음과 같은 특성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문화표현을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보기 로테이션)

	전혀 존중 하지 않는다	별로 존중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존중 한다	매우 존중 한다
1) 민족·인종·국적					
2) 종교·정치적 견해					
3) 장애					
4) 성별					
5) 성적 지향·성정체성					
6) 세대(연령)					
7) 출신 지역					
8)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Q16. 다음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수용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보기 로테이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서울시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된다					
2) 서울시에서는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3) 서울시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4) 서울시에서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5) 서울시에서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Part V. 이번에는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17.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					
3) 혐오와 차별문화 감소					
4)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					
5) 경제적 활력 증진					

Q18.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19. 귀하는 서울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Q20. 다음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시된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문화다양성 캠페인,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지원					
2) 학생 및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4)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활동 및 예술가 지원					
5) 다문화도서관, 세계한인박물관, 통합국제문화원 등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거점기관 조성					
6) 문화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지역에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강화					
8) 관련 제도,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등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Part VI.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DQ1. 귀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예: 관련 축제·행사 참여, 교육, 캠페인, 자원봉사 등)

	있음	없음
1) 다문화 관련 활동		
2) 장애인 관련 활동		
3) 성별 불평등 관련 활동		
4) 성소수자 관련 활동		
5) 그 외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내용(자세히:)		

DQ2. 귀하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북한이탈주민·난민		
2) 장애인		
3) 성소수자		
4) 비주류 문화예술가 혹은 그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 (독립예술, 실험예술, 소수성을 갖는 문화취향 등)		

D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족 종사자 포함)
- ② 자영업(종업원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택시 기사 등)
- ③ 서비스직 종사자 및 판매, 영업직 종사자(판매원, 세일즈맨 등)
- ④ 기능직 및 생산직 근로자(운전사, 선반, 목공 숙련공 등)
- ⑤ 단순노무자(단순 노무, 수위 등)
- ⑥ 고위 공직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4급 이상 공무원/교장/기업체 부장 이상)
- ⑦ 전문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언론인, 연구원 등)
- ⑧ 기술직 및 준전문직(기술직, 초/중/고 교사, 5급 공무원 등)
- ⑨ 일반 사무직(일반회사 사무직, 6급 이하 공무원, 기타 사무직 등)
- ⑩ 주부(가사에만 전념하는 주부)
- ⑪ 학생
- ⑫ 무직/퇴직/기타

DQ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 ① 중졸 이하
- ② 고졸
- ③ 대졸(재학포함)
- ④ 대학원(재학) 이상

DQ5.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불교
- ② 기독교(개신교)
- ③ 기독교(천주교)
- ④ 원불교
- ⑤ 유교
- ⑥ 천도교
- ⑦ 대순진리회
- ⑧ 대종교
- ⑨ 기타 ()
- ⑩ 없음

DQ6. 귀하의 월평균 세금 공제 전 가계소득은 월급, 보너스, 기타 소득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입니까?(가족 구성원의 모든 수입을 합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100만 원 미만
- ② 100~149만 원
- ③ 150~199만 원
- ④ 200~249만 원
- ⑤ 250~299만 원
- ⑥ 300~349만 원
- ⑦ 350~399만 원
- ⑧ 400~449만 원
- ⑨ 450~499만 원
- ⑩ 500~599만 원
- ⑪ 600~699만 원
- ⑫ 700~799만 원
- ⑬ 800~899만 원
- ⑭ 900~999만 원
- ⑮ 1,000만 원 이상

DQ7. 귀택의 가구원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명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Indicator and Pilot Survey on Cultural Diversity in Seoul

Seonhae-Baik, Yunjung-Cho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s fundamental to building a sustainable community. In line with th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has established a foundation for policies ensuring more robust cultural diversity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Designing and implementing programs that promote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followed by cultural diversity research which is backed by studies on civic aware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a pilot study to design indices for civic awareness studies.

The Seoul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dicator is significant because it defines residents as those who accept minority groups and who are in fact included in the minority groups themselves. This indicator was design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pression and that of respecting such expression.

An online study using the indicator as a measure was conducted with 1,000 Seoul residents as respondents. Due to the limited sample size and composition, the cultural expression of cultural minority groups could not be accurately assessed. To mitigate the lack of accuracy, extra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minority group professionals and activists.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SMG to introduce more policie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Extending and strengthening this research will require conducting studies periodically and continuously,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he establishment of a Cultural Diversity Committee, which will in turn serve as the control tower for implementing such policies.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 2_Main Content and Research method

02 Seoul Cultural Diversity Policies

- 1_Cultural Diversity Institutions
- 2_Policy Programs

03 Development of Awareness Indicator for Cultural Diversity in Seoul

- 1_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 2_Direction of Seoul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Indicator
- 3_Delphi Survey Results for Development of Awareness indicator

04 Results of Awareness Survey on Cultural Diversity in Seoul

- 1_Analysis of the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of Seoul Residents
- 2_Analysis of Cultural Expressions by Cultural Minority Groups in Seoul
- 3_Results and Conclusions

05 Summary and Conclusion

- 1_Results of Seoul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Research
- 2_Directions of Seoul Cultural Diversity Awareness Research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지표
개발과 시범조사

서울연 2019-BR-22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540-6 93300 12,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